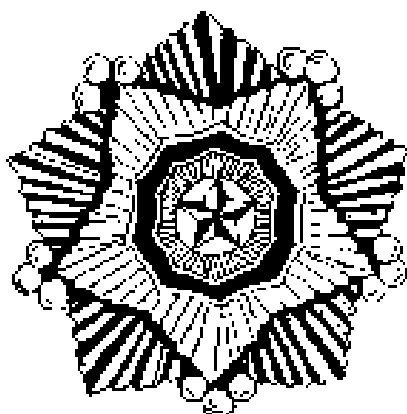




6

주체 99 (2010)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9(2010)년 제6호

(루계 제 752 호)

◇◇◇◇◇◇◇◇◇◇◇◇

차 례

◇◇◇◇◇◇◇◇◇◇◇◇

| | |
|--------------------------------|----|
| 그이의 노래를 부르라면 | 3 |
| 선군의 붉은기따라 앞으로 | 3 |
|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 4 |
| 조 국 | 4 |
| 주체문학의 대강 | 5 |
| 수수한 교탁우에 남포등 하나..... | 5 |
| 경쟁바람 좋을시구 | 5 |
|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시며 | 6 |
| 바쁜 사람..... | 6 |
| 《어느 사단 출신인가요》 | 7 |
| 한줌 흙 | 7 |
| 승전비 | 8 |
| 숲과 건강..... | 17 |
| 《이민위천》리념의 승고한 계승과 불멸의 화폭 | 18 |
| 영웅들을 낳은 땅에서 | 22 |
| 영원히 그날의 그 모습으로 | 23 |
| 인생주로 | 24 |

| | |
|-------------------------|----|
| 경구, 격언..... | 33 |
| 승리의 노래 | 34 |
| 나는 붓을 더 높이 들었다..... | 36 |
| 우리에겐 6.25 가 있지 않는가..... | 37 |
| 룡남산의 새 풍경..... | 38 |
| 제비 온 봄날..... | 40 |
| 사랑의 포전 | 41 |
| 청춘과 사랑과 바다 | 54 |
| 인민생활을 늘이려는 당의 뜻으로..... | 55 |
| 심장을 끓이는 인간의 형상 | 55 |
| 꿀절(뼈가 부러졌을 때)..... | 56 |
| 전선으로 가는 길..... | 57 |
| 사 색..... | 58 |
| 군민사랑풍경(외 1 편) | 59 |
| 빨간 산딸기 | 59 |
| 계속 피우리 | 59 |
| 봄벌에 넘치는 랑만 | 60 |
|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창작된 | 61 |
| 시작품들을 더듬어 | 61 |
| 농 사..... | 64 |
| 백두산에 해 떠오를 때 | 65 |
| 통일이여 너를 비끼게 하련마..... | 78 |
| 겨레여 더 높이 추켜들자..... | 78 |
|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다 | 79 |
| 미래의 옷의 몇가지 특징..... | 79 |
| 둘도 없는 장식품과 명작..... | 80 |

그이의 노래를 부르라면

정동찬

날더러 우리 장군님
그이의 노래를 부르라면
노래에 앞서
이내 가슴속에 넘쳐나는것은
그리움 그리움이여라

그이 한생 겪으시는 고생
너무도 크고
그이 한생 남기시는 사랑
너무도 뜨거운것이어서
가슴에 넘쳐나는것은 그리움 그리움

그이의 노래를 부르라면
떠오르는 화폭에 눈시울 적셔지고
쌓이고 쌓여있는 생각에 목이 메어
어디서부터 서두를 떼야 할지
그이의 모습만을 우러르네

진정 그이의 노래를 부르라면
머나먼 자강땅 구룡령의 어머니도
오성산의 병사도 초도의 해병도
북방 한끝 광산막장의 젊은 광부도
조용히 옷깃을 바로잡으며
내결에 줄을 맞출듯

그이의 노래를 부르라면

가사

선군의 붉은기따라 앞으로

리 철 훈

총공격전이다 북소리 울려라
적기가 부르며 전진해가자
폭풍쳐가는 우리앞에는
선군의 붉은기 펄펄 날린다
아 인민의 리상이 활짝 꽃피나는
강성대국대문을 앞당겨 열자

총동원전이다 떨쳐나서자
군민의 애국심 모두다 바치자
승리의 열쇠는 최첨단과학
우리 힘과 지혜로 돌파해가자
아 인민의 리상이 활짝 꽃피나는

말 못하는 산천마저
터뜨리고싶어하는 격정의 노래가 있어
단풍은 붉게 타고
열매는 무르익고

그이의 노래 부르라면
그이의 슬하에서 만복을 누리며
천년을 만년을 살고싶고
하루하루 사는 보람에 겨워
푸른 대지와 넓은 거리로 뛰쳐나가
마음껏 노래하고싶은 마음

어느 령길의 샘터를 들여다보아도
맑은 샘의 속삭임은 주먹밥에 대한 그이의 노래
런가
어느 산기슭 한송이 들국화앞에 마주앉아도
살랑이는 꽃의 마음은 쪽잠에 대한 그이의 노래
런가
소중히 소중히 깃들어있거니

김정일동지 그이의 노래를 부르라면
해와 달과 별을 떠인 온 강산이 합창대가 되고
온 나라 인민이 합창단이 되어 일어서고
동서해 파도소리가 관현악이 되어 설레이거니
아, 태양의 모습은 불멸의 노래여라!

강성대국대문을 앞당겨 열자

총결사전이다 떨쳐나서자
무엇을 아끼랴 당의 부름에
값높은 삶의 자욱을 남겨
조국이 받드는 영웅이 되자
아 인민의 리상이 활짝 꽃피나는
강성대국대문을 앞당겨 열자

아 총공격전 총동원전 총결사전
선군의 붉은기따라 앞으로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카툰회의가 정식으로 열린것은 1930년 6월 30일 밤이었다.》

《우리가 카툰에서 이처럼 조선혁명의 진로를 선포할수 있었던것은 길림시절에 이미 청년학생운동을 하는 과정을 통하여 조선혁명에 대한 주체적립장과 태도를 확립하고 공산주의운동의 새 길을 개척해왔기때문이었다. 나는 투쟁의 나날에 심어지고 옥중에서 무르익힌 그 사상과 립장을 〈조선혁명의 진로〉라는 이름으로 발표하였을뿐이다.

그것이 곧 우리 혁명의 로선으로 되고 지도사상으로 되였다.

우리가 그 논문에서 전개한 내용을 보면 모두가 주체사상을 핵으로 하였다고 할수 있다.》

추억에 남는 시

조 국

정서촌

노한 불길은 보천보의 시가를 휩쓸고있는데
빨찌산들 한밤에 다시 행군하였네
그리운 땅 울창한 수림속에 자국을 남기며
총을 메고 한결음한결음 멀리 떠나갔네

앞에는 장강 다시 또다시 뒤를 돌아보며
조국의 마지막지점인 산기슭을 내릴 때
길가의 오막집 한채 사립문 열리더니
맨발채로 할머니 한분 길을 막아섰네

한생을 돌처럼 살아온 이 나라의 할머니
대원들을 껴안고 뜨거운 눈물 흘렸네
아니 눈물을 삼키고 해빛과 비바람에 그슬은
대원을 이마에서 굵은 땀방울 씻어주었네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을 걸어왔으랴!
이제 가면 다시 돌아올 그날은 언제이랴!
앞에는 장강 어서 가자 어서 가자 기슭을 치
는데
돌부리에 채이며 할머니는 오솔길을 더듬었네

마치도 바위를 머리에 띄우고 오는듯

할머니는 가쁜숨 쉬며 물 한동이 길어왔네
-내 고향의 물이네 빠근히 이가 시릴걸세
뚝배기에 퍼서 허물없이 대원들에게 권하였네

대원들은 마시었네 동이에 넘치는 차디찬 물을
한모금 한방울도 남기지 않았네
그리고 떠나갔네 어머니땅 마지막기슭에서
모자 벗어 공손히 작별인사 드리고

아 그밤 기약없이 떠나가는 아들딸들을
조국은 이렇게 배웅했나니
마르지 않았더라! 빨찌산들 심장에 젖어든 물은
밀림을 헤쳐 준엄한 세월과 행군을 거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도

세상에 흐르는 장강보다도 대해보다도
한량없이 깊었더라 할머니가 퍼주던 뚝배기의
물은...

(1963)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의 위대성을 노래하는 작품에서는 형상을 격식화하지 말아야 한다. 당의 위대성을 무게있게 보여 준다고 하여 요란한 수식사와 현란한 미사려구를 랍발하면서 정치적인 내용을 직선적으로 노래하거나 사실을 분식하고 공허하게 웨쳐서는 안된다.》

《정치적표현을 쓴다고 하여 형상성이 떨어지는것이 아니지만 꼭 정치적표현을 넣어야만 정치성이 높아지는것은 아니다.》

《당에 대한 송가에서는 자그마한 분식과 과장도 필요없다. 작가는 자기의 주변에서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사변과 인간의 아름다운 소행을 직접 보고 체험한 느낌을 그대로 소박하고 진실하게 엮어야 한다.》

수수한 교탁우에 남포등 하나

심복실

수수한 교탁우에 남포등 하나
광선학교 작은 방엔 고요뿐이여도
그날처럼 울려 오네 메아리쳐 오네
애국의 피가 뛰는 선생님의 반일연설

한줄기 빛 그리워 버선발로 달려와
발뒤축을 고이며 선생님을 우러르던
그날 그 사람들이 여기에 다 모였는가
끝없이 찾아오는 사람들 물결

독립의 지사들 당국의 울분 쏟던
저 교탁에 선생님 나서시여
불심지 둔구시며 멎든 가슴들에
희망의 불길을 지펴주실 때

살아생전 처음 듣는 후련한 말씀
마디마디 힘이 솟고 앞이 보이는 소리
아, 불을 타고 흐르던 고마움의 눈물
지도자를 모신 기쁨의 파도
무릎치며 떨쳐들던 짧은 주먹들

창너머 구월산은 보름달을 환히 이고

가사

피끓는 가슴들엔 애국의 녀 깃들어
어디라고 못 갔으랴 선생님 밝혀주신
그 불 환히 켜고 그 밝은 길을 따라

끝없이 찾아오는 참관자들의 저 행렬
그날 그 사람들만 같아라
구월산 줄기줄기 선생님 자욱따라
반일의 길을 걸어
민족의 태양을 맞이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산 골과 봉이에
광명성 맞이한 기쁨을 새겼고
그 사람들 후손들이 대대손손
위인복을 누려가는 내 조국

수수한 교탁우에 남포등 하나
김형직선생님의 《지원》의 뜻을 새겨주며
광선학교 이 방에서 어언 한세기...
아버이장군님 한분만을 따라
한생 가고갈 내 심장에도
꺼지지 말라 거세찬 불길을 지펴주네

경쟁바람 좋을시구

장광혁

경쟁바람 불어오니 농장벌이 들썩해라
동해라 동봉벌에 농사경쟁 불이 났네
아버이수령님 평생로고 스민 땅을
우리의 장군님 옥토벌로 가꾸셨네
아 노래하세 복받은 동봉벌아
장군님 지펴주신 경쟁바람 좋을시구

경쟁바람 불어오니 농장벌도 춤을 추고
농장마을 처너총각 일손에 불이 났네
앞벌엔 오곡백과 언덕엔 문화주력

신혼살림 새집들이 무릉도원 여기로다
아 노래하세 축복받은 동봉벌아
장군님 지펴주신 경쟁바람 좋을시구

경쟁바람 불어오니 온 나라에 변이 났네
동해곡창 서해곡창 농사경쟁 흥이로세
장군님 가꾸시는 선군의 대지우에
강성대국 황금나락 두둥실 쌓아가세
아 노래하세 축복받은 동봉벌아
장군님 지펴주신 경쟁바람 좋을시구

자기 힘에 대한 확신을 안겨주시며

오늘 우리 천만군민은 새 조국 건설의 첫 기슭에서 우리 로동계급이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건국로선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이끌어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모습을 가슴뜨겁게 그려본다.

조국해방의 기쁨이 강산에 차넘치던 주체 34(1945)년 12월 8일이였다.

이날 청진제강소의 로동자들은 뜻밖에도 자기들의 수수한 일터에서 백두의 녀장군 김정숙어머님을 뵈는 행운을 지니게 되였다.

하지만 백두밀림에서 온갖 고생을 다하신 어머님께 돌아가지 못하는 공장을 보여드리게 된 그들의 마음은 죄스럽기 그지없었다.

사실 일제는 패망하면서 중요설비들을 모조리 파괴하고 기술문진들을 불태워버렸다. 녹아붙은 전기로들과 여기저기 파철처럼 나뒀구는 깨어진 설비들만이 눈에 띄었다.

심히 파괴된 제강소를 돌아보시는 어머님의 가슴은 미여지는듯 아프시였다. 이윽하여 김정숙어머님께서 파괴정형을 하나하나 알아보시고나서 동행한 일군에게 회전로를 복구하자면 무엇이 제일 걸리는가고 물으시였다.

일군은 몹시 난처해하였다. 걸리는것이 너무 많아서 딱히 짚어 무엇이라고 말씀드릴지 갈피를 잡을수 없었던것이다.

잠시후 일군은 지금 철을 생산하자면 제일 문제로 되는것이 일체놈들이 고의적으로 로안에 식혀 붙인것들을 뜯어내는 일이라고 말씀드리였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일을 다그치기 위한 신통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터놓았다.

그의 말을 들으시며 숨죽은 회전로를 한동안 바라보시던 김정숙어머님께서 이렇게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아무것도 없는 지금 형편에서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뿐이라고,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은 아무것도 없는 산중에서 맨주먹으로 폭탄을 만들어 왜놈들을 쳐부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머님께서는 사령관동지의 명령관철을 위해 망치와 줄칼을 가지고 재봉바늘도 만들어낸 항일유격대원들의 자력갱생의 투쟁경험을 감동깊이 들려주시였다.

커다란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시는 어머님의 말씀에 크나큰 고무적힘을 받은 일군이 그에게 립철알갱이들을 보여드리며 우리 나라 원료와 연료를 가자고 생산하는 립철이라고 말씀드렸을 때였다.

그것을 받아드신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우리 나라 원료와 연료를 쓰는 이 회전로는 참 좋은 로라고 하시며 청진제강소는 앞으로 크게 발전할수 있다고 더없이 기쁜 어조로 말씀하시였다.

우리 나라 원료와 연료를 쓰는 회전로!

로동자들의 가슴마다에는 부족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면서 자체의 힘으로 회전로를 복구할 신심이 용솟음쳤다.

헤여지기 아쉬워하는 로동자들을 바라보시며 김정숙어머님께서서는 제강소의 굴뚝에서 연기가 솟는 날이면 힘이 절로 나겠다고, 자신께서는 그날을 기다리겠다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백두산녀장군께서 다녀가신 얼마후 청진제강소의 굴뚝에서는 연기가 솟구쳐올랐다.

어찌 이 제강소만이라. 자력갱생으로 기어이 부강번영하는 시대를 안아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이 분출되는 곳마다에 김정숙어머님의 고귀한 뜻이 어려웠다.

어버이수령님의 건국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 나가신 김정숙어머님의 숭고한 모습은 강성대국 건설에 떨쳐나선 우리 인민을 크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가사

출근길에 만나도 바빠 걷는 그 걸음
정든 기대 다룰 때도 일손 빠른 그 모습
언제나 할일 많아 시간을 아껴사는
그 동문 바쁜 사람 언제나 바쁜 사람

구슬땀 잠시라도 식히고 일하라면
귀중한 한시간에 하루를 잃는다나

바쁜 사람

최 항

말은 일 다 하고도 더 할일 찾아하는
그 동문 바쁜 사람 언제나 바쁜 사람

조국에 자기를 바치는 사람만이
바쁘게 사는 보람 락으로 여긴다네
우리의 참된 삶 이 길에 빛내가는
그 동문 바쁜 사람 언제나 바쁜 사람

《어느 사단 출신인가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 문학작품에서 어느 한 대상을 표현하는데 가장 알맞는 표현은 하나밖에 없다. 수많은 비슷한 표현 가운데서 그 대상에 가장 적절한 하나의 표현을 찾아내는데 작가의 재능이 있다.》

우리 군인들과 인민들이 즐겨부르는 노래 《어느 사단 출신인가요》의 처음제목은 《몇사단 출신인가요》이였다.

어떻게 되어 제목이 고쳐지게 되였는가.

주체89(2000)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신 자리에서 가수들이 새로 나온 이 노래를 불러드리였다.

조국보위는 선군시대 청년들의 신성한 의무이며 영예라는 주제를 생활적으로 형상한 노래로서 가사가 참신하고 곡이 흥그러워 청년들모두의 환영을 받을만한 가요였다.

그런데 노래를 듣고나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노래는 좋은데 가사에서 표현이 잘못되였다고 하시였다. 뜻밖의 지적이였다. 일군들은 가사를 한자한자 곱씹어보았다.

...

처녀들 그에게 물었다네 몇사단 출신인가요
총각은 얼굴만 붉어 아무 말도 할수 없었네

...

병사된 어제날 그 총각은 처녀에게 대답했다네
나도 이제 당당한 근위사단출신이라고

...

아무리 따져보아야 짚이는것이 없었다.

일군들을 둘러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 노래가사에 《몇사단 출신인가요》라는 물음에 《근위사단이야》라고 대답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대답이 못된다고 지적해주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어느 사단인가고 물었다면 《근위사단이야》라고 대답하는것이 옳지만 몇사단인가고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몇사단인가고 물었을 때에는 《5사단이야》라는 식으로 대답하여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일군들은 스스로도 자신들의 좁은 궁냥이 어찌 구니가 없어 허구프게 웃고말았다.

《몇》은 수자를, 《어느》는 대상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그러니 창작가들이 얼마나 단순한 리치를 놓고 심중한 착오를 범했는가. 창작을 지도하는 일군들도 매한가지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여 앞으로 작가들이 노래를 창작할 때 표현을 정확히 쓰는데 주의를 돌려야 하겠다고 말씀하시였다.

복잡다단한 사물현상속에서도 하나의 미세한 착오도 놓치지 않으시는 비범한 영재의 빛나는 안광이 비끼여 그후 노래제목과 가사가 완성되였다.

《어느 사단 출신인가요》로.

한줄 흙

김수철

동무여
우리 답사배낭속에
소중히 간직하자
이 한줄 흙
백두산의 흙을

수령님을 운명의 태양으로 높이 모셔온
투사들의 신념으로 비옥해지고
조국애가 깊이 뿌리내린
이 한줄의 흙에
나의 생명 다 담겨져있는듯싶구나

이 흙에서
나를 길러준 조국이 태어나고

나를 지켜주는 사회주의가
무성한 숲처럼 자라났거니

순간이라도
이 흙을 잃고 산다면
나는 잃게 되리라
내 안겨사는 조국
나를 지켜주는 사회주의

그 무엇을 준대도 바꾸지 않으리
심장속깊이 간직한
오 백두산의 이 한줄 흙
내 신념의 토양이며
내 목숨의 토양이며!



김도환

둥둥둥둥-

산언덕 아름답디 로송이 서있는 쪽에서 북소리가 울리자 술숯과 바위돌과 언덕뒤 후미진 곳들에 매복해있던 의병들이 일제히 말우에 날아올랐다. 하늘이 깨어지는것 같은 《와!》하는 함성을 지르며 들판쪽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마가울이라 땅우에서 덩굴던 락엽들과 잡관목가지에 간신히 매달려 마파람에 떨던 마른 잎사귀들이 말발굽에 뜯겨 휘뿌러져오르고 그 잎사귀들을 꺾며 베이며 창과 칼들이 저녁해빛에 번쩍번쩍 번개를 일으킨다. 금방 맞은켄 고개를 넘어와 기세등등해서 조와 수수그루터기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들판길에 들어서던 왜놈들이 와 뜰 놀라서 하늘이 무너져내리는듯 한 소리를 내지르며 사태처럼 쏟아져내리는 의병들을 멍청히 쳐다보기만 한다.

왜놈대렬 중간에서 뭐라고 돼지며 따는것 같은 소리가 나자 그제야 재정신이 든듯 황황히 조충이며 창이며 칼들을 앞으로 내뻗친다. 둥둥, 둥둥. 또다시 북소리가 울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왜놈들이 금방 넘어온 그 고개길 좌우에서 《와!》하는 함성이 터져올랐다. 왜놈들은 이젠 또 무슨 벼락이냐는듯 눈들이 화등잔만해져서 황급히 뒤를 돌아보는데 그쪽에서도 노한 의병들이 창칼을 휘두르며 파도처럼 덮쳐내린다. 왜놈들은 완전히 혼맹이가 빠지고말았다. 어쩔줄 몰라 갈팡질팡하는 뱀의 몸뚱이같은 왜놈들의 대오를 의병대 기병들이 덮쳐들어 토막토막 잘라내고 좌충우돌하면서 머리를 베고 동가슴을 내찌른다. 악악- 힘을 쓰는 소리, 허공을 찌는 창칼의 휘파람소리, 창과 칼. 창과 창, 칼과 칼이 맞부딪치는 아찔러운 소리, 말들의 호용소리, 단말마적인 비명소리... 저물어가는 가을빛속에 한가하게 누워 졸던 들판은 왜놈들에게 있어서 사시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다.

악을 박박 쓰며 대항을 해보던 왜놈들이 더는

승산이 보이지 않았던지 마침내 불난 풀방구리에 서 뛰쳐난 쥐새끼들처럼 걸음아 날 살려라 줄행랑을 놓기 시작했다.

《저 섬나라오랑캐들을 한놈도 용서치 말라!》

긴칼을 추켜들고 말을 짓쳐몰아 내달리며 찌렁 찌렁 웨쳐대는 정문부의병장의 노한 고함소리...

《기세등등하여 함경도땅에 기여들었던 가등청정놈은 정문부의병대한테 련일 쓰디쓴 참패만을 당하다가 마침내 도망치고야말았는데 서울에 가서 점검해보니 1만명이 거의 되던 군사가 절반으로 줄었다는거요.

후에 함경도의병들의 이 전공을 길이 전하기 위해 〈북관대첩비〉를 세웠는데 그 비문엔 어떻게 써여있는가...》

키는 좀 작지만 머리를 량옆으로 추어올려 금방 솟구쳐오르는듯한 감을 주게 하는 그 대학생은 자기가 직접 그 전투에 참가하기라도 한듯 성수가 나서 전투장면들을 방불히 그려내다가 이번에는 갈썽한 얼굴을 쳐들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울방자를 틀고있더니 옷몸을 좌우로 기울기울하며 옛 선비들이 풍월을 읊듯 한다.

《〈유명 조선국 함남도 임진의병대첩비〉라 ...》

하늘에서는 초가을의 해별이 대지를 지지며 염열을 쏟아붓고있었다. 삼복철도 지나 밤에는 선선한 기운이 돌지만 낮에는 하루빨리 난알들을 익혀내야 하는지라 더더욱 따가워진듯싶은 날씨다. 한중간에라도 들어앉은듯 더운 김이 확확 풍겨오르는 어은동 산중턱의 풀밭에는 김일성종합대학 학생들이 군사훈련의 실참에 모여앉아 역사 이야기를 듣고있었다.

학생모자를 뒤로 제껴쓴 그 청년은 여전히 눈을 감은채 억양까지 맞춰가며 《북관대첩비》의 비문을 외워나갔다. 역사학부 리경진이란 학생이었다.

《... 옛날에 있는 임진란(1592-1598)때 모든 힘을 다해 적을 쳐부시고 세상에 명성을 크게

떨친것으로는 바다싸움에서는 리충무공(리순신)의 한산도싸움이었고 육지싸움에서는 권원수(권 율)의 행주산성싸움과 리월천(리정암)의 연안성싸움으로서... 여러 사람들이 외우며 ...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이 싸움들은 오히려 지위가 있는 장수들이 관군에 의거하여 출동한것이다. 미미한 지위로... 백성들을 묶어세워 거느리고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여 한 방면을 회복한것으로서 관복의 의병이 으뜸이었다...》

《가만, 경진동무. 비문에 정말 그렇게 써여있었던 말이요?》

누구인가 급히 그의 말허리를 끊었다.

남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자기한테 무슨 자그마한 의문이라도 생기면 때에 관계없이 《가만.》하고 말허리를 막 끊곤 해서 《가만북청》으로 통하는 경제학부 박동무였다.

《이 동무가 정말...》

리경진이 화가 나는듯 눈을 번쩍 뜨고 자기 말을 가로챈 《가만북청》을 흘려보았다.

리경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있던 다른 학생들이 《가만북청》을 돌아보며 감정을 깨지 말라고 통을 주었다.

《가만북청》은 무슨 말이냐는듯 주위를 둘러보다가 자기를 타하는 눈길들을 받고서야 주먹으로 제 이마를 톡톡 치며 어쭈게 중얼거렸다.

《내 주의한다, 주의한다 하면서두... 성미란게 참... 그런데... 가만, 거 비문이 사실은 사실이요?》

《또 ... 또 ...》

사람들이 눈을 흘겼지만 《가만북청》은 실수를 했다면서도 역시 머리속에 생긴 의문은 풀어야겠다는 배심이었다.

그 《북관대첩비》는 반세기도 훨씬 이전인 로일전쟁때 왜놈들이 훔쳐갔는데 비문내용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있는가 하는것이였다.

리경진이 마침내 주먹으로 허공을 획 가르며 성을 내고야말았다.

《동문 정말... 이 비문은 <북관대첩비>를 관리하던 사람이 직접 쓴거란 말이요. 쪽발이왜놈들이 <북관대첩비>를 훔쳐가자 그것을 다시 복구하겠다고 한자한자 기억을 되살려 써서 후대들에게 넘겨주었소. 그분은 1400여자나 되는 그 비문을 통채로 암송하고있었다는거요.》

리경진은 우리 나라 력사와 함께 자기의 조상들에 대해서도 환히 꿰들고있었다.

자기의 15대 조부가 바로 정문부의병대에서 열손가락에 들던 명궁이였다고 한다. 11대 조부는 《북관대첩비》를 세울 때 한몫 하였고...

《그런데... 그 <북관대첩비>를 관리하댔다던 사람은 도대체 뭘 했다는거요. 왜놈들이 그런

도적질을 하도록...》

《가만북청》이 주먹을 내흔들며 분개해서 말하자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떠들어대기 시작했다.

《그때에야 왜놈들을 당해낼 힘이 어디 있었겠소.》

《그래도 목숨을 걸고 지켜야지.》

《아니 ... 지키지 못해. 나라까지 통채로 빼앗기는 판에 그런 대첩비가 다 뭘겠소. 나라가 힘이 없었는데...》

《힘이 약하면 다야.》

리경진은 얼굴이 킁킁해져서 주먹을 내흔들며 열을 올리는 동무들을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고있었다.

...

갑자기 승용차의 차내등이 꺼진듯 했다. 속도도 점차 늦추어지는듯 했다. 웬만해서는 느끼지 못할 미세한 속도변화였지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좌석등받이에 몸을 기대신채 상념에 잠겨계시다가 조용히 물으시었다.

《무슨 일이요?》

앞좌석에서 약간 당황해하면서도 안타까와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제라도 좀 쉬셨으면 합니다. 벌써 새벽 다섯시가 다됐습니다.》

장군님의 현지도도를 보좌해드리고있는 라인국이였다.

그는 장군님께서 문건들을 보시다 말씀이 없이 좌석등받이에 기대신채 잠시 눈을 감고계시니 너무 피로하여 쪽잠이라도 드신줄 알았던것 같다.

3,4월은 물론이고 이 5월에 들어와서만도 열흘도 못되는 사이에 여러 인민군부대들과 강원도, 함경남도의 10여개 단위 공장, 기업소들을 현지도하시교 함경북도로 오신 장군님이시였다.

함경북도에 오시여셔도 잠시도 쉬지 못하시교 청진염소목장과 청진수지관공장을 비롯하여 초강도강행군으로 현지도의 길을 이어가고계신다.

장군님께서도 좀 쉬고싶으신 생각이 없지 않으시였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도 아까우시였다.

《불을 켜시오. 속도도 높이고...》

라인국이 몸을 돌리며 안타까이 《장군님!》하고 목메인 소리로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이제 더는 양보할수 없다는 완강한 주장이 력력히 뽕졌다.

장군님께서 절절한 그 눈빛을 마주볼수가 없어 슬며시 차창밖으로 눈길을 보내시였다. 가슴이 찢어졌해오시였다.

장군님께서 이제 라인국이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나오겠는지 다 아신다.

《장군님, 저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존해계실

때 장군님의 건강을 잘 돌봐드릴데 대한 과업을 받았지만 그때로부터 15년이 넘도록 언제 한번 제대로 집행해보지 못했습니다.

전 금수산기념궁전에 갈 때마다 수령님앞에 죄스러워 얼굴을 못돌곤 합니다, 장군님...》

라인국이 이러며 눈물까지 그렇그렇해질 때면 장군님께서는 여간만 난처해하지 않나.

장군님께서는 《보던 문건이나 마저 보고는 휴식합시다. 얼마 안 남았는데...》하고 타협조로 말씀하시며 왼손에 쥔 문건을 약간 들어보이시었다.

라인국은 무슨 말인가 할듯 머뭇거리다가 나직이 한숨을 내쉬었다. 불이 켜졌다.

장군님께서는 라인국에게 미안한 감을 느끼시며 보시던 문건을 계속 번져가시었다.

《북관대첩비》와 관련한 문건이었다. 이 문건을 보시기 시작하자 어느새 《북관대첩비》란 말만 나와도 흥분해서 자신을 건잡지 못해하던 대학시절의 그 리경진이 생각나시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상념에 잠기게 되시었던 장군님이시었다.

《...〈북관대첩비〉는 높이가 약 187센치미터, 너비는 66센치미터, 두께는 13센치미터입니다.

비에는 1 400여자의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북관대첩비〉는 지금까지 일본군국주의 상징인 〈야스구니진자〉 구역안의 황량한 숲속에 내버려져있었습니다...》

문건은 그리 길지 않았다. 또 다음문건...

이윽하여 장군님께서 문건들을 다 보시자 어느새 그것을 알았는지 라인국이 몸을 다시 돌렸다.

장군님께서는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동무가 나때문에 안할 마음고생까지 하는구만. 한번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눈을 좀 붙입니다. 차속도는 늦추지 마시오.》

장군님께서는 등받이에 몸을 실으며 눈을 가버이 감으시었다.

차내등이 꺼지는것 같다. 고르롭게 울리는 발동소리. 가벼운 진동... 여기 사람들이 도로관리를 얼마나 잘했는지 차가 얼마 들추지 않는다.

장군님께서는 잠을 청하시였으나 눈앞에는 다시 잊지 못할 그 군사야영의 풀밭이 떠오르신다.

해별이 지글지글 내려찍던 그날은 실제저리조준훈련을 했었다. 휴식시간이 되자 장군님께서는 리경진을 데리고 평퍼짐한 언덕의 잔디밭에 가시여 나란히 앉으시었다.

파란 잔디밭 한끝에는 연보라빛들국화 대여섯송이가 가을바람에 흐느적이며 그윽한 향기를 풍기고있었다.

《어떻게 된 일이요. 얼굴색이 좋지 않구만.》

장군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시기 만경대혁명학원에 다니실 때부터 리경진을 잘 알고계시었다.

리경진은 고개를 숙인채 잔디밭만 푹푹 꿰으며 대답을 못했다.

《왜, 나한테도 말하지 못할 일이요?》

리경진은 얼핏 고개를 들었다.

장군님께서는 문득 가슴이 찢릿해움을 느끼시었다. 리경진의 두눈에 눈물이 그렇그렇 고여있었기때문이었다.

리경진은 무슨 말인가 할듯 입을 움썹움썹하더니 또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괴롭게 한숨을 내기었다.

《난 솔직히 말해서 동무들을 보기가 부끄럽습니다. 우리 집안은 나라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장군님께서는 놀라시었다.

《그건 또 무슨 말이요? 동무아버지야 김일성장군님의 뜻을 받들고 적구에서 왜놈들과 싸우다 희생된 렬사가 아니요. 42년도에 청진감옥에서 희생되었다고 했던가?》

《아버지는 그렇지만...》

리경진은 무엇인가 주저주저하다가 마침내 결심한듯 침을 꿀꺽 삼키더니 품속에서 유지로 정히 썩것을 꺼내드리었다.

장군님께서는 의아해서 그 유지로 썩것을 천천히 풀어보시었다. 순간 장군님께서는 놀라움을 금할수 없으시었다. 명주천에 또박또박 붓으로 쓴 글은 뜻밖에도 《북관대첩비》 비문이었다.

리경진은 목갈린 소리로 떠들떠들 입을 열었다

《사실 〈북관대첩비〉를 관리하던 사람은 바로 저의 증조할아버지였습니다. 그때 마을에는 좌상로인이 이끄는 무슨 〈계〉가 있었는데 그 〈계〉에서 저의 증조할아버지에게 대첩비를 관리할것을 맡겼던것입니다. 증조할아버지는 어느날 왜놈들 몇이 어슬무렵에 대첩비에 와서 빙빙 돌면서 수군거리는걸 보기는 하였지만 그것을 훔쳐가리라곤까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합니다. 이튿날 아침에 습관대로 대첩비를 돌아보려고 나갔던 증조할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첩비가 온데 간데 없어진것이였습니다.》

너무도 상상밖의 일이어서 처음엔 꿈을 꾸는것 같더랍니다. 막 헤쳐진 돌들과 흩이 짓이겨진 주위를 본 증조할아버지는 너무도 억이 막혀 한참이나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대첩비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였지만 종내 찾지 못했습니다. 산너머에 있는 왜놈들 주둔지에 들어갔다가 죽도록 매만 낚구... 더는 찾을 길이 없게 되자 증조할아버지는 자기의 기억을 더듬어가면서 비문을 적어 할아버지한테 넘겨주고는 서술을 먹고 자결하였습니다. 백주에 대첩비를 도적맞혔으니 어떻게 사람들앞에 머리들고 살수 있겠는가고 하면서... 선친들앞에 죄를 지었다고 하면서...

은 일가가 가슴을 치며 통곡을 했습니다. 할아버지도 그 죄를 씻어보겠다고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찾아다니다가 왜놈들한테 잡혀... 종내 이 비석을 어디로 빼돌렸는지 알아보지도 못하고 왜놈들에게 매맞은 어혈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말았습니다. 정말 원통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으니 어디 가 하소연할데도 없고...》

장군님께서서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분노를 가까스로 억제하시며 비문을 읽고 또 읽어보시다가 천천히 접어 다시 유지로 뽐뽐 싸시었다.

《이 비문을 잘 보관해두시오. 앞으로 원한을 풀 날이 꼭 올것ियो.》

비문을 받아 품에 간수하던 경진이 흐읍- 하고 흐느꼈다.

《그래서 난 자주 〈북관대첩비〉 소리를 하군 합니다. 왜놈들은 대첩비를 그냥 두면 반일감정이 배양될가봐 그게 두려워 도적질해갔겠지만... 그 치졸하고 고약스러운 놈들을 내 입으로라도 만천하에 고발하지 않고서는 건딜수가 없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그의 어깨우에 손을 얹으시었다.

《웁소. 일제의 죄행을 천추만대를 두고 잊지 않게 해야 하오. 그렇게 해서 우리 나라를 다시는 그 어떤 원쑤도 감히 넘보지 못하게 자주강국으로 일떠세우는데 모두가 떨쳐나서게 해야 하오.

〈북관대첩비〉 뿐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강탈해간 그 모든것을 다 찾아와야 하오.》 ...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누구도 《북관대첩비》가 어디에 가 있는지 정확히 몰랐었다.

그런데 그 《북관대첩비》를 이렇게 《야스구니 진자》구역의 황량한 숲속에 내버려두었다니 격분을 금할수가 없으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두주먹을 짝 움켜쥐며 심호흡을 한번 하시었다.

승용차는 여전히 조용히 달리고있었다.

고르로운 발동소리. 가벼운 진동...

눈앞에는 또다시 리경진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우에 겹쳐지는 모습이 있다.

얼굴이 검실검실하고 먹빛으로 쿵 찍어놓은듯 짙은 눈썹과 그 아래 어글어글 빛나는 눈동자, 동조각상처럼 억세보이는 턱, 짹 버그러진 어깨...

인민군중좌다.

장군님께서서는 구분대장인 그의 어깨를 두드리주시며 만족을 표시하시었다.

《싸움준비를 잘해놓았구만. 훈련을 잘했소. 병사들모두가 일당백이요. 구분대 살림살이도 잘 꾸려놓았고...》

너무도 기쁘시여 교양실과 침실, 세목장, 측사, 구분대가 세운 소형발전소를 다 돌아보시며 구분대장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그러다 짐짓 놀라움을 표시하시었다.

《그럼 동무의 아버지가 리경진이란 말이요?》

구분대장은 얼굴을 붉히며 어줍게 웃었다.

《...아버지는 늘 총대가 강해야 한다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북관대첩비〉를 도적맞힌것도 결국은 총대가 약했기때문이라면서 저의 녀동생도 군사복무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만족하시여 그의 어깨를 두드리주시었다.

《아버지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오? 건강하시겠지?》

구분대장은 눈을 내리깔며 송구한 어조로 말슴드렸다.

《아버지는 년로보장을 받고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칠보산에 있는 누이동생네 집에 가 살면서... 여생을...》

《음. 년로보장이라 하긴 이제 70이 되였겠구만. 그때 3학년에서는 나이가 제일 많았댔소.

〈가만북청〉이라고 부르는 북청내기와 동갑이였지. ... 아버지에게 나의 인사를 전해주소.》

《알았습니다.》

감격과 환희에 넘치는 중좌의 힘찬 대답, 그것이 벌써 4년전의 일이다.

장군님께서서는 몸이 약간 앞으로 쏠리는듯 한 감촉에 눈을 뜨시었다.

어느새 차창밖이 환해졌다. 승용차는 내리막길에 들어섰다. 젖빛안개가 자욱히 덮인 골안이 내려다보인다. 아니, 골안이라기보다 그저 안개바다가 눈앞에 펼쳐졌다고 해야 더 정확할것이다. 그 안개바다우로 한참 신록이 짙어가기 시작하는 산봉우리들이 섬들처럼 떠있다.

승용차는 뒤를 번쩍 쳐들고 그 안개바다속으로 자택질해 들어갔다.

앞등을 림시 켜으나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불과 몇미터앞도 가려보기 힘들다.

운전사도 라인국어도 긴장해질대로 긴장해진것이 알린다.

장군님께서서는 차창으로 손을 내저으면 비단필이 끌리듯 안개가 절릴것 같은 박을 내다보시며 사색을 이어가시었다.

일제가 훔쳐갔던 《북관대첩비》를 다시 찾아가 원래의 자리에 원상대로 세워놓았다는 보고를 받으신 장군님께서서는 그 순간 리경진을 생각하시었다.

후에 알아보시니 아닌게아니라 리경진은 이 소식을 들은 날로 림명망에 찾아왔었다고 한다. 《북관대첩비》를 부둥켜안고 어린애처럼 울었다고 한다.

《다음날부터 경진동무는 문화보존처에 나와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년로보장받은 사람인

데 좀 쉬엄쉬엄 일하라고 해도 오히려 보존처 부처장을 할 때보다 더 극성을 부린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자기는 장군님께 죄를 지었다면서...

도의 책임일군인 박호섭이 하는 말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의아함을 금치 못하시였다.

《죄를 짓다니... 그건 무슨 소리입니까?》

《본인의 입에서 어찌다 나온 소리라는데 얼굴을 붉히면서 그 이상은 다른 말을 안한답니다. 보존처사람들은 본인이 가슴아파하기때문에 더 물어보지도 않았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기웃하시였다.

리경진은 문화보존처에서 일하는 기간 왜놈들이 파괴하였던 칠보산의 개심사 만세루를 사진을 보면서 원상대로 훌륭히 복구한것을 비롯하여 온성의 수향루, 경복사를 옛모습 그대로 개건보수하고 경성읍성을 다시 쌓는 등 많은 일을 해놓았다.

그런데 죄라니...

장군님께서서는 이번 길에 그를 꼭 만나보아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속에 응어리진것을 풀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시였다.

문득 저앞에 자그마한 실개울이 나타났다.

봄빛이 완전한 산골짜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맑고 정갈한 시내물이었다. 안개는 한결 걷히었다.

《차를 세우시오. 잠깐 쉬고 갑시다.》

물안개가 굽실대며 피어오르는 내가엔 이 함경북도지방에서는 보기드문 보라빛타래꽃이 활짝 피어 새벽바람에 가벼이 설레이고있었다. 싸늘하고도 향긋하고 청신한 대기가 폐부 가득 안겨든다.

차에서 내리신 장군님께서 개울을 따라 골짜기 쪽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자 세면도구주머니와 세면수건을 랑손에 갈라든 라인국이 황황히 뛰어왔다

《장군님. 이슬에 ... 옷이 젖습니다.》

《일없소. 아침공기가 얼마다 청신하오. 피곤이다 풀리는것 같구만.》

앞뒤차들에서 내린 수원들이 개울가로 달려내려왔다.

장군님께서서는 라인국에게 여기서 세면을 하고 아침식사까지 하고 가자고 이리시였다.

라인국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장군님, 아침식사는 여기 함북도동무들이 온 포휴양소에...》

장군님께서서는 도리머리를 하시며 너그럽게 웃으시였다.

《성의는 고맙지만... 아무것이나 여기서 간단히 요기를 하고 갑시다. 시간을 아껴야겠소. 이번에 김책에도 들러보아야겠소. <북관대첩비>도 가보

고...》

라인국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예? 그럼 일정계획은?...》

《계획은 변동이 없소. 김책에 가볼 시간은 어떻게든 짜내봅시다. 가만, 저기가 좋구만.》

장군님께서 개울 건너 조금 옷쪽의 너럭바위를 가리키시자 라인국은 그쪽을 돌아보고는 아쉬운 어조로 말쑤드린다.

《아직도 날씨가 찬데 어떻게 한지에서...》

《도막불을 피우면 되지 않소. 인국동무는 빨리 세면을 하고 평양과 련계를 가져보시오. 박호섭 동무를 찾아 리경진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될수록이면 이번 길에 만났으면 좋겠는데...》

《알았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라인국에게서 세면도구주머니를 받아드시고 몇걸음 더 옷쪽으로 올라가시였다. 오리나무며 소나무들을 칭칭 휘감고 올라간 머루넝쿨, 다래넝쿨들에서는 지금 한창 애잎들이 돋기 시작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산의 토질과 나무들의 분포정형을 살펴보시며 나지막한 언덕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시였다.

개울가에서는 수원들이 세면들을 하느라 흥성거리고있었다. 저리 신발을 벗고 개울물에 들어서서서 《어, 차다.》, 《에쿠, 시원하다.》라고 연방소리를 질러대며 세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가재를 잡아보겠노라면서 킁킁거리며 돌을 들추는 축들도 있었다.

벌써 세면을 끝내고 마른 나무들을 주어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장군님께서 세면을 하시고 개울가에서 몇걸음 올라오시는데 라인국이 통신자료들을 가져왔다.

장군님께서서는 타올수건을 한쪽 어깨에 걸치신 채 자그마한 돌우에 걸터앉아 통신자료들을 보기 시작하시였다.

《공화국창건 60돐을 맞는 올해를 조국청사에 아로새겨진 력사적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국각지에서 높은 생전적양양을 일으키고있는 소식들이 구체적인 자료에 안반침되어 씌여있었다. 검덕, 황철, 성진...

농사에 모든 력량을 총집중, 총동원할데 대한 당의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들도 진행되고있었다. 공장과 농촌 그 어디서나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 과감히 펼쳐나서고있는 거세찬 숨결이 그 문건의 글줄들에서 안겨왔다. 우리 나라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를 중국측의 요구에 따라 이달 말경에 인민대회당에서 추가공연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도 있었다.

30여년전 세계를 들었다놓은 그 가곡이 지금도 베이징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고있는것이다.

제11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시회 개막과 관련한

문제도 있었다.

다음은...

일본이 미국과 주변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북조선의 핵보유를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했다는 자료들...

장군님께서서는 뽕소를 머금으시었다.

《개는 짚어도 행렬은 간다.》

조미회담락에서 우리 나라 대표가 했다는 말이다.

놈들이 제아무리 소동을 피워도 우리는 눈섭 한오리 까딱 안할것이다. 만일 리성을 잃고 덤벼들기만 한다면... 그때는 그야말로 본때를 보일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강대해졌다. 앞으로는 더욱 강대해질것이다.

바로 그래서 지금도 이 길을 가고있는것이다. 다시는 《북관대첩비》를 강탈당했던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을것이다.

《장군님, 식사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박호섭동무에게도 연락을 했습니다.》

라인국이 앞에 서서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씀드린다.

장군님께서서는 고개를 드시었다. 저 앞 너럭바위 중심에서는 모닥불이 황황 타고르고 수원들이 그 주위에 빙 둘러앉아 음식들을 펼쳐놓고있었다. 음식들이라야 철키밥들과 썸물병들뿐이었다.

《갑시다.》

장군님께서서는 자리를 일으키시었다.

X

깜부기가 가볍게 오르내렸다.

리경진은 긴장해서 낚시대를 꼭 움켜쥐었다. 깜부기는 다시 잠잠해졌다. 물고기가 미끼를 톡톡 건드려보다가 흥미가 없는지 그냥 지나가버린 모양이다. 경진은 랑패한 표정을 지으며 입을 찻찻 다셨다.

(음, 한 서너마리는 더 잡아야겠는데...)

《쩜병!》

마치 경진을 놀리기라도 하듯 저앞에서 고기 뛰노는 소리가 들려왔다. 얼른 바라보니 물안개가 술술 피어오르는 수면으로 동그란 파문만이 퍼져나간다.

조급증을 지그시 누르며 잔잔한 수면으로 퍼져가는 파문을 보느라니 문득 새벽에 있는 일이 떠오른다.

...무한대한 우주공간으로 저런 파문같은 전파파장이 뻑뻑뻑 하고 퍼져나가고있었다. 아니, 전파만이 아니었다.

하늘땅을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이 울린다.

인공지구위성 《광명성 1호》가 솟구쳐오른다. 거세차게 뿜어던지는 불구름, 불구름...

그 불구름을 타고 엄청나게 큰 파장을 그리며

전파가 퍼져나간다. 인공지구위성에서 내보내는 《김일성장군의 노래》, 《김정일장군의 노래》의 장엄한 선율이다.

《여보, 저 아래를 좀 보시라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 쳐다보는걸...》

안해가 가리키는 곳을 내려다보니 그야말로 온 세상 사람들이 올려다보며 손을 흔들어주고있다.

그리고보니 자기와 안해는 온통 꽃으로 꾸민 비행선을 타고 아들네 집으로 나들이를 가는중이다.

《얼마나 좋소. 놈들이 아무리 제재요, 고립압살이요 했어도 우린 쓰러진게 아니라 인공지구위성만 짹짹 쏘아대는 강대국이 되었던 말이요. 정말 장군님만 계시면 우린 언제나 이기는거야. 가만, 이젠 우리 집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아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요? 이젠 아들네 집에 다 왔는데...》

《언제 나들이나 다닐새가 있소? 일을 해야지.》

로친이 섭섭해하는 어조로 푸념하듯 중얼거린다.

《성철이랑 성희랑 기다리겠는데... 당신이야 이젠 년로보장이 아니요. 나이두 70이 다 된데다 건강도 씨원치 않은데...》

로친이 귀여운 손자, 손녀이름을 부르며 아쉬워하자 리경진은 세차게 도리머리를 했다

《량심이 허락치 않아 자, 돌아갑시다.》

《돌아가다니요. 저기 성철이랑 성희랑 대문밖에 나와있는게 안 보이우?》

《그래도 가야 하우. 자, 갑시다.》

《여보!》

《가자는데...》

《여보!》

리경진은 누구인가 어깨를 흔드는 바람에 눈을 떴다. 안해가 의아한 눈길로 내려다보고있다.

《아니. 웬일이시우? 어딜 자꾸 가자는거유?》

경진은 안해를 물끄러미 올려다보다가 그제야 꿈을 꾸었다는것을 알고 허허허 웃었다.

《내가... 꿈을 꾸었구만.》

안해가 혀를 찼다.

《아이들처럼 꿈은 무슨...》

《깡소년을 하느라 그러는거지.》

리경진은 웃으며 몸을 일으켰다.

《좀더 누워계시우. 날이 밝자면 아직 한참 있어야겠쇄다.》

경진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호수엘 좀 나가봐야겠소. 젊은이들이 요즈음 새집들을 짓느라 수고하는데... 마음들이 얼마나 기특하오. 장군님께서 어느때 오셔두 기쁨을 드릴수 있게 마을을 꾸리겠다는거요. 다들 그렇게 뛰는데 ... 정말 하루하루 나이먹는게 안타깝소.

이젠 몸두 말을 잘 듣지 않으니…》

경진은 이러면서 낚시질준비를 주섬주섬 해가치고 호수가로 나왔던것이다.

파문은 잦아들었다. 수면은 마치도 거대한 유리를 펼쳐놓은듯 반듯하다.

(빨리 몇마리 더 잡아야겠는데…)

경진은 희뵤하게 밝아오는 동녘하늘을 초조한 눈길로 쳐다보았다. 마을돌격대원들의 아침식사때 생선국을 대접했으면 좋으련만…

《야, 할아버지. 고기를 또 잡아오셨어요?》

《할아버진 우리 돌격대 수산부대장이예요.》

《할아버지, 일을 더 잘하겠습시다.》

이제 가면 떠들썩할 젊은이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퍼들쩍, 퍼들쩍… 그물중태에 넣어 물에 잠그어 놓은 이미 잡은 물고기들이 빨리 더 잡아내려는듯 요동을 친다.

(가만 있거라. 내 이게 인차 너희 동무들을 더 만들어줄테니…)

바로 그 순간 감부기가 한번 호뿔하더니 단번에 물속으로 쑥 끌려들어갔다.

경진은 얼른 낚시대를 잡아챘다. 낚시대가 대번에 활동처럼 휘면서 묵직한 느낌이 손바닥을 통해 팔뚝으로 울리뵤친다. 짜릿한 쾌감이 전류처럼 온몸으로 줄달음친다.

그놈은 물위로 솟구치며 푸들쩍 요동을 치더니 또다시 낚시줄을 끌고 달아난다.

(큰 놈이구나!)

바로 그때 마을쪽에서 찾는 소리가 났다.

《여보, 령감, 성철이 할아버지!》

(저런 안타까비라구야. 낚시질하는 사람을 큰소리로 찾으면 어떡허누. 하여튼 마침 잘 오는군. 이 령감이 어떤 고기를 낚는가를 어디 좀 보래. 흐흐흐)

리경진은 낚시줄을 당겼다늦추었다하면서 고기의 맥을 뽑았다.

(로친이 다 온 다음에 들어올려야지…)

리경진은 흡족한 웃음을 머금고 로친쪽을 걸는질하며 그가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

《아니, 령감은 무얼 하시우? 찾는데 대답두 안하구. …》 로친이 편잔을 하며 다가오는 그 순간 《앗차!》하고 리경진은 낚시줄을 잡아채서 고기를 끌어올렸다. 팔뚝같은 메기가 새벽빛에 푸들쩍거리며 파릿파릿한 풀숲에 나떨어졌다. 리경진은 어께가 으쓱해졌다.

《령감이 정말 숨쉴구려.》하고 감탄할줄 알았던 로친의 입에선 전혀 뜻밖의 소리가 쏟아져나왔다.

《도에서 간부어른이 왔수다. 장군님께서 … 장군님께서 령감을 찾으신다요.》

《뭐?》

리경진은 메기를 따서 그물중태에 넣다가 와뜰놀라며 허리를 폈다. 서서히 로친을 돌아보았다. 두눈이 젊은이들처럼 번쩍거렸다.

《그게 정말이요?》

《아니, 그런것두 막 말하겠수?》

리경진의 손에서 고기그물중태가 철썩덕 떨어졌다. 불덩이같은것이 가슴에 콕 안겨들며 숨이 꺾 막혔다.

(세상에 … 이런 일도 있는가? 세상에 … 장군님께서 나같은것까지 찾으시다니 … 나같은것까지…)

갑자기 코허리가 쟁해오고 두눈에서 눈물이 핑돌았다.

《왜 그렇게 서있수, 어서 가시지 않구.…》

《그래그래… 빨리 가야지. 여보. 그 고기들은 돌격대젊은이들에게 가져다주요.》

리경진은 허둥거리며 마을로 향했다.

멀리 마을앞산위로 진홍색아침노을이 피어오르고있었다.

X

감격, 환희, 가슴이 터질듯 한 걱정… 이게 정녕 꿈은 아닌가.

장군님께서 차에서 내리시자 주위는 갑자기 눈부시게 밝아진것 같았다.

《장군님!》

《북관대첩비》앞에 박호섭이네와 함께 서있던 경진은 불시에 눈물이 왈칵 솟구쳐 오르는것을 느끼며 허리를 깊숙이 숙였다. 불덩이같이 뜨거운것이 목을 콕 메우며 치받쳤다.

장군님께서 반색을 하시였다.

《이게 경진동무가 아닌가, 응? 잘 있었소?》

《장군님. 건강하십니까? 리경진이 이제야… 장군님께 문안인사를…》

리경진은 목이 메여 더 말을 못잇고 울먹거렸다. 또다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정말 반갑소. 이제 얼마만이요?》

《장군님, 벌써 40여년이 되었습시다.》

《빠르구만. 〈북관대첩비〉를 두고 열번을 토하던게 엇그제같은데 … 그래 건강은 좀 어떻소?》

《이젠 한결 나아졌습니다. 저는 점점 젊어지고 건강해지고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구만. 언제인가 동무의 아들을 만났적이 있었는데 일을 잘하고있었소. 병사들을 모두 펴벌나는 싸움군들로 키우고 살림살이도 잘 꾸려놓고… 아주 만족했댔소. 그때 동무가 년로보장을 받고 온천료양소에 가있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지금은 문화보존처에 다시 나온다면서?》

리경진은 또다시 가슴이 찡해움을 느끼며 고개를 수그렸다.

《장군님, 죄송합니다. 전 별루 하는 일도 없습니다.》

키가 후리후리한 박호섭이 한결을 나섰다.

《장군님, 경진동무는 이 〈북관대첩비〉를 가져다세운 다음날부터 문화보존처에 다시 나와 참관자들에게 대첩비내용도 해설해주고 자기 증조할아버지 이야기도 해주면서 하루도 번짐이 없이 만근을 하고있습니다. 잠만 있으면 물고기를 잡아 마을을 꾸리는 청년들을 고무해주시기도 하고... 이 비각도 경진동무가 지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두손을 허리에 얹으시고 비각을 바라보시며 고개를 끄덕이시었다.

《잘 지었구만. 수고했소. 동무네 선친들도 기뻐할게요. 난 동무가 응당 그러리라고 믿었소.》

《장군님!》

경진은 자꾸만 목이 메어올라 제대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었다. 장군님을 우러를수록 텔레비존으로 뵈올때보다 더 수척해지셨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여지는듯 했다.

장군님께서는 천천히 《북관대첩비》앞으로 다가가시었다.

《...재석 임진지란 기력전파적 웅명일세자...

옛날 임진란때 힘껏 싸워 적을 짓부시고 한세상에 대단한 명성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고한문을 번역해읽으시다가 리경진을 돌아보시었다.

《이 비문을 읽느라니 그때 경진동무가 기지고다니던 그 글이 생각나는구만. 증조할아버지가 남겼다는 그 비문말이요. 그게 아직 있겠지?》

《예, 아직 보관하고있습니다.》

《동무네 가정은 대대로 애국심이 높은 훌륭한 가정이요. 아들, 딸 다 군대복무시켰는지?》

《그렇습니다.》

《애국의 전통을 잊지 말아야 하오. 동무네 증조할아버지가 저 고한문 1400여자를 다 암송하고있었다는것이 얼마나 훌륭한하오. 그런 증조할아버지가 〈북관대첩비〉를 왜놈들이 훔쳐갔을 때 얼마나 가슴을 찢겠소. 이제 증조할아버지도 한이 풀렸을게요.》

《장군님!》

목메여 부르는 리경진의 눈가에 또다시 핑그르물기가 고여올랐다.

《장군님, 저야말로 선친들을 볼 면목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아직도 늘 이렇게 강행군을 하시는데... 저는 몸이 좀 불편하다고 집에 들어가 료양치료나 다니면서 여생을 보내려 했었으니...

전 사실... 이렇게 〈북관대첩〉비가 여기 립명

땅에 다시 세워진 그날 이 비를 그리안고 울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군의 승리로구나. ... 나라가 강해지니 너도 이 땅에 다시 오게 되었구나 하면서...

어제날엔 인공지능위성이 날아오르구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 잠을 못 잤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북관대첩비〉까지 다시 찾아왔구나 하고...

장군님, 정말 고맙습니다.》

《나라가 이처럼 강대해진건 동무네들이, 우리 인민들이 떨쳐일어났기때문이요. 우리 인민은 마음만 먹고 일떠서면 못해낼 일이 없는 인민이요.

경진동무도 나이가 많지만 이렇게 또다시 일손을 잡지 않았소. 조금이라도 나라에 보탬을 주겠다고 ...》

《장군님, 저는. 저는...》

경진은 채머리를 흔들며 눈물을 펄펄 쏟았다.

그러는 경진을 한동안 바라보시던 장군님께서는 다시 돌아서시어 비문을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고 나서 힘주어 말씀하시었다.

《이 〈북관대첩비〉를 일제의 죄행을 세상에 고발하는 력사의 증견자로, 우리 인민의 반일애국정신과 억센 기상, 불굴의 투쟁정신을 보여주는 승전비로 영원히 잘 보존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북관대첩비〉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당이 제일이고 우리 민족이 제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호섭이며 옆에 서있던 일군들이 힘있게 대답을 드렸다.

장군님께서는 수원들을 돌아보며 말씀을 이으시었다.

《이런 〈북관대첩비〉를 비롯한 력사유물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우리 인민들이 반일 애국정신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지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라인국이기도 수원들과 함께 가슴 그들먹이 차오르는 걱정을 느끼며 어깨들을 쭉 폈다.

《장군님, 명심하겠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립명마을쪽으로 돌아서시었다. 멀리 풍차가 바라보였다. 바람이 세찬 곳이어서 풍력발전소를 건설한 모양이었다.

장군님께서는 바람을 받아 기세차게 돌아가는 풍차들을 이윽도록 바라보시다가 함경북도책임일군들을 가까이 부르시었다.

《이번에 함북도를 돌아보니 지난해 8월 내가 여기 왔다간 다음 1년도 못되는 사이에 많은 일들을 해놓았소. 주요공업부문과 농촌건설, 국토관리 ... 어느 부문이나 소리치면서 일떠서는게 알리오.

염소목장, 수지관공장, 길주농장... 수산사업소... 앞이 환히 보이오.

중요한것은 ...》

장군님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사랑하는 전사들을 둘러보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여기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강성대국건설에 어떻게 하나 기여를 하겠다는 높은 애국심을 가지고 한사람같이 일떠선것ियो. 그 애국심이면 못해낼 일이 없소. 나는 금속, 기계, 채취공업을 비롯한 기초공업이 많고 나라의 경제발전에서 큰 몫을 맡고있는 도가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선군혁명총진군에서 언제나 선구자적역할을 수행하리라 믿습니다.》

《장군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도 책임일군들의 신심에 넘친 대답소리가 찌렁찌렁 울렸다.

장군님께서는 왼손을 들어 믿음을 표시하고는 발걸음을 옮기시였다.

5월이라 하기에는 찬기운이 느껴지는 바람이 그이의 옷자락을 훑날리였다.

아까부터 뭔가 이야기할듯말듯 머뭇거리던 박호섭이 라인국의 옷자락을 잡아끌었다. 그와 몇마디 수군거리던 라인국이 황황히 달려왔다.

《장군님, 점심은 여기 동무들이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이곳 동무들이 장군님께서 초강도강행군으로 함북도에 대한 현지도도를 마치시었는데 떠나시기 전에 점심이라도 함께 드셨으면 해서...》

장군님께서는 웃으시며 고개를 저으시였다

《우리의 강행군이야 아직 끝나지 않았지. 성의는 고맙지만 식사는 가는 길에 합시다. 오후 일정이 좀 긴장하오.》

라인국이 고개를 기웃거리며 아쉬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오늘 일정은 끝나지 않았습니까.》하는 눈빛이였다. 그럴수도 있었다. 것처럼 시간과 분을 쪼개가면서 짜놓은 일정을 함경북도를 현지도도하시는 기간 순전히 휴식시간만 바쳐서 한것을 얻으신 장군님이시였다. 원래 이 《북관대첩비》는 15분동안 보실것으로 되어있었는데 30분이나 머무르셨다. 리경진의 일이 것처럼 기쁘시었던것이다. 사랑하는 전사들을 만나시여서는 헤어지기 힘들시여 시간을 지체하시고 또 다른 전사들을 만나러 가실 때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을 통채로 바쳐 지체하신 시간을 보충하시고 일정을 앞당기시는 장군님이시였다.

리경진이 울먹울먹하면서 말씀드렸다.

《장군님,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모처럼 오셨는데 ...》

장군님께서는 주춤 서시며 그를 돌아보시였다.

《그렇지, 모처럼 왔었는데 그냥 가서야 안되지. 경진동무와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사진이나 한장 찍읍시다. 저 〈북관대첩비〉 앞에서...》

장군님께서는 밝게 웃으시며 리경진과 나란히 사진을 찍으시였다.

리경진이 마침내 혁- 하고 흐느낌소리를 냈다.

《장군님께서는 그저 우리 전사들만 생각해주시고 ... 자신께선 ...》

장군님, 끼니도 제때에 드시고 휴식도 제때에 하셔야...》

《고맙소. 난 이렇게 리동무같은 애국자들을 만나는것이 곧 휴식이고 기쁨이요.》

리경진은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애처럼 장군님의 팔을 꼭 잡았다.

《장군님!

전 사실 ... 사실 전 ... 장군님께 죄를 ... 장군님께서는 언제 한번 쉬지 못하고 불철주야 강행군을 하고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나라를 강국으로 일떠세우시고 이 〈북관대첩비〉까지 찾아 다대대로 땀흘려오던 한가지 다 풀어주셨는데 전 오히려 몸이 좀 어떻다구 편히 쉬면서... 여생을 소일거리나 잡고 보내려 했으니... 정말 죄스러웁습니다. 더구나 오늘 이렇게 수척해지신 장군님을 뵈고보니 이 가슴이 막...》

경진은 울었다. 어깨를 떨며 눈물을 쏟았다.

장군님께서는 경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약간 갈린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내 동무에 대해 다 알아보았소. 그건 죄가 아니요. 년로보장을 받고 료양치료를 받는건 공민의 신성한 권리이고 사회주의의 혜택이요. 내가 더더욱 여기로 온건 동무의 그 마음을 풀어주자는데도 목적이 있었소. 동무는 우리 인민들의 애국심을 키워주는 사업에 한생을 고스란히 바쳐온 성실한 애국자요. 다시말하지만 동무네 가정은 애국의 가정이요.》

《장군님!

경진은 끝내 장군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야말았다. 눈물이 걸잡을수없이 쏟아져내렸다.

장군님께서는 경진의 들먹이는 어깨를 어루쓰다듬으며 말씀하시였다.

《자, 이제 헤어집시다. 참, 내 미처 알려주지 못했구만. 대학때의 그 〈가만북청〉 있지 않소. 그가 아직 군수공장지배인을 하는데 이젠 〈나가자북청〉으로 소문났소. 허허허, 우리 당의 선군정치를 믿음직하게 받들어나가고있지. 기다리고 있을거요. 빨리 가서 축하도 해주고 도와도 주고...위탈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소. 자,그럼 ...》

장군님께서는 다시한번 경진을 포옹하시고나서 차에 오르시였다.

X

봄밤의 초생달이 누리에 은은한 빛을 쏟아붓고 있었다.

《여보, 이제 내려가지 않겠수?》

이윽도록 《북관대첩비》를 쓸어보고 또 쓸어보며 자리를 뜨지 못하는 리경진을 쳐다보던 안해가 조심스레 권하는 말이다.

《먼저 내려가요.》

《이젠 밤도 깊었는데... 래일 떠날 준비도 해야 하지 않수.》

《내려가도 잠들것 같지 못해서 그러오. 글썄 우리를 애국의 가정으로 내세워주시다니, 이 대첩 비를 찾는데 아무런 보람도 못한 우리 가정을... 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아니었다면 이 대첩비가 어렵이나 있겠소. 장군님이시야말로 애국자중의 애국자이시오. 장군님의 선군정치가말로 애국중의 애국이고...》

안해는 눈을 습벅이며 웃고름을 눈가에 가져간다.

《이 대첩비엔 정문부의병대의 애국적장거가 새겨져있소. 하다면 우리 장군님의 이 헌신의 선군업적은 무슨 비를 세워 칭송해야겠소?》

아니, 아니야 이 땅이 그대로 기념비라고 해야 돼. 강성대국건설대전적의 〈승전비〉! 그래, 그래.

〈승전비〉이구말구. 이 땅우에 마련되는 그 모든 전변들은 〈승전비〉에 새겨지는 한글자한글자 비문이구... 그러니 이 〈북관대첩비〉도 그 술한 비문글자들중의 하나라고 할수 있지. 한개의 점이라 할수도 있고...》

리경진이 감격에 젖어 속삭이던 그무렵.

위대한 장군님께서 타신 승용차는 한 군수공장의 정문을 막 나서다가 다시 멎었다. 차창문을 내리우고 누구인가 손짓해부르시었다.

《나가자복청》이 달려왔다.

《지배인, 래일 료양소에 도착하면 도착했다는 보고를 나한테 직접 하시오. 거기 가면 옛 동창

생을 만나게 될게요. 그럼 잘 있소.》

장군님께서서는 차창을 올리시었다. 울먹거리는 지배인을 두고 차는 떠났다. 료양소에는 리경진이 가있을것이다. 박호섭에게 그렇게 지시하시었다.

《장군님께서서는... 전사들의 건강에 대해서는 그리도 마음쓰시면서... 오늘 밤만이라도 휴식을 하시면 안되겠습니까?》

라인국이 안타까이 여쭙는 말씀이다.

《휴식은 가면서 합시다. 난 그게 오히려 편안하오. 자, 어서. 초소의 전사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소.》

《장군님!》

《어서 갑시다. 2012년이 앞에 있지 않소.》

순간 라인국은 무엇인가 가슴을 쿵 하고 치는 것을 느꼈다. 2012년, 수령님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

위대한 장군님께서 내 조국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기어이 달으시려는 2012년이다.

문득 장군님께서 대학시절에 친히 지으시고 읊으신 시가 쿵쿵 흥벽을 복처럼 두드린다.

...

아, 세계가 부러워 너만을 바라보게

내 너를 더 높이 안아올리리

조선아, 조선아!

너는 나의것

나는 너의것

승용차는 전속으로 최전연을 향해 내달린다. 장군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온 나라 천만군민이 산악처럼 떨쳐일어나 와와 소리치며 폭풍처럼 내달린다. 그것은 환영이 아니었다.

라인국은 눈을 습벅거리면서 가슴뼉듯하게 그 장쾌한 흐름을 분명히 보고있었다. 21세기의 자랑스런 《승전비》를...

상식

숲과 건강

자기가 사는 집으로부터 반경 1km범위에 숲이 있으면 주요질병들의 발병률이 낮으며 이런 현상은 특히 중년기이후의 사람들속에서 뚜렷이 나타난다고 한다.

어느 한 나라에서 35만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거주지와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집으로부터 반경 1km범위에 숲이 있는 대상자들속에서 우울증과 심장병, 전염병과 같은 주요질병들중 절반이상에 달하는 질병들의 발병률이 낮다는것을 밝혀냈다. 집으로부터 반경 3km범위에 숲이 있는 대상자들인 경우 불만증과 소화기염증 등의 예방효

과만이 나타났다.

이것은 창밖으로 숲이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는것을 보여준다. 집근처에 있는 숲에 의한 발병률저하효과는 중년기이후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런 환경에서 사는 12살미만의 어린이들에게는 우울증발생률이 21% 낮았다.

전문가들은 《록색지역에서 살면 질병발생률을 낮추고 정신장애틀을 없애는 효과를 얻을수 있다. 록색공간이 인체건강의 오아시스라는 사실이 다시한번 입증되었다.》고 말하고있다.

《이민위천》리념의 숭고한 계승과 불멸의 화폭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기념 단편소설집 (I) 《맑은 물소리》를 읽고-

권선철

《어쩌면 그리도 꼭 같으실까!》

단편소설집 《맑은 물소리》의 마지막장을 덮으며 저도 모르게 뇌이는 말이다.

책은 덮었으나 금은천의 맑은 물소리는 크게 들려오고 소결로결에 활짝 핀 아카시아꽃은 그윽한 향기를 풍기며 무한한 격동과 환희의 선물을 장엄한 대교향곡으로 울려오고있다.

소설집의 한페이지한페이지는 그대로 어버이수령님의 높이신 뜻을 받들어 조국청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장군님의 력사의 자취로 빛나고있으며 한자한자의 글줄은 그대로 만민칭송의 송가로 빛나게 아로새겨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적셔준다.

사상과 령도, 품모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꼭 같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높이 우러르며 우리는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이룩해왔고 《조선시간》이라는 눈부신 속도를 창조해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이 해내고야마합니다. 그는 특히 내가 바라고 걱정하는 문제들을 풀고 나에게 기쁨을 주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있습니다.》

만민의 다함없는 존경과 신뢰를 받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시고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기 위하여 바치고바치신 헌신의 낮과 밤이 글줄이 되었고 그 길에서 만나주신 각계층 인민들이 그대로 살아숨쉬는 인물로 등장하며 남기신 사랑과 가슴뜨거운 일화가 형상의 단층이 되어 소설로 엮어지고 책으로 묶여졌다.

갈피갈피에 우리 장군님의 사상과 뜻이 흐르고 장군님의 덕망과 후더운 인정이 스며배어 가슴가슴을 뜨겁게 적셔주는 단편소설집의 한페이지한페이지를 심장으로 번지는 마음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음성이런듯, 우리 장군님의 모습이런듯 헌신의 로정우에 오직 한분의 모습으로 눈부신 위인의 빛발을 새겨안으며 ...

X

군대와 인민의 마음속에 위인칭송의 또 하나의 성과작들로 솟아 빛나는 단편소설집 《맑은 물소

리》.

여기에 실린 소설들은 위인의 불멸할 력사적대 구간이 작가의 깨끗한 량심과 재능으로 다듬어져 빛을 뿌리는 보석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그 하나하나의 보석을 한줄에 꿰여 감아올린 기둥은 과연 무엇인가. 바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형상한 단편소설들에 한결같이 깔려있는 사상정서적바탕은 이를 남김없이 실증해준다.

위대한 수령님의 념원을 꽃피우고 수령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자신의 사업과 실천의 절대적기준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형상을 통하여 이 세상 그 어느 령도자도 지닐수 없었던 사상리론적예지와 비범한 령도력, 고매한 덕성을 지니신 위인상을 뚜렷이 부각시키고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충실성은 우선 위대한 수령님의 안녕을 보장해드리는 사업을 맨 첫자리에 놓으시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단편소설 《고요》(리종렬 작)에서는 현지지도의 길에서 쌓이신 어버이수령님의 피로를 풀어드리기 위해 외진 산골역에 열차를 멈춰세우도록 하시고 옹근 하루밤을 수령님의 안녕을 위하여 지새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매한 품모를 감명깊게 형상하고있다.

길은 산골에 있으나마나하던 간이역인 만곡역이 긴장한 수송문제를 풀기 위한 대책으로써 《축소》당하게 된 일을 두고 인민에 대한 관점문제로 심각히 분석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는 점차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정의 세계로 부각된다.

한평생을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쳐오신 어버이수령님이시여서 이런 간이역에 특별열차가 목계 된 사연을 그토록 가슴아파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다. 하기에 우리 장군님께서 절절히 말씀하신다.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을 잘살게 하려고 한생을 바쳐오십니다. 이번에 현지지도에서도 수령님께서서는 인민들을 잘살게 하기 위해 그르쳐진 일들을 바로잡느라고 그토록 피로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 올해 년세가 얼마이십니까.》

만곡역에 깃들었던 《고요》는 인민에 대한 헌

신적복무정신으로 아버지수령님의 안녕을 지켜드려야 한다는 심원한 사상의 《폭풍》으로 뜨겁게 열려있다.

시험비행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평범한 이야기를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서 타고가실 비행기의 안전한 항로, 고요한 하늘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열어놓으신다는 종자를 힘있게 천명한 단편소설 《고요한 하늘》(김영길 작)은 얼마나 우리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는가.

원래 시험비행이란 어떤 형태의 비행기든 구름 한점없이 맑은 하늘에서 하는것이 통례로 되고있었다. 그래서 비행사들이 시험비행을 위해 날씨를 《고르》는것이 불변의 법칙임을 운운할 때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천번중 한번, 만번중의 한번의 일까지 생각하여 아버지수령님을 모실 비행기의 시험비행은 가장 불리하고 복잡한 기상조건에서 하여야 한다는 독창적인 견해를 내놓으신다. 하여 시험비행의 의미는 단순히 비행기의 기술성능을 검열하는 실무적문제가 아니라 하늘의 근위병의 자세와 립장문제로 승화된다.

시험비행을 앞두고 비행기에서 내려주실것을 절절히 아뢰는 아니, 강경하게 청하는 책임비행사에게 우리의 장군님께서서는 얼마나 절절히 호소하시었던가.

《책임비행사동무! 한전호에 친근한 전우가 서있다고 생각하시오. 나도 무슨 도움을 줄지 알겠습니까? 서로 의지하면 좋지요...》

아버지수령님의 안녕을 지키는 길에선 언제나 전사가 되시여 근위병의 《전우》로 서시겠다고 하신 우리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상이 불멸의 군상으로 거연히 솟아오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고계시는 숭고한 모습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시는 길에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는데서 감명깊게 형상되고있다.

단편소설 《충성의 자욱》(림재성 작)은 회령을 가까이 하시면서 어머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의 대하를 헤가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길은 심중의 세계를 펼쳐다가 아버지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토록 가고싶은 어머님의 고향땅을 그냥 지나가시는 극적인 장면을 그려보고있다. 오로지 아버지수령님만을 생각하셨던 충정의 길우에 어머님께서 찍으신 자욱자욱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지도 자욱자욱으로 영원함을 숭고한 계승의 의미로 해명하고있다.

량강도지구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노래한 단편소설 《고향길》(김병훈 작)은 백두산에 주체의 혈통을 이어놓을 때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이 있다는 진리를 힘있게 확증한 작품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품모는 또한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고 바라시는 일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오실 정성을 뜨겁게 기울이시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바라시는 일, 의도하시는 일은 하나에서 열까지 모두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하여 우리 장군님의 사색과 실천은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기 위한 심원한 사색과 불멸의 로고로 이어지며 끝없는 전설을 낳는것이다.

단편소설들인 《맑은 물소리》(석운기 작), 《아카시아꽃 필무렵》(최학수 작), 《조선시간》(성혜랑 작) 등에서는 아버지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철석의 신념과 의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보고있다.

단편소설 《맑은 물소리》는 광산에서 골치거리로 된 버력처리문제를 둘러싸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광산일군들의 모대감을 펼쳐보고있다.

이렇다할 방도도 없이 버력처리문제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때 광산에 찾아오신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광산에서 걸리고있는 문제를 료해하시다가 문득 금은천물줄기가 흐려지고있다는 사실을 포착하신다.

《만일 동무들이 이 절경속에서 쇠돌을 더 많이 캐낼뿐아니라 아름다운 산천을 더 아름답게 가꾸어나가고 금은천흐름에 물고기떼까지 옥실거리게 만든다면 수령님께 얼마나 큰 기쁨을 드리겠습니까.》

매일 매 시각 마주하고있으면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기 고장의 수려함을 통해 더욱 멋지게 가꾸어야 할 조국의 앞날을 그려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말씀이었다. 쇠돌도 사람을 위해 필요하고 산천의 아름다움도 인민을 위해 필요하다.

한평생 좌우명으로 삼아오신 아버지수령님의 이 평생의 념원을 일군들에게 깨우쳐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천재적예지의 빛발속에서 산천을 어지럽히던 분광이 인민의 살림을 보태줄 보물로 솟아나게 된다. 이는 산천도 사람도 위대한 수령님의 뜻대로 변모되도록 크나큰 심혈을 기울여오신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에 있어서 자그마한 세부와도 같다. 언뜻 스쳐가는 바람결처럼 너무나 레사롭고 범상한 이야기라고 해야 할것이다.

단편소설 《조선시간》은 오늘의 대고조시간, 새로운 대고조의 열풍으로 굽이치는듯 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기신 문건의 글자획 하나, 구두점의 간격에서조차 수령님의 심중을 헤아리시는 절대적인 충실성을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기에 과학에서의 《절대적기준》을 돌파할

대담한 심장을 안겨주신다.

《...주체사상을 지지점으로 가지고 거기에 무한한 충성과 과학기술의 지레대를 걸어놓은 지레의 원리》만 있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을 지니고계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령도가 로동당시대를 특징짓는 조선시간을 낳았음을 소설에서는 구체적인 형상을 통하여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단편소설 《아카시아꽃 필무렵》은 인간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인간을 위한 일에 그 무엇도 아껴서는 안된다는 사람중심의 철학적세계관을 어느 한 제철소의 자동화실현과정을 통하여 무게있게 밝힌 작품이다.

자기 아버지가 일하는 직장근처에 무슨 나무가 있었던지도 또 그것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지낸 엄철진에게 있어서 소결로주변에서 숨죽여가는 아카시아나무를 보시고 로동자들의 건강을 심려하시는 아버지사랑은 얼마나 가슴뜨거움을 자아내는가. 아버지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엄청난 투자를 요구하는 기업소자동화를 주저없이 내밀도록 하여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속에서 새봄을 맞으며 움터난 아카시아나무는 그대로 사람중심의 세계관을 지니고 새로이 태어난 일군들의 모습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위대한 품모는 이와 함께 모든 일을 아버지수령님식대로 해나가는 데서 더욱 전면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우리 수령님은 한평생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인민을 믿고 그의 힘에 의거하여 풀어나가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단편소설 《무쇠들보》(백보흠 작)와 《위대한 구상》(김보행 작)에서는 바로 아버지수령님의 평생의 좌우명을 정치의 기초로, 초석으로 삼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온 나라를 기적과 혁신으로 불러일으키신 비결을 믿음과 사랑의 철학으로 감명깊게 해명하고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지니신 뜨거운 인간애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형상은 단편소설 《세대의 자취》(백남룡 작), 단편소설 《손길》(박현 작), 단편소설 《진달래》(신진순 작), 단편소설 《안으신 래일》(백현우 작)에서도 감명깊게 펼쳐지고 있다.

단편소설 《안으신 래일》은 한 일군의 자식을 두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위인상을 감동깊은 형상으로 보여주고있다.

이름없는 한 일군을 아들과 만나게 해주시려고 긴장한 현지지도의 분과 초를 짜내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슴뜨거운 사랑은 조국의 미래를 떠들고나갈 주인공들을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의 대를 이어갈 앞날의 주인공들로 크게 떠올리며 그 믿음과 숭고한 사랑속에 그들의 영원한 래일이 빛나고있음을 감지높이 천명해준다.

단편소설 《손길》을 보자.

어머니당의 따뜻한 손길, 믿음의 손길이 있어 아름답고 숭고한 인간들이 새롭게 탄생함을 밝힌 소설은 그 형상이 생동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속에 깊은 여운을 남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사랑은 단편소설 《노래여 울려가라》(한익훈 작)에서도 메아리로 크게 공명되어 울린다.

이처럼 단편소설집 《맑은 물소리》에 오른 모든 작품들은 한평생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력사를 수놓아가신 아버지수령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무게있는 형상으로 잘 보여주고있다.

아버지수령님의 사상과 뜻을 그대로 이으시고 수령님께서 타고가신 《인민행렬차》를 씩없이 떠밀어가시며 수령님과 혈연의 관계를 맺은 군대와 인민들을 가장 뜨겁고 순결한 사랑과 믿음으로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위인적품격은 수령의 혁명위업과 령도업적에 대한 참다운 계승의 견지에서 숭엄한 화폭으로 펼쳐지고있다.

소설집 《맑은 물소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함에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로서의 위대한 풍격과 혁명과 건설의 령도자,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로서의 숭고한 풍격을 진실하고 구체적인 생활, 기쁨지고 특색있는 형상수단과 수법들을 적극 활용하여 보여 주었다.

우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니신 철학적예지의 비범성을 잘 보여주었다.

단편소설 《산촌의 밤이야기》(김홍무 작)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산골학교의 어린 학생의 국어학습장 뒤장들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시며 보고듣는것이 제한되어있는 마을에서 아이들의 희망과 포부가 심히 제약당하고있음을 간파하시고 아이들의 포부이자 조국의 포부이고 아이들의 희망이자 우리 조국의 희망이라고 이르시며 아이들에게 미래를 안겨주시는 이야기이다.

단편소설 《맑은 물소리》에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금은천하구에 분광을 먹고도 남을만한 현대적인 대회전로를 건설하여 버림받던 버력을 인민의 재보로 만드실 계획을 하심은 찬란한 예지의 빛발이 없이는 상상도 못할 일인것이다.

단편소설집 《맑은 물소리》에 수록된 모든 단편소설들이 수령형상작품으로서의 고유한 생리를 잘 살려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오한 내면심리에 대한 묘사를 깊이있고 격이 있게 펴나간것 또한 특징적이다.

하나의 문제를 놓고도 사색하고 또 사색하며 실천하는 수령의 풍부하고도 심오한 내부적체험 세계를 깊이 펼치지 않고서는 수령의 위대한 인간적풍모를 생동하게 드러내기 어렵다.

단편소설 《탄생》(엄단웅 작)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허진수라는 음악가의 천성적소질을 대견하게 여기시며 그가 남의것을 쳐다보던 예술지상주의, 형식주의를 극복하고 인민이 좋아하는 명곡을 창작하도록 이끌어주시는 이야기이다.

소설에서 모진 진통을 이겨내며 창작한 곡 하나를 보다 더 좋게 완성시켜 인민앞에 그를 땀땀이 내세워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심원한 사색은 깊이를 모르는 대하로 굽이친다.

《그이께서는 그 어떤 사색의 실마리를 잡으시려는듯 조용히 걸음을 옮기시였다.

…수난당하고 억압받던 우리 인민들의 눈물겨운 지난날의 깊은 슬픔과 항거의 정신이 선물속에서 안배되어 흐른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손길따라 그 수난의 언덕우에 광명의 빛발이 흐르고 록음이 짙은 산과 들에 새들이 우짖는다.

인민들은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의 시대를 노래하며 강물처럼 거대한 대해, 당의 품으로 굽이쳐 흘러들고있다. … 망망한 대해는 끝이 없고 찬란한 태양의 빛발속에 서서히 출렁인다. …

그이께서는 또다시 그 작품을 감상하시였다.》

평범한 한 인간의 자그마한 싹을 애지중지 아끼고 품어안아주는 이러한 따스한 요람이 있어 온 세상에 그의 음악은 탄생을 선포할수 있었다.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한 인간의 새로운 갱신이였고 그의 정신육체적생명전체의 우렁차고 환희로운 탄생이였다.

단편소설 《푸른 숲》(량호신 작)은 급전비약의 수법을 능란하게 활용하고있다.

미제의 우두머리 포드의 복침전쟁열로 정세가 한껏 긴장되었던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을 만나 뵈은 인민군지휘위원의 한사람인 김전무는 인민군전사들모두가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당장에 펼쳐들어날 준비가 되었음을 보고드린다. 인민군대의 전반적실태에 대하여 물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필경 지축을 울릴 전투명령을 하달하실것으로 생각하는 김전무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놈들의 무분별한 《보복》책동을 가볍게 밀어놓으신다.

《포드가 요즈음 신경과민증에라도 걸린것 같소.》 그러시고는 녀성군인들이 있는 산중의 초소를 찾으시여 조국수호의 믿음직한 초병들로 자라나는 그들을 고무격려해주시다.

긴박한 정황의 제시로부터 우리의 후대들을 믿음직하게 키우시기 위해 마음쓰시는 위인의 심중의 세계로 육박하여 들어간 소설은 혁명의 푸르싱싱한 《숲》을 품어가꾸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단편소설 《맑게 개인 가을날에》(김정 작)에서는 한 로인이 30년세월 고이 간직해둔 다람이박제품에 깃든 일화를 통하여 수십년세월 산림감독원으로 일하면서 박제품을 정성껏 만들어 온 나라 곳곳의 학교들에 보내준 그의 아름답고 고결한 정신미를 생동한 화폭으로 재현하고있으며 그에게 우리 수령님의 감사를 전하시기 위하여 몸소 떡갈봉에 오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비범한 위인적풍모를 격이 있게 돋구어내고있다.

또한 《교편물》인 논바닥흙과 봇나무장작더미의 하얀 봇나무껍질세부에 대한 대조를 통하여 실지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것은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과 열정임을 깨우쳐주시는 위대한 스승의 형상을 창조한 단편소설 《기쁨》(전홍식 작)은 무척 인상에 남는 작품이다.

이처럼 형상창조의 모든 요소와 수법들을 적극 탐구리용하여 수령형상작품의 고유한 생리를 살릴 때 수령형상작품들은 모두 상대적인 독자성을 가지면서 위인형상이라는 무상의 영광을 땀땀이 지닐수 있는것이다.

X

기쁜 일이 생기면 아버지수령님께 먼저 아뢰이고싶고 좋은 일이 겹치면 수령님께 한시바빠 전하고싶은 불같은 일념으로 초강도의 전설적인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정녕 우리 수령님께서 아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라는 가슴뜨거운 속삭임이 시인들의 붓끝에 감격의 노래를 실어주고 수령님 념원하신 그 리상이 현실로 꽃피난다는 목메인 뜨거운 음성이 소설가들의 심장에 격동의 숨결을 부어준다.

위인의 자욱자욱은 그대로가 시이고 노래이며 소설이다. 수령형상소설은 재능으로가 아니라 깨끗한 량심으로 쓰는 법이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형상한 한편한편의 단편소설들은 말한다. 오늘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 무수히 새겨지는 장군님의 현지도 자욱자욱은 아버지수령님의 한생의 자취가 남기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화폭이라는것을…

영웅들을 낳은 땅에서

김창림

작금년간에 내 조국땅에 너무도 놀랍고 경이적인 사변들이 많이도 태어나 흥분으로 건잡을새 없던 가슴에 또 하나의 희한한 소식이 날아들었던 지난 2월!

나의 마음은 지금도 그 나날에 살고있다.

온 나라에 대정사를 알리는 충격적인 소식에 접하고 뒤이어 경애하는 장군님을 우리 도시에 모셨던 그 나날의 영광과 환희는 오늘도 그 여운을 가라앉히지 않고있다.

그날에 취재했던 곳이건만 나는 2.8비날론연합기업소를 또다시 찾았다. 경애하는 장군님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신 그곳의 로동계급속에서 그들의 진정을 하냥 듣고싶어서 ...

선군시대의 맛이 나게 새롭게 꾸려진 현대적인 CNC 생산공정을 따라 쉬임없이 쏟아져나오는 비날론!

여전히 온 공장이 흥성이고 로동자들이 신심에 넘쳐있었다.

비날론띠섬유하조장에서 나와 걸음을 옮기는 내 옆을 지나며 나누는 두사람의 말소리가 귀전에 날아들었다.

《아바이, 정말 꿈만 같아요. 수리공으로 한생을 사신 아바이가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이라니 ... 히야!》

《원 녀석두, 또 그 소리. 어디 나 하나뿐이나, 술한 사람들이 다 영웅이 되었지.》

둘이 나누는 대화에 신경이 쓰인 나는 지나치는 두사람을 다시 바라보았다.

수리공과 영웅이라는 말에 특별히 력점을 두어 말하는 청년은 공장에 갓 들어온듯 하면서도 아바이와 허물이 없어보이는 애된 젊은이였다.

인생의 달고 쓴 온갖 고초가 그대로 새겨진듯한 주름깊은 이마에 희옅스름한 성근 머리칼을 단정히 올려빚은 늙수그레한 아바이와 청년의 빠른 걸음걸이에서 2.8의 약동하는 맥박이 그대로 느껴지였다. 드바빠 걷는 모습뒤로 그들이 남기고 간 짧은 이야기가 긴 여운을 남기며 공명되어 울렸다.

《술한 사람들이 다 영웅!...》

사실이 그랬다. 막 쏟아져내리는 비날론폭포에 뒤이어 동서고금 그 어느 력사의 갈피에도 없는 74명의 로동자들과 기술자, 일군들이 영웅칭호를 수여받는 놀라운 사변이 또 이 공업도시에 태어났다.

단번에 74명의 로력영웅!

듣기만 해도 가슴벅찬 수자가 아닐수 없다. 허나 그 수자로 나는 비날론공장의 과거를 돌이켜 보게 되었다. 그 수자속에 위인의 비범한 령도와

그 령도를 받들어나선 충정스런 우리 인민의 전투를 떠올려보게 되었다.

시련의 시기에 공장에 몸소 찾아오시여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잘살자면 비날론이 나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며 그 방향과 방도를 하나하나 밝혀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웠을 때 2.8의 로동계급은 이 땅에 태동하는 비날론공업의 새로운 서곡을 들었었다.

남을 쳐다보며 남에게 의존할것이 아니라 제힘을 믿고 대담하게 달라붙으면 이 세상 두려울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는 철의 진리를 다시금 함남땅에 억센 기둥으로 박아주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개건사업을 계속 힘있게 다그치는것과 함께 원료, 자재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사업, 화학제품의 가지수를 더 늘이며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해야 한하는데 대해서까지 세심히 밝혀주신 우리의 장군님이시였다.

하기에 2.8비날론연합기업소의 일군들과 전체 로동계급은 일심동체가 되어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주신 과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내기 위해 불철주야의 전투를 벌리고 또 벌렸다.

낱은 건물은 허물어내고 막대한 토량을 처리하며 배관들과 탭들을 하늘높이 일떠세우는것도 어려운 전투였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엄청난 량의 물동을 실어오고 현장에 기계설비들을 들여앉히는것도 상상 못할 기적이였다.

그 기적의 노를 역세게 틀어잡고 시간과의 투쟁을 하였고 부닥치는 난관과의 대전을 벌렸으며 낮과 밤이 따로없이 강성대국건설의 영예로운 참전자답게 싸워 끝끝내는 견인불발의 의지력으로 10년이 걸려야 한하던것을 2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숨죽은 공정을 되살렸을뿐아니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최신과학기술에 기초한 현대적인 비날론공장을 일떠세워 입는 문제를 해결하는데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어놓은것이다.

이 벅찬 투쟁속에서 수십개의 기본공정들과 보조적생산공정들을 포함하는 수많은 공정들이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비날론을 위하여 움직이는 CNC 노래 넘치는 화학공업기지가 새롭게 태어나고고성을 더치였다.

이 현실앞에서 나는 생각한다.

정녕 영웅이란 비범한 사람들만이었던가.

나는 내가 만났던 비날론공장의 로동계급의 모습을 한사람한사람 떠올려본다.

카바이드2직장의 한개 작업반에서 배출된 8명의 영웅들, 10년전에 년로보장나이가 되었지만 숨죽은 공장을 두고 차마 발걸음이 떼지지 않아

생의 마무리를 공장과 함께 하겠다며 이바지한
주물직장의 아바이영웅, 로동년한이 10년도 채
되지 못한 《애송이》 자기가 영웅이 되었다며 몸
돌바를 몰라하던 총각영웅...

이 영웅들이 서로 다른 목소리로 한결같이 웨
치던 말이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을 그리는 마음, 장군님께 기
쁨드릴 한마음이 영웅적위훈을 낳았습니다.》

단번에 74명의 영웅들을 낳은 땅.

나는 이것이 날에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기적
을 낳는 우리 조국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한다.

이 영웅들, 비범하고 특출한 사람들이 아니라
소박하고 평범한 우리 인민대중, 경애하는 장군
님의 부르심이라면 산악같이 일떠서 아무런 사심

이나 리기적인 욕망도 없이 고스란히 자신의 모
든것을 장군님의 구상을 실현하는 강성대국건설
위업에 바치는 충직한 우리 인민들이 선군시대의
인간대군을 이루고있는 한 우리 조국의 미래는
확고하다.

강성대국의 대문은 활짝 열려지고있다.

영웅적인 우리 인민이 매일매일 창조하는 영웅
적투쟁의 서사시로!

한꺼번에 74명의 영웅들을 낳은 땅에서 나는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영상을 우러르며 마음
깊이 아뢰인다.

경애하는 장군님이시야말로 우리 인민을 영웅
적인민으로 키워내시는 위대하신 불세출의 영웅
이십니다! 라고...

영원히 그날의 그 모습으로

조석영

강사의 이야기는 끝났으나
들을수록 눈시울 뜨거워
내 발걸음 못 떼노라
여기 조선혁명박물관
한장의 사진앞에서

오늘도
그 어느 전구를 찾아가시는듯
혁명임무 마치시고 돌아오는 길인듯
우리 앞에 서계시는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철주동지

내 송엄히 다가서니
마음속에 떠오르누나
간교한 왜놈들에게 속히워
반공의 길을 걸으며
헛충질을 하던 사람들을
따뜻이 일깨워주시던 그 모습

나라를 빼앗기고 망국노로 산다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다
조종인민이 힘을 합쳐
강도 일제를 몰아내자고
그리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항일의 불사신이시여

일제특무놈들이
총구를 겨누고있는 사지판
반일부대들이 있는
안도의 그 컴컴한 숲속과

일본수비대놈들을 죽이며 찾으신
그 병영은 어디에 있느냐
반일부대 병사들앞에서

련합전선의 길을 걷자고
불같이 호소하시던
그 뜰안은 어디에 있느냐

모진 병마에 시달리고있는
한 반일부대 두령의 병을 고쳐주시려 헤치신
그 가시덤불길에 눈앞에 보인다
시시각각 생명을 위협하던
그 사선의 언덕이 저기 보인다

아 나라를 찾자고
항일을 하는 반일부대 병사들에게
정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며
생사운명을 같이하신
김철주동지이시여

일제 《토벌》대놈들과 맞다들었던
이국의 그 산밭은 어디에 있는가
반일부대 병사들과 함께
피어린 격전을 벌리시던
그 전장은 어디

반일련합전선만이
조종 두 나라 인민들을 구원하는 길이였기에
얼마나 힘겨운
혈전의 길을 헤쳐오셨던가
얼마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셨던가

아 **김일성** 장군님의 높은 뜻 받들어
그이는 오늘도 이 땅에서
제국주의자들을 영영 쓸어버리기 위해
그날의 그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최고사령부의 명령을 수행하고계신다



한정아

후회란 언제나 때늦게 오는것 같다. 퇴근길에 오른 신금화의 심정이 그러했다. 그는 오늘 체육단 일꾼들로부터 감독사업을 그만두고 실것을 권고받았다.

일흔고개에 올라선 자기를 생각하고 취한 조치여서 거절 못하고 받아들였지만 마음의 충격은 컸다. 끝내 목적했던 봉우리를 오르지 못하고 물러선 등산가처럼 자신에 대한 실망이 걸잡을수 없이 솟구쳤다.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참.) 신금화는 허전해지는 마음을 안고 청사계단을 한단한단 내려갔다.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결에 흰서리내린 귀밑머리가 가볍게 훑날렸다. 금화는 저도 모르게 호- 한숨을 내쉬었다. 사실 요즘 와서 그는 육체가 마음을 따라서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당했다. 젊었을적과는 달리 선수들과 함께 룽상주로 달리기가 힘들어졌다. 그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며 새로운 훈련방법을 모색하고있었다. 그래서 며칠전 체육단에 내려온 체육지도위원회 일군이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는 그에게 다가와 《신금화동지, 힘들지 않습니까?》하고 인정깊이 물었을때 별다른 생각없이 속심을 내비쳤었다.

《전 멀리에서 들려오는 감독동지의 구령소리를 듣고 젊은 감독으로 착각했었습니다. 정말 감독동지의 열정에 머리가 숙어집니다.》하고 그 일군이 좋은 인상으로 덧붙이기에 다른 느낌을 받지 못했던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의 권고로 이어질줄이야. 생각에 잠겨 정문을 나서던 신금화는 자기를 떠박치르며 들어서는 어떤 사람과 마주쳤다.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갓 마흔을 넘긴 체육단의 축구감독이었다. 그의 가슴에는 여러개의 꽃다발이 한아름 안겨있었다.

《미안합니다, 신금화감독동지. 저의 선수들이 조국에 도착하면 주려고...》 그는 당황해하면서도 기쁨을 가무리지 못한채 황황히 체육단합숙으로 달려가는것이였다. 뉴질랜드에서 진행된 세계청소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1등한 우리 나라 청

소년녀자축구종합팀에는 그가 양성하여 올려보낸 선수들이 여러명 있었다. 특히 대회전기간 득점 명수로 활약한 10번선수는 그가 몇년동안 품들어 키운 선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자랑찬 승리의 보고를 올리게 된 그가 몹시 부러웠다. 신금화의 입에서는 또다시 한숨이 흘러나왔다.

그도 새 천년도에 들어서면서 세계에 이름떨칠 새로운 룽상강자들을 키워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겠다는 남다른 목표를 세웠었다.

그런데 룽상주로에서 떠나게 되었으니 ...

그의 시야에 푸른 잎이 무성한 백양나무들사이로 일매지게 뻗어간 아스팔트도로가 정답게 비쳐들었다.

출퇴근때마다 늘 걸던 길이다.

이제는 이 길도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옮겨짚는 걸음에 탄력을 잃게 했다.

처녀시절부터 거의 반세기를 걸어온 길이다. 한생 룽상주로에서 단련된 그의 걸음은 지금도 보폭이 넓게 규칙적으로 옮겨지고있었다, 늘씬한 체구도 일흔고개에 올라선 늙은이답지 않게 정정해보인다.

신금화는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다.

언제나 활기찬 소음이 넘치던 체육단운동장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감독들의 구령소리, 훈련에 박차를 가하는 선수들의 숨결과 웨침소리가 금방 들려오는듯싶다.

룽상주로에 서서 초침시계를 들여다보며 선수들의 훈련을 지도하던 나날들이 새삼스럽게 그리워졌다.

《진수, 23초 02.》

《은희, 23초 06.》

선수들의 뛰는 시간을 재며 초침을 누르던 그 순간은 얼마나 환희로왔던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신금화의 온 심혼은 세계 룽상강자들을 타승하기 위한 선수들의 훈련지도에 쏠려있었다.

새 세기를 맞으며 현대과학기술이 체육계에 광범히 도입되면서 세계육상무대에서도 새로운 경쟁자들이 많이 나타났다.

서방신문들은 아프리카에서 《검은말》들이 출몰하여 유럽나라들이 밀리운다고 아우성쳤다. 그런가하면 보폭이 넓은 선수들로 새로 꾸려 육상 강국으로서의 전통을 고수하려고 더욱 분발하는 동유럽나라들의 팀들로 하여 세계육상계의 실력 구도가 변하고있다고 보도했다.

그에 대처하여 강자들과 대결하기 위한 빈틈없는 대책과 현대과학기술에 기초한 훈련지도방법을 탐색하는것이 급선무였다.

한편 신금화는 새롭게 등장하는 세계육상계의 개별적선수들과 그 감독들에 대한 료해와 연구사업도 심화시켰다.

그중에는 이전 쏘련의 이름있는 감독인 엘레나도 있었다.

선수시절부터 신금화에게 강한 적수로 도전해온 야심 많고 이악한 엘레나.

그는 감독이 된 후에도 기자들에게 신금화때문에 1등의 행운을 놓쳐버린 불행한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하곤 하였다.

그러던 엘레나가 언제부터인지 세계육상무대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신금화와 경쟁하며 세계육상계에 뚜렷한 자취를 남긴 관록있는 선수이며 감독인 그가 벌써 은퇴했는가.

아니, 그럴수 없다.

그렇다면 네덜란드의 어느 축구감독처럼 세계패권을 쟁취하기 위해 숨어서 《도》를 닦는것이 아닌지.

체육력사에는 복병전술이 승리의 월계관을 가져온 레가 허다하다. 드러난 적은 무섭지 않다. 은폐된 세력이 노상 위협을 준다.

이러나저러나간에 엘레나감독은 무시할수 없는 그의 강한 경쟁자였다.

그가 어떤 위력한 선수들을 양성하여 세계육상무대에 내세우겠는지 아직은 비밀로 되어있었다.

그래서 신금화는 선수들에게 언제나 강한 요구성을 제기해왔다. 훈련목표로 정했던 기록을 돌파 못한 선수는 그의 반복구령속에 다시 질주해야 했다. 그 나날에 기동선수로 지목하고 키우던 은희도 계획했던 0.2초를 단축하였다. 은희를 생각하니 불시에 그의 아버지의 구리빛얼굴이 떠오른다. 2년전, 은희를 육상선수로 선발하려 그의 집을 찾았을 때였다. 제강소 용해공으로 일하는 은희의 아버지는 딸의 전망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감독동지의 의향은 고맙지만... 우리 딸은 곤난할것 같습니다. 키가 작은 우리 은희가 어떻게 육상선수로 성공할수 있겠습니까? 저의 모르는 소견이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50대 초반에 들어선 용해공의 눈길이 신금화를 지긋게 뜯어보고있다는것을 느낄수

있었다.

신금화는 예상외의 그의 태도에 의아해졌다.

은희를 담당했던 중학교교원은 그의 부모가 자식의 체육에 남달리 관심이 높다고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신금화는 보폭이 작은 선수들의 기록장성에 대한 자료를 묶은 책을 펼쳐보였다.

《은희아버지, 은희는 비록 키는 작지만 육체적 준비가 좋습니다. 또 두뇌가 비상하고 성미가 강직하여 꼭 성공할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론거를 세워가며 은희아버지를 진지하게 설복했다.

그래도 요지부동이였다.

한참 이야기하던 신금화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웬일인지 그가 거절하는 리면에 꼭 쪼기 힘든 그 무엇이 있는듯 했다.

신금화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설복했다.

《은희아버지, 믿어주십시오. 은희를 꼭 훌륭한 선수로 키우겠습니다.》

은희아버지는 여전히 대답이 없었다.

손맥이 풀렸다. 지금까지 선수선발을 위해 온 나라 방방곡곡을 다 다녔어도 이런 경우는 거의 나 없었다.

실망하는 신금화의 표정에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던지 은희아버지는 지나가는 말처럼 물었다.

《저 ... 감독동지네 체육단에 신금화감독이 있나지요?》

그때에야 신금화는 은희아버지의 내심을 알수 있었다.

나이도 많고 별반 알려지지도 않은 녀감독에게 딸을 맡겨야 승산이 보이지 않는다고 여긴것이 다.

한순간 섭섭한 생각이 들었다.

은희아버지의 머리속에 표상된 신금화는 현재의 자기보다 훨씬 젊은 감독으로 인식되어있는것이 분명했다. 그는 일종의 기대를 가지고 자기 소개를 했다.

《은희아버지. 제가 신금화입니다.》

그의 태도가 돌변했다.

《예? 아니, 감독동지가? 그럼 인민체육인 신금화선수란말입니까?》

매우 놀라고 당황해하는 눈길이 그를 뚫어지게 보고있었다. 한때 신문과 방송, 잡지들에 널리 소개되었던 처녀시절의 신금화모습을 찾아보려는것 같았다.

《아! ... 옳구만요.》

은희아버지는 환성을 올리며 금화의 손을 덥석 잡았다.

《전 그때 중학생이였습니다. <즈나멘스끼형제상> 정탈 국제육상경기대회에서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조국에 돌아온 신금화선수 아니, 감독동지에게 우리 학급동무들은 축하편지를 보냈드랬습니다. 받으셨던 기억이 나는지요?》

그 시절, 신금화의 책상우에는 노동자, 농민들과 학생들 그리고 총련의 많은 사회단체들에서 보내온 축하편지들이 더미로 쌓이곤 했었다.

조국의 명예를 빛낸인 그에게 보내는 인민들의 축하였다. 그 많은 축하편지들에 새겨졌던 발신인들을 어찌 다 기억할수 있으랴.

《감독동지, 우리 은희를 꼭 신금화선수 아니, 감독동지처럼 키워주십시오.

우리 은희가 세계의 하늘높이 공화국기발을 휘날리게 한다면 전...》

정거장까지 따라나오며 신신부락하던 은희아버지.

그의 아버지의 당부는 이 나라 인민의 마음이고 기대가 아니었던가.

하여 그는 선수육성에 온념을 바쳐왔다.

그런데 그 모든 숨은 노력이 아무런 결실도 보지 못한채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된것이다.

은희아버지가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실망하랴, 2년전 젊고 전도있는 감독에게 은희를 맡기지 않고 이름났던 신금화라 하여 나이도 고려하지 않고 딸을 맡긴것을 두고두고 후회할것이다.

부닥친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다.

신금화에게는 그동안 나이를 잊고 살아온것이 새삼스럽게 돌이켜졌다.

그랬다, 신금화는 지금껏 자기 인생에 세월의 년륜이 어떻게 새겨지는지 모르고 살아왔다. 그만큼 생의 매 순간순간이 언제나 기대와 환희, 긴장과 걱정속에서 흘러갔던것이다.

그의 처녀시절은 세계육상강자들을 뒤떨구고 승리의 월계관을 쟁취하는 기쁨속에서 흘러갔고 중년기는 감독의 보람으로 이어졌다.

그 기쁨, 그 보람이 더는 찾아들지 않을것이다. 활기에 찬 생의 숨결이 문득 멈추어진듯 아니, 눈앞에 바라보이던 결승선의 목표가 별안간 사라져버린듯싶어 옮겨짚는 걸음이 저절로 휘청거렸다.

(내가 왜 이럴까? 세심한 그들의 마음이 고맙지 않은가. 나이많은 나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고 일군들이 토론하고 결정했었는데 괴로워하다니...

감독의 이신작척이 선수들의 기록갱신에 결정적역할을 한다는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냥 주로에 남아있었다면 그것은 나라의 체육발전에 해를 줄것이다. 나이되면 체때에 물러서는것도 인간의 옳은 처사다.)하는 생각이 다소 마음에 위안을 주기는 했으나 울적한 기분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X

창가에 석양이 비껴무렵.

초강도강행군으로 북부공업지구에 대한 현지지도를 끝내고 평양으로 돌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쌓이신 피로도 푸실 사이없이 집무탁에 마주앉으시였다.

탁우에는 그이께 체육지도위원회에서 올린 두통의 문건도 놓여있었다.

세계청소년녀자축구선수권대회에서 1등한 우리나라 녀자축구팀에 대한 소식과 세계각국의 반향자료들, 체육부문에 대한 실태로해자료문건이였다.

장군님께서서는 맨우에 놓여 있는 축구반향자료에 눈길을 주시였다.

조국의 어린 딸들이 세계무대에 나가 승리한 소식이 무엇보다먼저 그이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다.

《성공의 신화로 이어진 조선청소년녀자축구팀이 세계에 장엄한 승리의 포성을 울렸다.》로씨야의 이파르-파스통신.

《조선청소년녀자팀은 경기에서 완전히 우세를 차지하였다. 전도가 대단히 유망한 팀이다.》미국신문 《뉴욕 타임스》.

《가시돋힌 어린 장미들은 세계에 하나의 감탄부호를 선사했다.》파키스탄신문 《더 뉴스》.

《전술적인 측면에서 조선팀은 유럽과 아메리카 강팀들의 육체적우세에 돌입속도로써 돌파구를 찾았다.

특히 결승경기에서 이들은 과감한 경기운영으로 미국선수들을 당황하게 하고 연속 두꼴을 넣었다. 이번 대회기간 축구계의 금강석으로 불리운 중앙공격수 10번선수가 중거리포탄을 날려보낼 때 미국팀은 완전히 넋을 빼앗겼다.

정말 장하다. 조선팀을 당할 팀이 없다.》도이칠란드 축구책임감독 랄드 페테르.

장군님께서서는 통쾌한 마음을 금할수 없으시여 미소를 지으시였다.

용맹한 투지로 기어이 1등을 쟁취하여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떨친 어린 선수들이 못내 기특하시였다.

이제 그들이 평양에 도착하면 모두 금방석에 앉히고싶으시였다.

현지지도의 길에서 쌓인 피로가 일시에 사라지는것 같으시였다.

이어 다음문건, 체육부문사업에 대한 료해자료를 한장한장 번져가시던 장군님의 안광에 의혹의 빛이 어리기 시작했다. 문건에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국제육상경기에 떠나는 대표단성원들이 금수산기념궁전수목원에 나무를 심고 결의를 다진 내용이 적혀있었는데 거기에 꼭 있어야 할 이름이 빠진것 같은감이 드시였다.

그이께서는 시선을 집중하시며 다시한번 문건을 훑어보시였다.

장군님께서서는 그 문건에 신금화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다는데 생각이 미치시였다.

그가 왜 빠졌는가, 혹시 앓고있는것이 아닌지.

얼마전 텔레비죤화면에 비쳐졌던 그의 모습은 비록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젊은 시절의 활기찬 기품이 그대로 엿보이는 로당익장의 모습이었다.

신금화에 대한 그이의 사색은 어느 사이에 이번 북방의 제철소에서 만나주신 전기로 로장의 강직한 얼굴에로 이어졌다.

메달 계획을 200프로씩 넘쳐수행한다는 소문난 혁신자였다.

계획초과수행의 비결을 물으시는 그이앞에서 50대 장년의 로장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대답을 올렸다.

《장군님, 저는 룽상선수를 하는 딸과 경쟁하는 심정으로 쇠물을 뽑고있습니다.》

《그렇소?!》

로장의 대답에 흥미를 느끼신 그이께서는 딸과 어떤 경쟁을 하는가고 다시 물으시었다.

《딸애는 금메달로 나라를 빛내이고 저는 이 강철로에서...》

여기까지 말한 로장은 문득 집안자랑을 하는듯한 느낌이 들었는지 점직해하며 말끝을 잊지 못하였다.

장군님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부녀간의 룽다른 경쟁이 자못 그이의 마음을 흥그럽게 해드렸던것이다.

장군님의 웃음소리에 용기를 얻었는지 로장은 한마디 더 보태었다.

《장군님, 우리 애를 맡은 감독은 신금화선수입니다.》

그이께서는 신금화에게 맡긴 딸자식의 성공을 확신하는 굳은 믿음과 높은 긍지를 그 로장의 목소리에서 느끼시었다.

감독이라는 말보다 선수라는 대명사로 우리 인민의 기억속에 친숙해진 신금화, 그의 지도를 받으면 무조건 우승자가 되리라는 크나큰 기대는 비단 북변제철소의 한 로장만이 가지고있는것이 아니었다.

장군님께서도 그렇게 믿고싶으셨다.

그이께서는 딸의 앞날을 확신하던 로장의 기쁨속에서 말년에도 쉬임없이 후대들을 위해 바쳐가는 로체육인의 끝없는 정열을 느끼시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이 문전에 오르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가, 혹시 ...

장군님의 심중에 불안한 느낌이 스며들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생전에 신금화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셨던가, 그가 룽상주로서 삶을 아름답게 꽃피우도록 온갖 사랑과 배려를 다 돌려주시지 않았던가. 그의 신상에 자그마한 그늘이라도 비낀다면...

생각에 잠기셨던 장군님께서는 앞에 놓인 송수화기를 드시었다.

창문을 통해 비쳐드는 아침해살을 느끼며 눈을 뜨던 신금화는 침대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는 창문을 활짝 열었다.

멀리 대동강반에서 붉은 노을이 타오르고있었다.

(아참, 늦었구나. 은희가 아침달리기를 끝내고 체육단정문에 들어서겠는데... 진수는 총계오르기운동을 하고있는지.)

서둘러 운동복을 갈아입던 신금화는 별안간 우뚝 서버렸다.

오늘부터는 일과가 달라졌다는 생각이 뇌리를 찔던것이다.

삼시에 외로운 느낌이 온몸에 갈마들었다.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을 품에서 떼놓은 어머니처럼 애모쁜 심정이 가슴가득 차올랐다. 선수들이 보고싶었다.

그들의 명랑한 웃음소리며 주로를 달리는 힘찬 모습들이 못건디게 그리웠다.

망설이던 신금화는 운동복대신 외출복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다. 체육단올타리의 먼발치에 서서라도 그들의 훈련하는 모습을 보아야 마음이 편할것 같았다.

늘 출근길에 오르던 지하철도역에 들어서니 즐거웠던 지난날의 추억이 다시금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계단승강기를 타고내려갈 때엔 《...희망의 아침이여-》노래가 저절로 흘러나왔었다. 그런데 지금은 한숨만 새어나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생의 목표에 이르지 못한채 주로에서 물러서게 된 자신에 대한 실망이었다.

전동차가 그의 앞에 멎어섰다. 오르고내리는 사람들이 많았다. 벅찬 하루일을 시작하게 되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친 힘찬 발걸음들에 떠밀려 차칸에 들어서던 그는 흠칫 놀랐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는거냐, 주책없이 행동하지 말라!) 하는 마음속경고가 발목을 붙들었던것이다.

사람들을 피하듯 고개를 숙이고 되돌아나오던 신금화는 와들 놀라며 돌아보았다. 어디선가 분명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던것이다.

《인민체육인 신금화?》

소리난쪽을 바라보니 신문소개관을 둘러싼 대학생들이 체육신문을 가리키며 떠들고있었다.

《야, 대단하구나. <국제 룽상련맹협회>가 년간 잡지에 1960년대 세계 룽상계를 뒤흔들었던 우리 나라 신금화선수를 소개한 기사를 실었다누만.》

얼핏 신문을 보니 웅근 한면에 그의 선수시절 사진과 함께 그때 거둔 경기성과자료들이 실려있는것 같았다. 사진속의 웃고있는 신금화의 앞가슴에는 금메달이 빼곡이 차서 번쩍이고있었다.

《정말 신금화선수는 우리 민족의 자랑이예요.》

한 처녀대학생이 긍지넘친 어조로 말했다.

《그 말은 정확치 못해. 지금은 신금화선수가 아니라 신금화감독이야. 전번 텔레비죤화면에 신금화감독에 대해 소개된것을 보지 못했어?》

보매 체육에 관심이 높은 대학생들인것 같았다. 그들은 신금화가 자리를 못 뜨고 서있다는것도 모르고 이름있는 그에 대해 누가 더 많이 알고있는지 내기하는것 같았다.

이들이 세상에 태어나기도전에 세웠던 공적이 세월을 넘어 오늘까지도 추억되고있었다. 신금화의 눈굽은 서서히 뜨거워올랐다.

1960년대 초엽은 그가 룡상선수로서 전성기를 맞던 해였다. 그때가 회상되자 신금화의 마음은 40여년전의 그날처럼 끝없는 환희에 젖어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모스크바상공에 휘날리던 공화국기발의 펄럭임 소리마저 그대로 들려오는듯싶었다.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즈나렌스끼형제상》쟁탈 국제룡상경기대회, 오늘의 세계룡상선수권대회로 발전한 이 대회에는 세계각국의 룡상장자들이 다 참가하였다.

경기장은 관람객들로 초만원을 이루었다. 선수들이 경기장에 입장하기 시작했다.

신금화는 5주로였다. 그의 옆에는 유럽룡상선수권보유자인 네테를란드선수가 섰다. 그는 출발선으로 다가가면서 자신만만한 눈길을 신금화에게 던지며 그의 금새를 떠보려 했다. 상대가 아시아인이라고 알보는듯 한 태도였다.

탓할수 없었다. 그때까지만도 아시아선수들은 등수권에조차 들지 못하고있었던것이다.

문득 어머니의 눈빛이 다가왔다. 조국을 떠나올 때 비행장에 내려주러 나왔던 어머니, 자기의 옷깃을 바로잡아주는 어머니의 손은 가늘게 떨고있었다.

《꿈만 같구나. 해방전에 밤 한술도 빌어먹기 힘들었던 과부의 자식이 비행기를 다 타다니... 금화야, 잊지 말아야 한다. 돈 한푼 받지 않고 공부를 시켜주고 전국인민체육대회에서 1등하였을 때는 기계공장 선반공을 중앙체육단에 불러주신 수령님의 은덕에 꼭 보답해야 한다.》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을 되새겨보며 그는 신들메를 단단히 조였다.

출전하는 선수들의 얼굴이 눈에 비쳐들었다. 승부를 겨루게 될 경쟁자들이다.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자신만만한 표정이 신금화에게 은연중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아직은 전적도 없는 자기가 아닌가.

갑자기 관람석에서 환호성이 터졌다.

국제올림픽금메달수상자인 쏘련(당시)의 엘레나 선수가 경기장에 나타났던것이다. 쏘련가맹공화국태생인 그는 여러차례 세계신기록을 세워 룡상계의 최강자로 공인되고있었다.

관중들만아니라 주로를 향해가던 선수들도 멈춰 서서 그에게 경탄의 눈길을 보냈다.

자존심이 강하고 거만기가 보이는 네테를란드 선수까지 엘레나에게 손을 흔들어보였다.

엘레나는 활짝 웃는 얼굴로 관중들에게 답례했다. 박소리가 요란히 울려퍼졌다.

신금화도 그를 보았다. 출발선을 향해 경쾌한 걸음을 옮기는 그의 자세는 날아갈듯 하였다. 세계보도계가 《룡상계의 별》이라고 떠드는것이 우

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엘레나는 경기에 앞서 우승의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자기의 룡상 주로는 쏘련공산당과 부모라는 두개의 기둥이 받쳐주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이번 경기에서도 우승할것이라고 자랑스레 말했다.

경기때마다 엘레나의 부모가 관람석의 맨 앞줄에 앉아 힘과 용기를 준다는 말을 들었을 때 신금화는 그가 부러웠다. 나도 아버지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느닷없이 떠올랐다.

엘레나는 볼우물에 웃음을 함뱉 담고 부모들이 있는 관중석을 향하여 손을 흔들어보였다. 그의 위압적인 자세가 신금화에게 불안감을 몰아왔다.

1등을 해야 한다는 결심이 저도 모르게 엄습하는 심리적인 압박감앞에서 갈대처럼 흔들리기도 했다. 애써 마음을 안정시키며 걸어가는데 《금화동무!》하고 다급히 찾는 목소리가 틀렸다.

의아한 표정으로 돌아보니 모스크바에 도착하던 날 비행장에 마중나왔던 대사관일군이 감독과 함께 뛰어오고있었다.

(무슨 일일까?)

금화앞에 다가선 그들은 선뜻 말머리를 떼지 못했다. 몹시 흥분한 인사들이었다.

《금화동무, 위대한 수령님께서 ... 지금 모스크바를 방문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소. 긴장한 지방참관일정때문에 경기를 보지 못하는데 경기를 잘하여 기어이 우승의 영예를 쟁취하기 바란다는 간곡한 말씀이 계시었소.》

격동이 차오르는지 감독은 다음말을 잊지 못했다.

신금화는 한동안 멍하니 그를 바라보기만 했다. 감독의 말이 먼 하늘끝에서 들려오는듯싶었다.

외국방문의 바쁜 나날을 보내시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름없는 선수인 나의 경기에 대해 관심하시다니, 행운도 너무도 뜻밖에 다가오면 믿어지지 않는 모양이다.

자기를 쳐다보는 감독의 눈도 젖어들고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만나실 때마다 중앙체육단에 올려온 로동자, 농민출신의 인재들을 잘 키워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군 하셨소.》

신금화는 흥벽을 치는 심장의 울림을 들었다.

(수령님께서는 이미 나의 걸음걸음을 살펴주고 계시었구나. ... 아, 수령님.)

천송이 만송이 꽃바다가 펼쳐진듯 그윽한 사랑의 향기가 숨막히게 가슴에 차올랐다.

그의 심장은 희열로 뛸뛰기 시작했다. 마음은 행복의 절정에 치달아오른듯 마구 설레었다.

《금화동무, 위대한 수령님께서 승리의 보고를 기다리고계시오. 기운을 내서 꼭 이기시오.》

대사관일군과 감독이 그의 손을 억세게 잡아주었다.

신금화는 온몸에 커다란 힘이 솟구치는것을 느

끼며 출발선을 향해 자신있게 걸어갔다.

엘레나를 바라볼 때 생겼던 의기소침하고 부럽던 감정은 씻은듯이 사라졌다.

모두가 아래로 굽어보였다. 쏘련선수도 네테를 란드선수도...

신호총소리가 경기장에 메아리치는 순간 그는 출발선을 박차았다. 짧지 않은 400미터 결승선이 걸음걸음 지척으로 안겨왔다. 친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이 그의 등을 다정히 떠미는듯싶어 그는 나는듯이 달렸다. 벌써 결승선이 보이는 직선구간에 들어섰다. 제일 앞섰는가싶은데 옆에서 겨끔 내기로 달리는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가 위협적으로 들린다.

(좀더 빨리, 더 빨리)

드디어 1등의 테프가 신금화의 가슴에 부드럽게 잠겼다. 하늘땅을 뒤흔드는듯 한 함성이 경기장에 차넘쳤다.

엘레나선수는 그로부터 열여섯미터나 떨어져 따라왔다. 모스크바경기장방승에서는 신금화선수가 1등을 하였음을 알려주었다. 또다시 환호의 선풍이 일었다. 신금화는 그 함성속에서 《코레아! 코레아!》하는 웨침소리를 들었다.

기자들이 구름처럼 모여오는 가운데 엘레나선수가 다가와 엄지손가락을 흔들며 축하해주었다. 네테를란드선수는 수표를 요구하였다.

다음날 신금화는 800미터경기에 출전하여 다시금 1등의 영예를 지니었다. 런던이 이룩된 조선 선수의 기적앞에서 세계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를 성벽처럼 둘러싼 여러 나라 기자들가운데서 귀밀머리가 희끗희끗한 영국녀기자가 신금화에게 말을 걸었다.

《축하합니다.

신금화선수가 아시아인들의 체질상 불가능의 신화를 깨뜨리고 세계육상계에 당당한 우승자로나선것을 보니 몇년전 세계최강적이었던 미국을 굴복시킨 조선전쟁의 승리에 대해 다시금 상기해보게 됩니다.》

알고보니 그는 전쟁때 우리 나라를 방문한적이 있었다.

그의 말에 여러 기자들이 공감했다.

이때 30대 초반을 갓 넘긴듯 한 프랑스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다.

《이번 대회 전기간 두번씩이나 우승한 신금화 선수에 대해 감탄을 금할수 없습니다. 당신의 높은 육상기술은 아마도 어렸을 때부터 매우 실력있는 구락부팀의 지도와 부유한 가정의 후원을 받았을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나라의 이름있는 육상선수 푸랑쑤아의 가문도 그의 발전을 위해 몇대를 내려오던 재산을 거의다 소비했다고 합니다.

신금화선수는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돈이라니?)

신금화는 그의 질문자체가 매우 귀설게 들리었

다.

말로만 들어오던 자본주의사회의 현실을 난생 처음 실감하게 된 신금화는 언제나 자기를 따돌이 안아주던 조국의 고마움을 이 순간에 더욱 사무치게 느끼게 되었다.

저들은 내가 위대한 수령님의 품인 사회주의조국에서 교육비란 말조차 모르고 성장해온 과정을 말한다면 얼마나 놀랄것인가. 어린 처녀로서는 가슴가득 넘쳐나는 행복의 이야기를 기자회견이라는 짧은 시간속에 다 펼쳐보일수 없는것이 안타깝기만 했다.

경기를 마치고 조국에 돌아왔던 날은 얼마나 행복했던가.

수만명의 평양시민들이 펼쳐나와 자기를 환영했다. 꽃테프가 물결치고 무개차에 올라 미소짓는 자기를 향해 촬영기가 돌아갔다.

하늘가에 뿌려지던 꽃보라, 꽃보라...

그런데 더 큰 영광이 자기를 기다리고있을줄이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신금화를 위해 성대한 연회를 마련해주시고 몸가짜이 불러주셨던것이다.

《오, 개선장군이 왔군만. 장하오! 장해.》

수령님께서는 국가연회장에는 들어서는 그를 품에 안고 기쁨에 넘쳐 말씀하셨다.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던 수령님을 직접 뵈게된 신금화는 너무도 커다란 걱정이 차올라 몇십번이나 곱씹어외웠던 승리의 보고를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더구나 아버지수령님께서 불러주신 《개선장군》이라는 말이 가슴을 한없이 울려주었다.

《개선장군》이란 전장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수천수만의 병사를 거느린 명장에게 붙이는 호칭이다. 그런데 한갓 육상선수에 불과한 자기에게 것처럼 파분한 평가를 주시니 신금화는 눈곱이 달아올라 머리를 들수 없었다.

모스크바경기장의 출발선에서 불안과 위구로 긴장했던 그 시각, 친히 전화로 힘과 격려를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그 믿음과 교무가 아니었더라면 오늘의 우승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으랴.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들먹이는 그의 어깨를 다정히 잡아주시며 타이르듯 말씀하셨다.

《그만 그치라구, 이제는 조선의 신금화가 아니라 세계적인 신금화가 되었으니 얼마나 장하오.》

부드럽게 울리는 수령님말씀에 그의 어깨는 더욱 세차게 물결쳤다. 결승선의 마지막구간을 달릴 때도 끄덕없던 그의 심장이 지금은 견잡을수 없이 마냥 놀뛰었다.

눈물은 슬플 때만이 아니라 행복이 넘칠 때도 흘러게 된다는것을 신금화는 그때 처음 체험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신 신금화를 일군들앞에 내세우시며

《자, 조국의 영예를 떨치고 돌아온 신금화를

축하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성과를 위해서 잔을 들시다.》하시며 손수 축배잔을 부어주셨다.

축배잔을 받아든 신금화는 몸돌바를 몰라 얼굴을 붉혔다.

《조금 마시라구. 일없소.》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친딸처럼 대해주시는 그의 말씀에 긴장으로 굳어졌던 신금화의 마음은 봄날처럼 밝아졌다.

수령님께서는 생신한 문어회접시를 신금화앞에 가까이 놓아주셨다.

《문어회를 좋아한대지? 어서 많이 들라구. 그래야 힘을 내서 다음 경기에서도 이길수 있지.》

신금화는 목이 메어 수저를 들수 없었다.

(수령님께서 저의 식성까지 다 아시다니, 친아버지인들 이처럼 다심하랴.)

신금화가 1등한것이 더없이 대견하시여 몇번이나 치하하시던 수령님께서는 경기과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물어보셨다.

어느덧 단란한 가정의 식탁에 앉은듯 마음이 즐거워진 신금화는 손세까지 써가며 세세히 말씀드렸다.

그의 이야기가 출발선에서 거만한 표정을 보였던 네델란드선수가 경기후에 수표를 요구했던 대목에 이르자 그이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며 만족한 표정을 지으시었다.

《그렇소, 령토의 크기나 인구수에 관계없이 승자가 되면 누구도 알보지 못하는 법이요. 금화동무, 앞으로도 국제경기들에서 계속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하오.》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지난날 천대받고 압박받던 근로인민의 자식들이 세계무대에 나가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는것을 볼 때가 제일 기쁩니다.》

수령님께서는 대견한 눈길을 신금화에게 보내시며 자애깊은 음성으로 신금화동무는 아버지가 없이 자랐지만 우리 당이 아버지라고, 그러니 당과 조국을 위해 앞으로도 룡상주로에서 힘차게 달려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아버이수령님, 고맙습니다. 저는 조국의 명예를 빛내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리겠습니다.)

이날 신금화는 난생처음 친아버지의 품에 안긴듯 마음껏 걱정의 눈물을 쏟았다. 기쁨과 맹세로 충만된 눈물이었다.

신금화의 인생주로는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친아버지사랑이 해빛처럼 비쳐있었다.

인간은 그 누군가가 거대한 힘으로 자기를 받쳐준다는 믿음이 있을 때 무궁무진한 정열을 발휘한다.

신금화는 선수생활 전기간 열한번이나 세계신기록을 세워 세계룡상계에 최우수선수로 등록되었고 룡상계의 《녀왕》으로 가는 곳마다 이름떨쳤다.

쏘련의 룡상선수 엘레나는 신금화에게 빼앗긴 순위권을 되찾으려 무진애를 쓰다 끝내 포기하고

이렇게 통탄했다.

《나는 도저히 그를 따라잡을수 없었다. 그가 경기때마다 거의 폭발적인 힘을 발휘했기때문이다. 그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 도저히 알수 없다.》

이렇듯 룡상주로에서 남다른 위훈을 떨친 신금화의 보람찬 인생길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더욱 빛나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신금화가 선수생활을 마친 다음에도 감독의 중책을 맡겨주시고 인생의 말년까지 삶을 아름답게 빛내도록 보살펴주셨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금화는 조국을 위해 큰 공을 세웠다고 하시며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거듭 베풀어주시었다. 뜻밖의 일로 그가 마음속고충을 겪을 때는 일군들을 파견하시여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룡상주로를 마음껏 달리도록 하셨다.

행운아, 아마도 이 날말은 이 세상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자기자신만을 위해 생긴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런데 지금껏 줄기차게 달려온 인생길이 여기서 끝나고만것이다. 불시에 눈곱이 젖어들었다. 아버이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보답 못했다는 생각에 신금화의 심장은 옥죄어들었다.

(아버이수령님, 저는 룡상주로를 떠났습니다.)

수령님과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에 더 큰 성과로 보답하자고 했는데...)

가책과 회오의 눈물이 그의 눈에서 비오듯 흘러내렸다.

X

정적이 깃든 집무실에 저녁노을의 마지막잔광이 엇비슷이 비쳐들었다. 송수화기를 놓으신 장군님께서는 심중의 아픔을 이길수 없으신듯 집무탁에서 눈길을 떼시었다.

서운하고 괴로운 생각이 못견디게 갈마드는것은 무엇때문일까.

(신금화... 세계룡상무대에서 천리마조선의 기상을 온 세상에 떨치던 그가 년로보장에 들어가다니?)

세월이란 참으로 무자비하다는 생각이 드시었다.

장군님께서는 신금화를 생각하시니 무엇보다먼저 아버이수령님의 모습이 사무치게 떠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었다.

산간지대 농업발전을 위해 현지지도를 마치고 돌아오신 수령님께서는 정치국회의를 열기에 앞서 일군들에게 신문 한장을 들어보이시었다.

《동무들, 신금화선수가 <즈나멘스끼형제상>쟁탈 국제룡상경기대회에서 또다시 세계신기록을 세웠소. 그는 전해에 1등한것으로 하여 겨냥된 목표가 된것이나 같았소.

그런데 이번에 또 이겼소. 한번 우승한 선수가 련속 이긴다는것은 체육력사에 드문 일이요.

이건 기적이요.》 만족한 미소를 지으시는 수령님의 안광에는 조국의 영예를 빛내인 신금화를 위해 주실수 있는 모든것을 다 베풀어주시려는 크나큰 사랑이 비껴있었다.

《이제는 우리 민족이 세계체육계에서도 당당히 자기 위치를 차지했다고 말할수 있소.

지금 우리 나라 도처에서 체육뿐만아니라 과학, 문학예술분야에서도 세계를 건주는 인재들이 우후죽순처럼 자라고있소.》

만가지 시름이 다 풀리시는듯 환히 웃으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르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눈굽은 후더워오르시였다.

바로 이날을 위해 수령님께서 바치신 로고가가슴뜨겁게 회억되시였던것이다. 전후복구건설의 그 어려운 때, 방대한 자금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였다. 전력, 석탄, 금속, 철도운수를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의 그 어디서나 요구하는것은 자금이 었다. 그래서 일부 일군들은 과학, 문학예술, 보건, 체육부문의 인재양성에 지출되는 교육비만은 무료로 하기 힘들다고 제기했었다.

수령님께서 《물론 우리가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경제가 혹심하게 파괴된 조건에서 인재교육을 무료로 한다는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동무들, 생각해보시오.

조선봉건왕조통치배들은 음풍영월로 세월을 보내면서 우리 민족을 무지와 몽매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망국노의 운명을 면치 못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강점한 일제는 우리 인민을 소나 말처럼 부려먹기 위하여 노예교육만 강요했습니다.

그리나 더는 우리 민족이 놀려살수 없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우리 인민은 정신면에서뿐만아니라 물질생활에서도 가장 앞선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이 강해야 나라가 강합니다. 그러자면 인재가 있어야 합니다. 있어도 많아야 합니다.

우리가 좀더 고생하더라도 각 부문의 인재양성에 돈을 아끼지 맙시다.》

그리하여 그 곤난하던 때에 체육부문에 선수후비육성체계가 정연하게 세워지고 체육시설과 설비가 그른하게 갖추어지게 되였다. 신금화도 그속에서 자라나 세계육상에서 패권을 쥐게 된 선수였다. 그런 선수가 체육계에서 물러서게 되였다는것이 믿어지지 않으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따뜻한 사랑속에서 성장한 신금화가 주로에서 내려섰다는 사실을 정녕 인정할수 없으시였다. 신금화감독에게 딸을 맡겼다고 그리도 기뻐하던 전기로 로장의 얼굴이 실망에 잠긴 얼굴로 엇바뀌며 떠오르시였다.

창너머 불타는 노을이 그이의 눈앞에 비쳐들었다. 온 하늘을 불태우던 진홍빛노을은 어느덧 지평선끝에 가느다란 감빛띠를 두르며 엷어지고있었다. 사라져가는 노을을 바라보는 그이의 가슴은 아프시였다.

신금화도 저 노을처럼 인생의 마지막주로에 들

어선 자신을 의식하며 그늘진 마음을 안고있을것만 같은 느낌이 드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영상이 우렁이 안겨오셨다. 그이께 신금화가 주로에서 내려했다는 마음속 보고를 하실수가 없는 심정이 더욱 피로움을 불러일으키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인생초엽부터 밝은 주로에 내세워준 인민체육인 신금화, 세계에 가장 아름답고 빛나는 꽃으로 피어나게 하여주신 신금화, 수령님의 사랑의 빛발이 그의 생의 마감구간에도 밝게 비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그이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다.

장군님께서 다시 송수화기를 드시고 체육지도위원회일군을 부르시였다

X

키가 크고 몸이 좋은 체육지도위원회 책임일군을 만나신 장군님께서 새 세기에 들어와서 모든것이 곤난한 속에서도 너자유술, 너자마라손, 너자촉구를 비롯한 체육의 모든 부문에서 세계적인 기록들이 창조되고있는데 대하여 치하하시였다.

《그런데 체육인들의 운명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하는것 같습니다. 신금화선수에 대한 견해를 말해보시오.》

책임일군의 얼굴이 대뜸 굳어졌다. 그는 전혀 뜻밖인듯 당황해하며 떠듬떠듬 말씀드렸다.

《체육단에서 그 문제를 제기하였을 때 저희들도 심중히 토론해보았습니다.

많은 룹상명수들을 키워낸 신금화동무에게 일흔나이가 되어오도록 너무 과중한 부담만 끼치는것 같아 이제부터라도 좀 편안히 살도록...》

《편안히... 편안히 산단 말이지.》

장군님께서 공감아 되지 않으신듯 한 음성으로 되뇌이시더니 불쑥 물으시였다.

《그래 신금화동무하고는 담화를 해보았습니까?》

《예, 만나보았습니다.》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신금화동무는 년로보장조치에 아무런 의견도 없다고 했습니다. 젊은 동무들에게 체때에 직무를 양보하지 못한 일을 드고 책임감을 느낀다는 것이였습니다.》

《다른 말은 더 없었습니까?》

《그는 해놓은 일보다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하지 못한것이 한스러울뿐이지 다른 소원은 없다고 했습니다.》

《받아안은 사랑에 보답못했다? 그것이 한스럽다?》

장군님께서 어조에 힘을 주어 물으시였다.

《예.》

《동무는 그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책임일군은 미처 대답을 못드렸다.

신금화의 발언내용을 자자구구 따져보며 그의 속마음을 깊이 음미해보지는 못했던것이다. 체육인이란 정신로동을 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육체적 한계가 있으므로 그를 집에 들여보내 여생을 편안하게 해주는것이 옳은 대책이라고 생각했었다.

사색깊은 그의 발자국소리가 집무실의 정적을 한층 더 짙게 했다.

장군님께서는 신금화가 했다는 《보답 못했다》는 말마디가 가슴속에 메아리를 불러일으키는것을 어쩔수 없으시였다.

평범히 스쳐지나지 않는 그의 말.

그의 말이 복변체철소 로장의 목소리로 이어졌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그의 목소리에서 신금화가 세운 삶의 목표를 헤아리시였다.

신금화는 생의 말년에도 룡상주로에 삶의 좌표를 세우고있었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인간은 언제나 심장이 가리키는 일에 몸을 잠글 때 기쁨과 만족을 느낀다. 그레아 열정과 힘이 분출되며 로쇠도 극복된다.

장군님께서는 그 체육일군을 향해 돌아서시였다.

《우리는 신금화동무처럼 유명한 선수들일수록 그들의 말년에 대하여 신중한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 물론 다른 부문의 인재들은 생의 말년까지 자기 전공분야에서 꽃을 피워 더 큰 영예를 쟁취할수 있지만 체육만은 그렇지 못합니다.

때문에 본인의 진심을 잘 알아보고 처리해야 합니다.

신금화동무는 수령님께 맹세다진대로 오늘까지 룡상주로에서 살면서 후비육성사업을 놓지 않은 동무입니다. 〈보답 못했다.〉는 신금화의 말에는 생의 마감까지 룡상주로에 서있겠다는 그의 의지가 비껴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정신력을 소유한 동무입니까?

자본주의나라 체육인들은 대체로 젊은 시절에 벌어서 인생말년을 편안히 즐겁게 보내려는 자기 위주의 생활관을 가지고 살고있습니다. 어떤 선수는 세계선수권대회에서 1등한 자금으로 기업을 차려놓고 다시는 경기에 출전하지 않겠다고 성명까지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수령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나라 선수들의 인생관은 애국에 기초를 두고있습니다.

천리마시대에 패권을 쥔 신금화선수나 이번에 세상을 놀래운 녀자축구선수들이나 다 그 비결은 조국을 빛내이려는 강한 정신력, 사상적힘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생의 마감까지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정치적생명을 계속 빛내이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룡상주로를 떠난 그의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신과 육체가 룡상으로 체질화된 동무가 집에 들어가서 무슨 락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사실상 신금화동무의 여생을 돌봐준다는 구실로 그의 생명을 끊어놓은것이나 같습니다.》

《장군님, 저희들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책임일군은 자책이 어린 어조로 조심히 말씀을 드렸다.

장군님께서는 근엄한 안색을 지으시며 말씀을 이으시였다.

《아버이수령님께서는 룡상주로에서 달리고있는 신금화를 아시지 주로에서 내린 신금화는 모르십니다. 룡상주로는 수령님께서 신금화에게 안겨주신 영원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이는 길입니다.

수령님의 뜻을 꽃피우기 위해 아글타글 애쓰는 그를 생의 끝까지 룡상주로에 세우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그 동무는 오래동안 감독사업을 하면서 룡상선수들의 심리연구도 많이 하고 글도 썼다는데 육체적부담이 적은 직무를 선택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군님.》

《이번에 진행되는 국제룡상경기에 신금화동무를 보냅니다.

우리 선수들은 주로에 선 그만 모아도 힘을 얻을것이며 세계는 놀랄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생일 70돛이 래일모레라는데 생일상도 차려주고 축하도 해주어야겠습니다.》

힘주어 말씀하시는 장군님의 안광은 태양처럼 밝게 빛나고있었다.

비행기는 고도상공을 날고있었다

신금화는 처녀시절 첫 비행기를 탔을 때처럼 가슴이 마냥 설렘었다.

인생말년에 다시 비행기에 오르게 될줄은 정녕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그였다. 체육단과학실 연구사로 임명되어 자기가 키운 선수들과 함께 국제경기장으로 가는 길이였다.

방금전 비행장에서 내려주던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삼삼했다.

《금화선생 축하합니다. 장군님의 은덕으로 연구사가 되였다지요? 우리 은회를 선생님한테 맡긴것이 얼마나 잘됐습니까. 은회가 국제경기에 출전하다니, 우리 가문의 큰 경사입니다.》

눈물이 글썽하여 손을 부여잡고 놓지 못하던 은희아버지, 꽃뭉음을 흔들며 환송해주던 어린 학생들 그리고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70돛 생일상 앞에 앉아 뜨거운 눈물을 흘리던 행복한 그 저녁...

모든것이 꿈만 같이 여겨진다.

어쩔수없이 다가온 황혼으로 그들이 지는줄 알았던 생의 마감주자로 여전히 밝고밝은 태양의 빛발이 뜨겁게 비쳐지고있는줄은 정녕 몰랐었다.

(위대한 장군님, 고맙습니다.

아버이수령님께서서는 저의 인생을 룡상주자로 깨끗이 세워주시었고 수령님의 뜻을 빛내여가는 장군님께서서는 저를 생의 끝까지 달리도록 보살피주고계십니다. 이 지구우에 인간세상이 생겨 수백만년 흘러왔고 앞으로도 수억만년 영원히 흐를 것이지만 이런 사랑, 이런 믿음이 려사의 어느 갈피에 또 있겠습니까. 인류의 영원한 태양을 모신 조선민족의 영광으로 하여 저희들은 강성대국으로 질주하는 체육인답게 국제경기들에서 련전 련승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 꼭 크나큰 기쁨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비행기가 모스크바에 내렸다.

중심거리의 낮익은 호텔계단으로 오르려던 신금화는 깜짝 놀라 멎어섰다.

자기를 끝추 보며 다가오는 웬 로파, 백발의 머리, 주름살이 얹힌 얼굴, 초점이 불투명한 눈...

《썬꿈하!》

로씨야식발음으로 부르는 자기 이름!

《아, 엘레나!》

신금화는 겨우 알아보았다. 자기와 패권을 다투던 세계적인 강자 엘레나!

그의 종착점은 지금 어디에 이르렀는가.

엘레나는 신금화의 손을 부여잡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이라고 련속 웨쳐댔다. 통역의 도움으로 신금화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수 있었다.

《난 신금화감독을 본 순간 내 눈이 착각한게 아닌가고 의심했어요.

어쩌면 걸음걸이도 얼굴의 미소도 젊었을 때와 꼭 같은지 당신을 제격 알아봤어요.》

꺼칠하게 말라보이던 그의 불에 연한 홍조가 어렸다. 그 모습이 신금화에게 40여년전의 엘레나얼굴을 희미하게나마 상기시켰다.

《어쩌면, 인생의 황혼기까지도 이렇게 서있군요. 정말 부러워요.》

련속 감탄사를 쏟아놓던 엘레나는 갑자기 침묵을 지켰다. 그의 눈에 침통한 빛이 어렸다. 신금화의 묻는듯 한 표정을 마주보기 피로운듯 머

리를 떨구었다.

《썬련의 해체로 거대한 땅덩어리에서 운석처럼 떨어져나간 내 고향은 지금 반목과 질시의 땅으로 되었고 부모들은 민족간 대결의 판리통에 세상을 떠나갔어요.

나를 받쳐주던 삶의 기둥들은 삽시에 무너져버렸지요.

《 룡상협회》도 자금난에 빠져 여러 개인기업주들에게 후원을 요청했어요. 관람자들의 수요가 높지 못한 우리 협회의 요구는 가는곳마다 거절당했어요....

빵 한조각에 우유 한고뿌를 마시고도 조국위해 달리던 그 시절이 그리워요. 이제는 성 쌓고 남은 돌신세가 되었지요.》

신금화는 그의 얼굴에 새겨진 무수한 주름과 때이른 백발이 심한 정신적세파에 시달린 후파임을 어렵지 않게 직감했다.

룡상계의 오랜 두 로장은 호텔의 응접실쏘파에 마주앉아 회포를 나누었다.

엘레나는 신금화에게서 조국을 떠나오기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듣다가 흥분하여 일어섰다.

《신금화, 당신이 부러워요, 정말...

당신의 힘의 비결을... 수수께끼를 이제야 알게 되었어요. 그때 세계를 뒤흔들던 폭발적인 힘이 어디에서 분출되었는지...

김일성... 김정일... 태양! ... 당... 부모... 내 다시 태어난다면 조선에서 조선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신금화는 엘레나의 손을 어루쓸며 더 말을 못했다. 가슴에 바다처럼 차넘치는 인생의 진리를 어떻게 다 말하랴...

하나의 출발선에서 인생의 첫시절 함께 땅을 차며 달려나가던 룡상계의 두 로장, 서로가 너무도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만난 그들의 인생의 결승선은 왜 이리도 차이나는것인가.

신금화는 이역에서도 변함없이 자기를 포근히 감싸주는 따스한 해발을 이 순간에 더욱 사무치게 느끼고있었다.

빛... 따스한 그 빛, 조선민족의 인생주자로 밝게 비쳐지는 그 빛은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의 빛발이었다.

경구, 격언

- 집에 늙은이가 있으면 보배보다 낫다
- 길을 떠날 때에는 늙은이와 의논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들에게서 새 소식을 들으라
- 늙은이들앞에선 말 말고 보기만 하라
- 늙은이말을 듣지 않으면 백번 손해본다
- 할아버지에 대한 평은 제가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라
- 사람 늙는것 걱정말고 마음 늙는것 걱정하라
- 늙은이를 존경하면 사람들은 너를 존경한다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과 더불어 우리 문학사에 뚜렷한 자국을 남긴 작가 천세봉. 그는 세상이 다 아는 이름난 소설가이다.

하지만 그가 소설가이며 시인이었다는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것이다.

편집부는 지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고원빨찌산에서 싸운 작가의 체험을 진실하게 담은 서정시 《승리의 노래》를 소개한다.

승리의 노래

천세봉

제1장 빨찌산이 있는 곳

우람한 산줄기가
꿈틀거리며 달려왔다
힘에 겨워 우뚝...
하늘찌르는 높은 산마루들
백두산에서 이까지 장장 수천리
힘차게 달려온 산악들이여 말하라-
이 땅 빨찌산의 피어린 이야기를

여기서는 동해가 구불구불 2백여리
골골이 흘러 합수된 수동골물줄기가
광광 바위에 부닥쳐 백옥이 된다
이 물을 따라가면
초록빛과도가 우르르 쿵
승리를 부르며 닥쳐오리라!

지금 산상에 올라
마을과 거리를 보라
여섯 면을 가진 나의 고향거리가 있는 곳
검은 도적떼 달려들어
모든것 불태운 채더미우로
한산한 겨울바람이 울고 가지 않는가...

애끓는 소리 아니...
어딘가 절통한 어머니의 음성같은 소리
오오 어려움을 이기는 강의한 목소리
산악도 등을 굽히고 그 소리 듣는다

캄캄한 밤 어두운 장막이 내렸나
휘- 이 산허리에는
바람이 불어 락엽이 날리고
골짜골짜에 숨쉬는 범들이
여기 번쩍 저기 번쩍
나무사이로 움직인다
휘-익 휘파람소리 무지개 어릴듯
어두운 골짜기에 섬광이 지나가며
천년이끼얹은 바위돌우에
호랑이 나타났다
밤이면 범 한쌍이 앉아 울었다는 범바위우에...
우뚝 일어난 그림자

그는 범이 아니라 빨찌산의 사나이다

은하수 맑게 흐르는 밤
별빛은 오늘 밤도 그 위치에서
분노의 서리빛 뿜어내린다
빨찌산사나이의 눈에도 별빛이 있어라!
앞을 향하여 노리는 푸른 별빛이 있어라!

제2장 불타는 고향

5년의 세월 로력과 창조로써
이룩한 행복의 삶
이때쯤이면 현물세달구지
고향앞 고개 넘으며 풍년가 부르리라

오오 어머니여 조국이여!
그러나 지금 비인 마을에
찬서리 하얗게 내리는 밤
어디서 오는가 빠져린 소리여!

어제 아침엔 마을앞 버드나무에
쇠투구를 쓴 도적 몇놈이
황소 두마리 목달아 잡았다
세포위원장 오동무네 소와 박로인네 소다
오늘 아침엔 소를 잡던 그 나무밑에
열다섯먹은 소년을 세웠다

《너 애비가 어디 갔어?》
《모른다》
《빨찌산에 무슨 연락했지?》
《모른다》
소년의 눈동자 놈의 얼굴을 노린다
어찌 말하랴 소년만이 아는 비밀이여늘
소년 그자신이 빨찌산이여늘
혀를 깨물어 붉은 피 삼키며
오히려 마음다지는 빨찌산소년이여!

곤봉이 내린다
굵은 곡괭이자루가 마구채비로

소년의 상박골이 우지곤 부러지고
 곤봉이 붉은 살점을 안고 또 한번
 후- 소년은 입에 물었던 더운 피를
 살인귀, 피에 주린 살인귀의 뺨쪽에
 살대같이 내뿜어버린다
 《에익 범의 자식 호랑이자식》
 살인귀 악을 쓰며 권총 틀어쥐고
 입술이 경련한다
 어린 배허벅에 겨는 평한 총구멍
 그래도 그래도 석상같이 서있는 소년...

꼭 감은 눈앞에
 눈에 익은 그 길이 보인다
 수동골 굽이굽이 휘돌아오르면
 공화국기발 나뭇기는
 해방지구 빨찌산이 있는 곳
 《오오, 아저씨들이여
 나는 어제 중대부에서 준 임무를
 다했습니다.》
 놈들이 못 듣게 그윽히 빨찌산에 전하는
 마지막소리

오오 열다섯해동안 밤에 밤마다
 어머니의 손이 어루만지던 어린 몸은
 소중한것 모두 조국에 바치고
 풀밭우에 영원히 눈감았구나...

불지른 박로인네 집
 도적이 총을 들고 포위했다
 거기 불과 연기 휩싸이는 방안을 보라!
 여섯식구 주렁주렁
 살장지른 문 두드리며 할키며
 열두 발길이 동동 구르며 뛰누나

《에익 빨갱이종자는 모조리 불에 태워라...》
 징그러운 살인귀의 조롱 웃음소리
 불꽃이 불기둥 물고 너울거린다
 와지곤 황 벽이 무너진 곳으로
 불덩이된 식구들이 달려나온다
 옷자락에 땀같이 휘감기는 불피리
 연기속에 엮드려 게발같은 열손가락이
 땅을 핏킨다 하늘을 건잡는다

높이 호곡하여 부르짖는 소리
 검은 연기속에 하늘을 찌르는데
 땅땅 총알이 엠완총알이
 우박같이 로인의 몸에 아이들의 몸에
 쏟아진다
 어찌 처참하다는 말로 그치랴...
 오오 누가 보는데 없는가?

해벌도 얼굴 가리고 구름속에 들었네

제3장 진격의 합성

눈이 내린다
 골짜기마다 락엽이 속삭이는 소리
 오늘 밤따라 수동골 물소리 길고 길어라
 우리 빨찌산의 참모부는 어느썸에서
 진격의 용도를 그리는고!

긴긴밤 수동골물굽이마다
 물레방아 바쁘게 도는 소리
 해방지구 농민들 밤새워 오곡 찢네
 단심의 손으로 현물세 찢네

골짜기마다 빨찌산의 범들이
 락엽과 더불어 이 밤을 숨쉬는데
 드디어 명령이 폭풍을 불러 일으켰다
 진격의 기발이
 하나는 북으로 하나는 남으로!
 쌍룡같이 동을 향하여 높이 올랐다

기발따라 비호같은 대렬
 금틀금틀 파도친 산상으로 골짜기로
 남쪽은 평넘어 회동벌로
 북쪽은 물을 끼고 룡망산아래로
 놈들의 거점을 앞뒤로 내찌르고 내닫는다
 위잉 눈내리던 하늘도 바람이 일었다
 별빛이 격분에 떨고 나무가지가 우네
 강물도 소리높이여 돌을 박차며 흐른다

분노의 진격이다
 앞으로 굳세게 앞으로
 단 한놈도 놓아버려선 안된다
 육박하여라! 불을 퍼부어라!
 오오 신음하던 어머니의 땅이
 이제 그리운 아들에게로 돌아오지 않는가!

어디에선가 신호의 포성이 울렸다
 도적떼 잠복한 어둠의 도시 한복판
 질탕한 술자리 도색의 꿈자리
 천불방맹이 휘긋고 벼락이 내린다
 쿠왕 쿠왕 쿠왕-

벌써 선봉이
 남은 향교재로
 북은 오리유정으로
 발구르며 달려든다
 원쑤의 아성에 벼락이 내린다
 《군청》, 《경찰서》, 《면소》...
 가슴에 울떡 왜적의 쓴 기억 돌는 이름들!
 한놈도 놓치지 말라
 어디에선가 또 한번 웨치는 소리
 탄알은 눈알같이 원쑤에게 정통으로

나는 붓을 더 높이 들었다

최정호

나의 감사를 받아다오

세월의 언덕넘어
저 멀리 흘러간 나의 병사시절
떠오르누나
저녁노을 비낀 대덕산마루에서
전술훈련 실참에 내가 읊은
그 소박한 자작시를 두고
그리고 기뻐하던 전우들의 얼굴이

들려오누나
봄잔디 푸르른 전호가에서
인민군신문에 난 나의 첫시를
중대병사들에게
소리높이 읊어주던 분대장의 그 열정의 목소리가

칼벼랑을 날아넘는 강행군길에서도
모닥불 타오르는 숙영지에서도
내가 쓴 시 한편한편은
조국수호자의 심장의 목소리였다

그것은 내가 틀어친

애국의 총검에 빛받치던 번개불이었고
병사가 걸어온 위훈의 먼길에
원췌격멸의 서리발을 날린
총폭탄의 메아리였다

오 빨간 령장을 단 나에게
바치는 삶과 땀, 피와 녀으로
시의 참된 의미를 깨우쳐준
병사시절의 전우들이여
그들은 오늘도
백발이 된 오늘도 그날의 그 모습으로
이 가슴에 시의 불꽃을 지펴주고있구나

나의 감사를 받아다오
홍안의 그 시절로부터
추억속에 문득문득 찾아와
조국을 위해 당을 위해
오늘도 나를 그 시절에 세워
붓대를 총대처럼 억세게 쥐게 하는
못 잊을 나의 화선병사시절 전우들이여

내 오늘 말하노라

우리 집 로친
밤새워 시를 쓰는 내앞에
차잔을 놓아주며
푸념했노라
이제는 손자들 손목이나 잡고 다니면서
편안히 지내라고

하지만
내가 쓴 가사가 노래로 울려퍼지던 그날에는
우리 집 로친 눈물이 글썽해서 자랑하더라
그 노래를 우리 령감이 지었다고

친구들도 감동이 되어 말하더라
그 령감 이제 보라구 하더니
정말 성공했다고

내 오늘 말하노라
심장으로 시를 쓰는 나이는
세월의 나이로 계산할수 없다고
조국위해 불타는 심장은
백발에도 그 열정 식지 않고
아름다운 생의 자욱을 남기게 된다고

뜻밖에 울린 전화종소리

사흘밤을 모대기며
쓰고 또 쓰는데도 잘 안되어
책상우에 붓을 놓고 창문을 열어젖히는데
찌르릉-
뜻밖에 울려오는 전화종소리

황진온천료양을 함께 갔던
굴진공시절의 그 친구
시가 저절로 터져나올걸세

덕천에서 전화를 걸어오네
겉걸한 그 목소리
이 가슴에 옛정을 불러오네

-여보게 동갑이
지금 총돌격으로
온 탄광이 불덩어리야
자네가 여기 오면
자네가 좋아하는 부루도

우리 집 터밭에 가득해

아무렴 그렇지
시아 탁상에서 나올수 없지
행장을 차리고 어서 떠나자
새로운 대고조로 들끓는 그곳
검은금 폭포쳐쏟아지는

시가 기다리는 탄전으로

이 가슴에 샘솟는 열정이여
로쇠를 모르는 청춘의 패기여
내 돌아올 때에는
큼직한 이 가방이
총탄같은 시편들로 무거우리

나는 붓을 더 높이 들었다

창밖에 용접의 불꽃 번뜩이는
이 깊은 밤
붓을 들고
다시금 가슴에 새겨안노라
오늘호 당보에 실린 그 소식을

보여오누나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쪽잠을 드시면서도
희천에서 김철로...
온 나라를 종횡무진하시는 장군님의 모습이

아 2012년!
천만가지 인민의 기쁨이 만발할
그 희망찬 래일을 향해
우리 장군님 걸으시는 강행군길이어

가자 나의 붓이여
장군님 가고가시는 그곳
강성대국건설대전의 섬광이 번쩍이는
대고조의 전투장
비약의 열풍이 일어번지는 격전장으로

진필이면 어떻게더냐
폭우가 쏟아져도 좋다
전선길을 이으시여 쉽없이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 강행군에 시의 행과 련을 맞추며
내 쓰고쓰리라
천만의 가슴에 불을 달 시를
천만의 발걸음에 나래돌힐 시를

우리 당의 동행자
크나큰 그 믿음 심장에 새기고
열정의 노래 투쟁의 노래
부르고 또 부르며
내 보무당당히 들어서리라
장군님 헌신의 자욱우에
우뚝 솟아오를 크나큰 집
강성대국 그 문패가 빛나는 집으로

오 나는 붓을 더 높이 들었다
격전장에 나선 옛 병사
혁명의 필봉을 총검마냥 틀어쥐고
내 목청껏 노래하리라
선군혁명승리의 찬가를!

우리엔 6.25가 있지 않는가

조광원

꽃피는 행복을
우리 마음껏 즐길 때
이해에도 너는 잊지 않고 오누나
6월 25일
못 잊을 일요일의 처절한 추억이여

저 대동강반엔 명절마다 축포성이 울리고
강변엔 웃음소리 높아가건만
어이하어 우리 심장은
6.25의 포성을 들어야 하는가

저 청춘남녀들
이 시각 생각하고있을가
바로 저런 웃음소리 높은 행복의 머리우에
6월의 검은 포화가 쏟아졌다는것을

우리 어찌 모르랴
온갖 행복의 꽃 피어나는
이 아름다운 강반에조차
어이하어 50년대 로병들은
포연스민 군복을 입고 나서는지

포성과 포연을 모르는 생활은
우리가 바라는 행복
허나 6.25를 잊고 산다면
그 행복이 어찌 우리의것이 되랴

오! 60년세월 오지 않았다고 하여
6.25는 간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날을 잊는 그 순간에
6.25의 포성은 포연을 이 땅에 몰아오리라

룡남산의 새 풍경

손정아

새 일과

강의의 하루도 저물어
석양은 집으로 가자 재촉하건만
나는 의례히
저기-
푸른 지붕밑으로 발길 돌린다
아직 집행하지 못한 새 일과가
나에게 있어

맑은 유리문 책 열고 들어서면
사랑의 수영장이
나를 품어안는다
그러면 다시금 온몸에 샘솟는
청춘의 열정이여

종구나
하루의 피로 다 가시며
학생들도 교원들도 떠들썩
장군님 마련해주신 우리의 새 일과

그이 선물로 안겨주신
수영복과 수영모자를
세상이 보란듯이 입고나선
그 모습들이 먼저 물결처럼 설레는 곳

목메이는 고마움
걸음걸음 감사를 드림이 없이
그 누가 저 보석주단을 밟을수 있으랴
그 사랑에 보답할 람구의 마음없인
저 맑은 물결우에 이 몸을 실을수 없으랴

우리는 은빛물결우에 세워주시고
장군님은 이 저녁도 강행군길 이어가시니
아 정녕
우리의 하루일과는
장군님 바치시는 헌신의 일과에서
행복으로 이어지는 사랑의 일과

우리의 하루일과 끝나는 시간에도
끝없이 이어지는 그이 하루여
오, 나는 이 저녁
래일의 새 일과를 드림없이 쫓다
그이의 야전시간에

발걸음을 맞춘다

그이께선 조국의 미래를
우리에게 맡겼거니
아 사랑의 바다우에서
조국의 래일이 밝아온다

조약대우에서

한걸음 두걸음...
조약대를 오른다
너는 바다와 하늘을 잇는 다리런가
아득도 하다
발아래 출렁이는 사랑의 물결
손들면 잡히리 저 푸른 하늘도

조약대!
우리 나래 억세여지는 곳
그래서 우리 장군님
오시여 다시 오시여
우뚝 세워주시지 않았더냐

저기 아래선
학급의 익살군 제대군인친구
온 수영장이 떠나갈듯
손나팔하고 웨치누나
-동문
시상대에 올라선것 같구만

그래그래 아무렴
이제 열리는
국제경기 그 시상대에도
내 먼저
서보는것 아닌가

우리 이렇게 하루에 수십번
하늘에서 바다로 난다
조약대우에서
하늘과 바다를 그리잡는
큰 심장들의 환희여

아, 조약대

우리 심장 커지는 곳
네우에서 우리 애국의 키를 자래우나니

우리 네우에서
수리개마냥 깃을 다듬고
이제 세계를 향해 날고
우리 조국을
우주의 정점으로 높이 올려세우리라

선생님의 웃음은...

아이참
아이되셨는가
선생님은!
물미끄럼대 지쳐내리며
두손 높이 드시니
바라보는 우리 마음 웃음집이 출렁출렁...

엄하신 모습에
익숙된 우리건만
귀한 자식 매로 키우는 심정으로
제자들에게 언제나
요구성을 높이신 선생님

희여지신 머리칼
파란 수영모에 묻어두시고
호탕하게 웃으시니
오, 물놀이장에 펼치는
행복의 물결침이어

그 웃음속에
과학의 바다를 헤가르는
새로운 열정이 샘솟고
세계를 향해 도약하는
탐구의 나래 퍼덕이다니

웃으시라 선생님이시여
온 세상이 들리우게
장군님사랑의 손길
행복의 물결우에서
나날이 되찾는 젊음이어
오, 수영장에 넘치는 그 웃음속에
우리의 래일이 밝게 웃어라

웃음포각

-선생님, 조심하십시오
-어이구 여긴 너무 깊구만
박사선생님이 나어린 녀학생에게서

수업을 배우네
때로 손 놓치면 깊은 물속에
꼬르륵도 하시며 ...
얼마나 좋아 까르르 터져나오는 웃음은
얼마나 좋아 스승을 제자로 만든 이 물결은...

X

해병으로 복무했다는 제대군인동지
구리빛팔뚝 쳐들며 웨치는 큰소리
-난 물우에선 쾌속정
물밑에선 잠수정이야!
이제 최첨단과학의 배도
운전대 척 쥐고앉아 소리치겠단다
-어험 다들 비켜서라
세계의 한복판 헤가르며
조선의 쾌속정 나간다 -

X

-난 돌덩이예요
-난 잠수함이야
-허참 난 뜨겠는지
가라앉겠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지 말구 뛰어들라구
사랑의 바다에선 몸도 마음도
절로 둥둥 뜬다니까!

룡남산에 파도가 인다

웃음과 노래만 넘치는 곳이라면
내 이렇게 쉬이
찾지 못하리

기쁨과 물결만 출렁이는 곳이라면
내 이렇게 자주
찾지 못하리
오, 사랑의 바다여

우리 키워가는 억센 힘에
조국의 래일이 담보되기에
우리 제집처럼
때없이 찾는 곳

조약대우에 척 올라서면
다 보인다 조국의 한끝까지
수풀처럼 일떠서는 발전소들
들이 미여지게 무르익는 낱알들이...

다 보인다 여기서
양어못을 가꾸는 처녀의 눈빛도
희한하게 펼쳐진 동해의 불야경도
아지가 부러지게 열리는 과일풍경도

조선을 더 잘 알라고
세계를 내려다보라고
우리 장군님
바로 여기 룡남산에
조약대를 높이 세워주셨거니

하여 우리
이 푸른 지붕밑에서 수영만을 배우던가
행복이 물결치는 소리에
우주의 북판에서 《광명성2》호가 날으는 소리
멀리 북변에서 쏟아지는 주체철과 비날론의
폭포소리
오, 듣지 못한다면
더는 룡남산의 아들딸이라 말할수 없으리

터치는 웃음소리에
CNC 바다의 동음소리
조국이 비약하는 소리에
심장의 호흡을 맞추지 못한다면
오, 선군시대 대학생이라
우리 어이 말하라

처절씩 -
파도가 인다
승고한 정신과 풍부한 지식으로
선군의 믿음직한 골간이 되라 하신
그 믿음의 파도가!

오, 파도가 안다
조국의 참다운 인재가 되어
조국을 빛내며 미래로 가자고
세계를 향하여 더 빨리 날으자고
맹세의 파도가 격랑을 일으킨다!

제비 온 봄날

동기춘

봄을 찾아
봄의 고향을 찾아
강남갔다 돌아온 제비
산천은 낮익건만
마을은 낯설어
너 그리도 스치여 날아도느냐

보금자리 틀고 새끼를 키우며
정들었던 그 처마
강남 떠날 때 하직한 산천은
예대로 푸른데
옛집의 처마는 어데로 갔노

장군님의 위대한 손길이 쓰다듬은
선군선경의 무릉도원
백학의 무리인양 줄지어앉은
새 문화주택은 모양도 하나 아름다움도 하나

오르며 감돌며
내리여 감돌며
놀란 제비 수고치 말라고
주인들이 마중하러 나오누나
해살창문 활짝 열어붙이고
손저어 하늘손님 모시누나

차마 서슴어
받침대 새하얀 보금자리
깃들 처마밑에 쉽게 날아들지 못하며
저들도 새집들이 경사에 감격한듯
제비제비 쌍쌍
빨래줄 잡고 목메여 우짖는 소리

어려움을 이기고
눈보라 찬 시련 이기고
장군님의 은덕으로 빛나오른
전설같은 제일강산 선경마을에
선군의 푸른 봄을 제비가 노래할제
주인들의 축축한 눈가에 어리는
은혜로운 어버이께 드리는 감사
봄의 훈향으로 뜨거운 강산이다

변하고 통성하라 산천이여
이 봄이 가고 또 가면
강성대국의 큰 대문 하늘높이 세우고
강남에서 몰아오는 제비를 불러들이리
그때면 놀라운 세상을 쌍날개에 싣고
제비야 강남천만리에 다시 날으며
바다를 건너거라 대륙을 지나거라
위대한 이 나라를 누리에 노래해다오



변창률

그림 김광석

《못 가겠다구? 또 그 소린가? 자네야 일하면서
도 직식스레 공부하여 기사까지 된 사람인데 작
업반기술원을 못하겠다는건 말이 안되지. 자네
혹시...》

최영식분조장은 사람의 마음속까지 꿰뚫어보는
듯한 눈길로 창현을 지켜보았다. 설참이 되어 양
수장앞 버드나무그늘이래 모여 땀을 들이고있던
분조원들도 숨을 죽였다. 고르롭게 돌아가는 양
수기소리와 수로로 쏟아져나가는 물소리만이 대
기중에 가득찬듯 했다.

《그런건 아니겠지요 뭐. 말은 바른대로 일싸
좋다 하구 떠나는 사람보다 이렇게 제 일터를 떠
나기 힘들어하는 사람이니 우리도 헤어지기가 서
운하군요. 관리위원회에서 사람을 바로 골랐다
고 모두 기뻐는 하면서도 한편으론 보내고싶지
않군요.》

젓을 다 먹인 애기를 보육원에게 넘겨주며 영
숙아주머니가 하는 말에 모두가 머리를 끄덕였
다.

영식아바이는 맨 뒤쪽에 앉은 춘실을 향해 느
슨한 눈길을 보냈다.

《춘실인 아마 창현이가 다른 작업반 기술원으
로 떠나가는게 싫은 모양이지? 아침부터 말 한마
디 없는걸 보니...》

춘실은 아무말없이 일어나 물바게쓰를 들고 샘
물터쪽으로 걸어갔다. 춘실의 뒤모습을 바라보던
창현의 형수가 시름겹게 되었다.

《사실 우리 별이 삼촌하고 춘실인 나때문에...
난 옆에서 보기가 참 딱해요. 둘사이 일은 별이
삼촌한테 달린것 같은데...》

모두의 눈길이 창현에게 쏠렸다. 창현은 이랑
을 지어놓은 강냉이밭쪽으로 눈길을 보냈다.

《아주머니도 참, 다 지나간 일을 가지고...》

창현의 말에 영식아바이가 반백의 머리를 설레
설레 저었다.

《지나간 일이 아니지. 사랑이라는건 그렇게 라
이타불처럼 컸다 죽었다 하는게 아니야. 헌신발
벗어내치듯 버리고도 녹이 편하면 그건 벌써 사
랑이 아니란 말일세.》

창현은 머리를 숙였다. 사랑? 그것이 참으로
사랑이었을가? 난생 처음 처녀앞에 사랑을 고백
하는것으로 하여 말까지 더듬거리던 자기, 심상
하고 쓰아한 표정으로 서있던 춘실이...

일터로 가는 분조원들을 바라보는 창현의 뇌리
속에서 어제날의 추억이 한장한장 번져지기 시작
했다.

춘실은 창현의 둘도 없는 딱친구인 용덕의 누
이동생이다. 창현은 철부지때부터 용덕이와 한송
이안의 밤알처럼 붙어다녔고 춘실이와도 간격없
이 지냈다.

손우로 셋이나 되는 오빠들 틈에서 자라서인지
춘실은 성격이 툭 터지고 시원시원했다. 늘씬한
키에 건강미가 넘치는 팔다리, 사람들을 마주 볼
때면 웃음부터 어리곤 하는 길둥근 얼굴과 활동
적인 머리모양새...

춘실은 중학교시절 학교체육소조의 봉구팀 주장
이였고 룽상종목에서도 기동선수였다. 농장에 나
와서는 군적인 경기에까지 출전하여 두각을 나타
냈다. 경기에서 우승하여 농장이 이름날 때마다
사람들은 전문체육단체에서 춘실이를 데려가지
않은것을 아쉬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여겼다. 춘실이가 경기장을 종횡무진으로 누비며
편속 득점할 때마다 관중들의 환성이 운동장을
들었다놓곤 하였다.

농장은 물론 이웃군에까지 이름이 알려진 춘실이었지만 창현에게는 여전히 용덕의 누이동생이었고 한분조에서 일하는 같은 농장원일 따름이었다.

창현이가 춘실을 이성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였던지... 결사람들이 룡절반, 진담절반으로 둘사이에 어떤 인연을 맺어줄라치면 오히려 창현이편에서 얼굴을 붉혔고 춘실은 《그럼 둘러리는 누가 실랴요?》하고 한수 더 뜨군 했다.

그러던 어느날, 한집에서 사는 둘째형수가 창현이에게 자기 친정이 있는 덕화리로 처녀 선보러가자고 하는 것이었다. 그곳 관리위원회 회계장인가 하는 집의 딸인데 가풍도 좋고 처녀가 안팎으로 나무랄데 없다는 것이었다. 그쪽에서는 이미 부모들이 어느틈에 창현을 보고갔는데 사람이 외모는 그닥 잘나지 못했어도 착실하고 똑똑하다고 여러 사람이 한결같이 칭찬하는 것이 제일 마음에 든다고 했다는 것이었다. 형과 어머니도 형수의 말대로 했으면 하는 의향이였다.

창현은 선뜻 대답을 못했다. 왜서인지 누구에게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했고 덕화리 처녀를 만나는 것이 의리를 저버리는 행동으로 여겨졌다. 그것이 다름아닌 춘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자 창현은 도리머리를 저었다.

《난 거기에 갈 생각이 없어요.》

《적은인 혹시 춘실을 맘에 둔게 아니예요?》

형수는 못미더운 얼굴로 창현을 마주보았다. 암만해도 시동생 쪽이 기울어보인다는 우려심이 그의 눈빛에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휴식일을 앞둔 날 저녁, 창현은 마음을 가다듬고 춘실을 만나볼 결심을 했다. 곱씹어 따져보아도 춘실이 다르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았다.

농장문화회관에서 열린 청년동맹회의는 어둡이 깃든지도 퍼그나 지나서야 끝났다.

현관문우에 켜진 환한 장식등빛이 웃고 떠들며 부산스레 헤어져가는 처녀, 총각들을 멀리까지 바래주고 있었다. 맨 먼저 회관을 나와 계단 한옆에 서있던 창현은 마감무렵에야 자기앞을 지나가는 춘실을 나직이 불렀다.

《춘실동무.》

춘실은 한순간 그 자리에 굳어졌다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제야 창현을 알아본 춘실은 다소 의아해하며 한자리에 그냥 서있었다. 늘 제 동생처럼 이에 저에 하던 사람이 갑자기 별스레 동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한 모양이었다.

창현은 얼어들 것 같은 입을 가까스로 눌러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다.

《좀 만나자구. 할말이 있어서 그래.》

《할말이요?!-》

춘실은 말꼬리를 길게 끌며 창현을 유심히 쳐다보았다. 남자의 키치고는 좀 작으련이지만 날과람있게 생긴 몸매에 만만치 않은 빛이 서려도

는 눈을 가진 창현의 거동은 여느때없이 주저하는 기색이었다. 그 어떤 힘에 쫓겨, 춘실이와 자기는 대상이 안된다고 여기는 형수의 태도에 대한 반발심이 아니, 춘실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 그를 떠민 것이었으나 말을 꺼내기도 전에 창현은 벌써 좋지 못한 결과를 예상하였다. 그런 예감이 왜서 드는 것인지...

《창현오빠, 난 지금 목이 말라 그러는데 얼른 집에 갔다 나올게요. 에- 목말라 죽겠네.》

말투는 천연스러우나 벌써 정상이 아닌 것이 알려졌다. 하긴 아무때나 가리지 않고 제집처럼 드나들며 심부름도 곧잘 시키고 어려운 부탁도 서슴없이 하던 자기가 새빠지게 따로 만나 무슨 할말이 있다고 하는 것부터가 정상궤도에서 벗어진 게 아닌가? 그러니 타는 목을 추기는 것이 분초를 다투는 생명지표이기에 한듯 급급히 서두르는 춘실이의 행동도 당연하다고 해야 할 것이었다.

춘실이네 집은 회관앞을 지나간 큰길을 건너 첫 마을에 있었다. 그 마을을 지나 나지막한 둔덕기슭 한굽이를 돌아서면 창현네가 사는 마을이었다.

발을 재게 놀리며 춘실은 자기 집쪽으로 걸어갔다.

한두마디로 끝날 말이 아니고 오빠와 어머니도 듣는 것을 원치 않는, 꼭 단둘이만 알아야 할 어떤 사연을 터놓으려는 것임을 춘실은 벌써 눈치챈 것 같았다.

대문을 소리없이 밀고 들어갔던 춘실은 인차 되돌아서 나왔다.

옷차림은 달린 옷 그대로인데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뒤축에서 철떡철떡 소리가 났다. 바쁜 길에 벗었던 신발을 끈을 매지 않은 채로 신었는지, 아니면 남이 보아도 레사로운 일로 허물없이 마주섰다는 인상을 강조하자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창현의 존재를 범상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그렇게라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하여튼 창현은 철떡거리는 그 소리에 어떤 불길한 징조가 묻어오는 것 같아 눈빛이 흐려졌다.

창현은 춘실이 가 가까이 오자 먼저 발길을 떼었다. 신발끄는 소리가 멎었다.

《어데 가요?》

《음, 저앞에 좀 가자구.》

《?...》

창현은 키다리 만수국과 난쟁이 금전화들이 무성하게 자란 길옆 꽃밭아래로 내려섰다. 춘실도 따라 내려서는데 그만에 신발 한짝이 벗어졌다. 밤인데다 꽃밭그늘밑이어서 신발이 어디에 튕굴었는지 보이지 않았다.

《에이 참, 속상해.》

《왜 그래?》

《아무것도 아니예요... 뭘 말하자고 그래요?》

춘실은 오른쪽발등우에 왼발을 올려놓고 서서

애써 몸의 균형을 유지했다.

《저… 다르게 아니구… 난 말이야… 난…》

창현은 한참 갑자리며 말을 더듬다가 불쑥 《난 춘실이 네가 마음에 드는데 넌 언제? 말하자는건 이거야.》 하고 너나들이하던 보통때의 말투로 단 꺼번에 말해버렸다.

춘실이앞에서 자신심을 잃고 주눅이 든 자기에 게 화가 났던것이다.

춘실은 아무 대답도 안했다. 왜 그런지 심장이 두근거리지도 않았고 별로 놀라움지도 않았다. 어느때인가는 그 누구와 사랑의 고백을 주고받는 가슴 울렁이는 시각이 반드시 오리라는것을 기대와 두려움속에 기다리기도 했건만 그 고백이 이렇듯 값없고 싱거울줄은 몰랐다. 창현이란 사람은 아무런 축적도 없이, 마치 지나가던 길손이 물 한그릇 청하듯, 언젠가 외가에 갔다가 밤을 가지고 오는 자기에게 《나도 밤 좀 먹자.》 하고 손을 내밀던것처럼 사랑의 고백도 그렇게 해버리는것 같았다.

적어도 사랑의 고백이라면 관현악의 절정과도 같이, 배구장에서의 순간강타와도 같이 온넛을 송 두리채 불태우는 감정의 불꽃이 튀어야만 할 거라고 상상해온 그였었다.

춘실은 어둠속에서 가벼운 웃음소리를 냈다.

《아유- 가슴 활랑거린다. 난 또 결의목표를 무엇으로 정했는가고 물어보려는줄 알고 혼났네.》

사랑의 고백을 예감해서가 아니라 다른 리유때문에 가슴을 조였다는 능청이었다.

《뭐? 목표?》

창현의 날카로운 눈길이 춘실이한테 화살같이 날아가 박혔다.

《오늘 회의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매 사람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그러니 … 내가 싫다는거지?》

창현은 엉뚱한 화제로 대답을 피하려는 춘실의 속심이 들여다보여 따져물었다.

《오빠도 참 한심하게 그러네. 난 아직 그런 생각을 해본적이 없어요 … 아이 속상해라, 신발 한짝이 어디 갔을가?》

《…》

창현은 아래입술을 피나게 깨물었다. 자기의 진정을 처녀는 너무도 값없이, 너무도 가볍게 차버리는것이 아닌가. 롱구장에서 공을 능숙하게 처리하듯이…

누군가가 전지불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걸어오고있었다. 전지불은 꽃발을 더듬기도 하고 멀리 앞길을 곧추 밝히는가 하면 밤하늘을 울리비치기도 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이 서있는 곳을 비칠지 알수 없었다.

창현은 온다간다 소리도 없이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춘실이가 어물거리는 사이 밝은 전지

불빛이 그의 눈을 시그럽게 했다.

《너 춘실이 아니야?》

목소리를 들으니 한분조에서 일하는 김명숙이었다. 시집가 첫애기를 낳아서 이제는 옥주엄마로 불리우는 명숙은 춘실이보다 나이가 서너살 우였다.

《거기서 뭘하니?》

《신발이 벗겨져서 그래요. 여길 좀 비쳐주세요.》

전지불빛으로 신발을 찾아신고나서 춘실은 명숙이에게 물었다.

《어딜 갔다와요?》

《응, 국수감을 말기러 갔댔어. 한테 넌 신발끈도 매지 않고 어딜 나다니니?》

《오빠가 심부름을 시켜서 급히 나오다나니…》

《그으래?》

명숙은 머리를 기웃하며 뻔히 마주보았다. 농장에서 급한 일이 제기되어 이동작업을 함께 떠난 영숙의 남편과 춘실의 오빠 용덕이가 래일이나 모레쯤 돌아올 예정이었던것이다. 뻔드름한 거짓말이었지만 명숙은 더 캐묻지 않고 지나가는 말처럼 한마디 했다.

《래일 창현인 덕화리에 선보러 간대. 둘째형수가 그러는데 혼사는 다된 혼사인 모양이더라.》

《…》

《우리 마을처녀들은 눈이 멀었어. 창현이같은 총각을 놓치다니… 하긴 형수가 너무 설레발을 친탓도 있지만…》

《…》

춘실은 그제서야 창현이 골목에 쫓긴 심정으로 자기를 만나러 했음을 깨달았다. 그러자 자기가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가슴을 훑어내렸다. 하면서도 춘실은 아닌보살하고 탄전을 부렸다.

《나같은거야 사람 가려보는 눈 하나 제대로 못배겼지요.》

명숙은 선협자의 눈으로 춘실의 속내까지 꿰뚫어본듯 깔깔 소리내어 웃었다.

《오- 그래? 좀더 높았으면, 좀더 훌룩했으면 좋겠는데… 그거겠지? 이제 두고봐. 창현이가 춘실이 너같은건 윈눈으로도 안보게 될걸.》

한테 춘실아, 너 진짜 창현이가 맘에 없니? 내가 오작교를 놓아줄가?》

너무나 급작스런 물음에 춘실은 흠칫 놀랐다. 방금전의 일을 명숙이가 혹시?…

《난 바빠서 빨리 가야겠어요.》

춘실은 얼른 돌아서서 집을 향해 종종걸음을 쳤다.…”

집에 돌아온 창현은 자리도 펴지 않고 누웠다. 식구들은 새로 나온 텔레비죤극을 보느라고 여념이 없었다. 방금전 춘실이한테서 당한 거절이 무수한 가시라도 삼킨것처럼 속을 아프게 찔렀다.

내가 그렇게 어리석었던가? 평소에 흉허물없는 사이였지만 우리 둘사이 그 이상을 더 넘으면 안된단 말인가? 내가 정말 춘실이에 비해 짝이 기우는것도 모르고 주제넘은 생각을 했단 말인가?...

느닷없이 지난해 여름철 풀베기때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날 창현은 남보다 두곱이나 되게 베어놓은 풀단을 바라보며 땀을 들이고있었다. 무슨 일에서나 앞서야 마음이 편해지는 승벽심은 꼭 부모들을 닮았다고 분조장아버이가 만족해서 칭찬하는 그의 일습씨였다.

점심참이 되자 창현은 벗어놓았던 옷가지와 작업도구들을 찾아들고 내려갈 차비를 서둘렀다. 이때 춘실이가 음식그릇이 든 보자기를 안고 잡관목을 헤치며 풀판으로 올라왔다.

《에- 늦는줄 알았네. ... 창현오빠의 점심은 여기 있어요. 힘든데 오르내릴것없이 여기서 식사하구 좀 쉬세요.》

춘실은 땀발이 내뿜은 이마를 손수건으로 훔쳤다. 춘실이가 헤쳐놓은 보자기에는 창현이 좋아하는 송편이 한소랭이나 되게 들어있었다. 보온물통에 담긴 뽕안 콩국에는 얼음조각들이 떠돌고 먹음직스러운 찬들이 담긴 그릇에서는 감미로운 냄새가 풍겼다.

《이건 웬거야?》

《우리 어머니가 보내는거예요. 요새 풀을 베어 끌어내리느라 땀을 많이 흘리구 밤에는 또 대학 공부까지 하느라구 얼마나 힘들겠는가고 하면서...》

《그래? 춘실이 어머니가 왜 갑자기 나에게 <아침> 하는걸까?...》

창현은 실눈을 지으며 머리를 기웃해보였다.

《글쎄요. 창현오빠가 마음에 들어 그거는거겠지요 뭐.》

《모를 소리다. 난 <아침> 할만한 존재가 못되는데...》

《그래도 우리 만오빠는 창현오빠에 대해서 대단하게 취율리던데요. 무슨 새로운 논밭관수체계 도입을 구상하고있다던지...》

춘실의 능청스런 대꾸에 창현은 얼굴을 붉혔다.

《대단하기까지야 뭐...》

《창현오빠, 그게 어떤거예요? 나도 좀 알자요.》

창현은 땀을 하나 집어 입안에 넣었다.

《난 그저 곡식의 생육단계에 따르는 논밭의 물공급을 자동적으로 진행하는 관수체계를 받아들이자는거야. 매 포전들에 땅속물기를 알려주는 수감장치를 설치하고 양수장에서 신호를 받아 필요한 량만큼 물을 공급해주는... 간단히 말해서 자동조종에 의한 관수를 해보자는거야. 남들은 우주에 위성을 쏘올리는데 밭관수같은거야 뭘.》

《그렇게 될수 있을까요? 포전마다 토양조건,

물대기조건도 각이한데 ... 그리구 그걸 실현하자면 많은것이 필요할텐데...》

춘실은 퍼그나 우려하는 표정이었다.

《그 말은 옳아. 진흙, 질메흙, 메흙, 모래메흙, 모래흙... 토양마다 빈틈물과 물기머무름결수가 다 다르지. 그에 따라 적심깊이도 각각이어야 하기때문에 말처럼 쉽지는 않을거야. 하지만 마음먹고 달라붙으면 불가능한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춘실은 창현의 꿈과 랑만에 취한듯 그의 얼굴에서 오래도록 눈길을 떼지 못했다.

《목표가 만리인 사람은 하루에 백리를 걷고도 성차하지 않지만 목표가 십리인 사람은 한시간을 걷고 주저앉는다지 않아요. 의지의 강자가 아니고는 마라손의 출발선에도 나서지 못하지요. 정신력의 달리기주로이니까요.》

오빠, 난 단거리선수이지만 창현오빠의 <마라손>은 도와줄수 있어요. 지치면 대신 뛰어줄수도 있단 말이에요. 호호...》

그때의 춘실은 얼마나 천진하고 선망에 넘쳐있었던가! 무르녹는 한여름의 향기가 숨가쁘도록 가슴에 스며들던 그날, 춘실의 자태는 창현의 넋을 장렬하게 흔들었다.

그런데 오늘의 춘실은 마치 창현의 모든것을 저울에 올려놓고 눈금을 들여다보는것 같았다. 그렇게 타산적이고 랑정한 처녀였던가?

언젠가 집집의 퇴적장에 쌓인 퇴비량을 실사할때 있었던 일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날 춘실이는 좀 늦게 나왔는데 허름한 포장지에 대충 몽그린것을 한열에 내려놓더니 결이대질을 걸싸게 해댔다. 작업이 끝나 모두 헤어져가는데 춘실이가 소리쳐 부르는것이였다.

《창현오빠, 이진 안가지고 가요?》

아까의 그 종이꾸레미를 가리켜보인 춘실은 결이대와 삽을 들러메더니 자기 집쪽으로 걸어갔다.

창현은 영문을 몰라하다가 그것을 헤쳐보았다. 포장지안에는 털실로 뜬 포근한 겨울장갑 두켢레가 들어있었다. 결보기에는 덜렁거리고 푸점없는 것같아도 그지없이 예민하고 섬세한 춘실의 성격처럼 막종이에 아무렇게나 쓴 그 장갑은 기계로 짠것처럼 정교하고 뽕시있었다...

날 보고 한심하다고? 그러면 이날 이때까지 나에게 보여준 은근하면서도 사심없는 친절이나 관심은 무엇을 의미하는것인가?

...《창현인 뉘집 사위가 되겠는지 그 집에는 복덩이가 넉쿨채로 굴러들었다고 할거야. 후치질하는 솜씨 하나만 좀 보지. 넘어진 강냉이대 하나 없고 놓친 풀대 한포기없이 꼭 그림처럼 해놓는다니까. 창현네집에서 해마다 많은 퇴비를 내는것도 다 창현이 뭉이라우. 일년내내 퇴비원천을 모아들여 꼭꼭 썰어서 김치독다지듯 구석구석 둘러가며 쌓아놓구는 진거름을 들부어 폭폭 썩

여내니 두엄에서 쌀밥냄새가 막 풍기지요. 이런 사람이 이제 대학공부까지 마치면야 그야말로 상작이지요.》...

제 아들 자랑하듯 성수가 나서 외우던 춘실이 어머니의 그 말이 한갓 위선이고 비양이었더라 말인가?

혹시 창현이 자기가 인생의 높은 목표에로의 마라손은커녕 단거리주조에조차 나서기를 포기하고 사랑의 약속에나 급급해난것 같아 환멸을 느낀것은 아닌지? ...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창현은 자기가 아직은 손대지 말아야 할 설익은 열매를 서둘러 다졌다는것을 쓰겁게 의식했다.

휴식한 다음날은 온 작업반이 달라붙어 솥돌보루등성이발에 고무마작 옮기는 일을 하였다. 창현네 분조에서는 집오래 퇴직장들에 보름어간에 쌓인 두엄을 말끔히 걷어내어 고무마발으로 운반해야 했다.

산기슭을 따라 문화주택들이 줄지어 늘어선 창현네 마을 앞길에서는 트랙터르런결차에 거름을 싣느라고 법석했다. 한해농사의 절반과 맞먹는다는 모내기도 끝났겠다, 쉬는 날 강가에 나가 밀렸던 빨래도 시원히 해치운데다 별식까지 해먹고 나온 아낙네들은 기운이 나서 왁작 떠들어대며 거름을 실었다. 창현이도 사람들속에 섞여 걸이대질을 하고있었다. 춘실은 들것을 들고 파놓은 퇴비들을 날라왔다.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웃기도 하고 통질도 하면서...

창현이 자기는 밤새 한잠도 못자고 번민에 시달렸는데 춘실이는 오히려 오늘 더 사기가 난듯했다.

창현은 거름무지에 걸이대를 푹푹 박았다가 한삼대기씩이나 되게 떠올린 퇴비를 련결차에 퐁퐁 올려던졌다. 그러던 찰나 푹- 하는 소리와 함께 걸이대자루가 부러져나갔다. 창현은 부러진 자루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집으로 들어갔다.

얼마쯤 시간이 흘러 걸이대자루를 새로 맞추어가지고 어느 집모퉁이를 돌아서던 그는 선자리에서 무뚝 굳어졌다.

분조원들의 복판에서 명숙이가 무슨 이야기판을 벌려놓고있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꺼드는 소리가 얼핏 들렸던것이다.

《...그래서 살금살금 다가가보니 글썽 창현적이야 아니겠어. 번쩍거리는 구두를 신고 제진 양복을 쪽 빼입었는데 새하얀 와이샤즈에 넥타이를 매고 반짝거리는 핀까지 꽂은게... 그렇게 멋있는 총각은 처음 봤다니까...》

때마침 들것을 들고 그곳에 나타난 춘실이가 명숙이쪽을 피득 일별해보았다. 그러거나말거나 명숙은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창현적은이가 처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하는 말이 <난 동무가 마음에 드는데 동문 내가 어떻

소?》 이러지 않겠어. 세상에 사랑고백을 그렇게 하는 법이 어데 있어. 난 꿈속에서도 얼마나 우습던지 자다가 뺨이 끊어질번 했다니까...》

처녀들이 웃음을 참느라 킁킁거리며 저희들끼리 마주보았다.

《처녀는 어떻게 생겼던가요? 혹시 나처럼 환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한 처녀가 자기 얼굴을 가리키며 끼어들었다.

《야야 너같은건 대상도 안돼. 혹 춘실이만큼 생겼다면 몰라두...》

목소가 터졌다. 명숙은 웃음이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이야기를 계속했다.

《처녀는 키가 크고 멀쑥한게 좀 싱겁게 생기긴 했어두 그만하면 괜찮아보이는데 창현적은이를 보고 뭐랬는가 하니 <아유- 가슴이 활랑거린다. 난 그런 생각 해본적도 없어요.》 이러지 않겠어?》

이야기가 사실과 근사하게 되어가는데도 춘실은 여전히 한본새로 거름을 나를뿐 아무 내색도 안했다. 창현의 둘째형수가 눈이 울롱해서 대들듯 다가섰다. 아무리 꿈이야기라고 해도 참지 못하겠는모양이었다.

《별 싱겁둥이 다 보겠네. 우리 별이 삼촌은 그래 가만 있었어요? 한대 콧 때려주고 말게지.》

《나도 막 뺨이 꼬여서 그 처녀를 따라가 팔소매를 콧 나꾸어줬지요 뭐. 그런데 글썽 돌아선 다음에 보니...오 춘실아, 네가 아니겠니?》

명숙이가 자기 뒤에 서있던 춘실의 어깨를 탁 치며 하는 말에 《와-》하고 비명비슷한 탄성이 터져올랐다. 춘실의 얼굴에 비웃음같은것이 스쳐지나갔다. 이어 빈 들것을 들고 돌아선 춘실의 입에서는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어제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거 꿈이 맞긴 맞나? 진짜가 이니야?》

《웬걸 진짜겠나. 창현이가 아무렴 그런 헛식은 노릇을 했을가?》

《그건 모르는 소리야. 새두 저 앓고픈 가지가 있다는데 정말루 마음에 두고있는지 누가 알아요? 좌우간 춘실이가 노래를 부르는걸 보니 이상하긴이상해. 저 앤 경기에서 진다든가, 속타는 일이 생기면 노랫 부른대요.》

옥주 엄마, 진짜 꿈이야기가 맞아요?》

쌍까풀진 눈을 반짝이며 자기에게 쏠린 사람들의 눈길을 휘돌려본 명숙이 입을 열었다.

《어느 총각이 어느 처녀를 맘에 두고있는지는 몰라도 내 꿈은 틀리는 법이 없어요. 이제 두고 보라요. 저 춘실이가 창현이 옆에 척 앉아서 큰 상을 받는 날이 꼭 오지 않나.》

근 30년을 분조장으로 일해오는 영식아바이가 결이대질을 멈추더니 끼어들었다.

《거 꿈도 신통하다. 처녀들은 원래 그렇게 달아나는걸 붙잡아야 하는 법이야.》

창현은 자신에 대한 수치감과 춘실에 대한 배신감으로 온몸의 피가 소용돌이를 일으키는듯 했다. 춘실이 아닌 그 누가 그 밤의 이야기를 알겠는가? 한없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그 감정을, 누가 볼세라 알세라 가슴속에 깊이 묻어두고 아끼는 순결한 그것을 그렇듯 희롱할수 있단말인가? 내 다시는, 다시는 그 누구한테도 사랑을 구걸하는 놀음은 하지 않을테다. 설사 일생을 홀로 산대도!...

총각의 심장속에 너무도 큰 상처를 남겨놓고 춘실의 존재는 창현의 관심속에서 빨리도 사라져 버렸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저녁의 일을 소문낸것은 탁아소보육원이었다.

새로 나온 소설책을 빌리려고 춘실이네 집으로 오다가 그들이 만나는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던것이다. 혼자만 알고있기에는 너무도 재미난 일이여서 아이를 맡기러 탁아소에 온 명숙에게 영화 이야기 들려주듯 자자구구 다 말했던것이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날 창현은 양수장옆 강녕이밭에서 부림소로 후치질을 하고있었다.

어린 강녕이포기들이 흙밭에 묻히세라 후치손잡이를 잡은 팔의 힘을 알맞추 조절하며 밭고랑을 따라가는데 멀지 않은 양수장앞에서 다투는듯한 말소리가 들려왔다. 얼핏 띄여보니 영식아바이와 분조물관리공이였다.

《아니, 젊은 놈이 오륙이 성성해가지고 양수장에나 앉아있으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야 경로동대상자나 나이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난 프락트르운전수양성소에 갈 사람이란 말입니다...》

창현이또래의 젊은 물관리공의 말에서는 자기는 앞으로 프락트르운전수가 되겠다는 암시가 강하게 울리고있었다. 원래의 양수기운전공이 얼마전에 군으로 소환되어갔는데 이미 물관리공에게 양수기운전공일을 맡기려던 모양이였다. 물관리공의 마음이 리해되어서인지 아바이는 대꾸를 더안했다.

창현은 엇그제까지 림시로 양수기운전공일을 대신했었다. 그때 보니 양수기운전공일은 물관리공이 말하듯 그렇게 한가한 일이 아니였다. 이 양수장은 담당한 관수면적이 농작적으로 제일 많았다. 그런데다 올해에는 레년에 없던 가물이 지속되는탓으로 요즈음 물량이 모자라 더 애를 먹였다. 흘러드는 물량도 작은데다 물주머니까지 작아 더 야단이었다. 림시로 하는 며칠사이에도 창현은 개울바닥을 쳐내고 물주머니로 물을 몰아들이느라 퍼그나 땀을 뻘뻘 흘렸다.

말없이 밭머리를 지나가는 영식아바이를 바라

보던 창현의 뇌리에는 내가 양수기운전공이 된다면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 새로운 논밭관수체제를 완성해보려는 꿈을 가진 자기가 양수장에 간다면 고기가 물을 만난셈일것이다. 하지만 마치 뛰뛰한 소문에 쫓겨 피신허가는것만 같아 선통나서게 되지 않았다.

창현은 점심때 손을 씻으려고 내가로 향하다가 양수장쪽과 잇달린 밭머리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무릎노리에도 채 닿지 못하는 강녕이포기들이 한낮의 더위에 생기를 잃고 시들어가고있었던것이다. 그전에 강이 흐르던 자리라고 하여 강트리라 부르는 포전인데 특별히 가물이 더 심했다.

같이충만 제끼면 알짜 모래와 자갈판이니 그럴수밖에 없었다.

창현은 퍽 어렸을적에도 부모들이 질통을 지고 여기에 흙깎이를 하는것을 많이 보아왔었다. 자기가 농장에 나온 후에도 프락트르로 진흙을 실어다 편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하지만 이곳은 언제나 가물피해를 입었다.

창현은 마치 자기가 갈증에 시달려 목이 타드는것같았다. 일이 가드라든 강녕이포기들이 자기를 쳐다보며 안타까이 하소하는듯싶었다.

왜 이제야 왔어요? 새로운 관수체제를 도입해서 영원히 가물을 모르는 농사를 짓겠다면서 우리를 왜 버려두나요? 어서 좀 살려주세요...

창현은 양수장에서 바게쓰를 들고 나와 물이 줄줄 흐르는 감탕을 퍼담아다가 시든 강녕이포기 밑에 덮어주었다. 물기가 닿자 강녕이포기들은 당장 생기를 띠며 기지개를 켜는듯 했다.

창현의 눈길은 저도 모르게 양수장건너편의 7작업반 강녕이밭에 가 멎었다. 기름진 그 땅에 뿌리내린 강녕이포기들은 하나같이 푸르청청한것이 이쪽에 비하면 하늘땅 차이였다.

창현에게는 마치 춘실이와 자기가 양수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선것처럼 생각되였다. 크고 실한 7반강녕이가 춘실이로 여겨졌던것이다. 이쪽을 깔보며 비웃는 소리가 바람결을 타고 들려오는듯싶었다.

(그래, 내 잘못이 많다. 하지만 걱정말아. 내 살점을 떼내고 뼈를 깎아 물어서라도 꼭 따라앞서게 해주마!)

창현은 점심먹을 생각도 잊고 감탕을 부지런히 퍼올렸다. 오후작업시간이 될 때까지 창현은 일손을 멈추지 않았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수침을 퍼들고 강트리포전의 토양빈틈들과 물기머무름결수를 산출해보니 다른 포전에 비해 몇곱이 넘는 막대한 물량이 필요되였다. 이런 땅에 관수를 한다는것자체가 밑빠진 독에 물붓기처럼 허망한 일로 생각될 지경이었다. 농작물의 생육조건에 맞는 토양구조를 만들어주는것이 급선무였다.

강트리처럼 물기보유능력이 매우 약한 포전과 반대로 지내 습기가 많은 팽습한 포전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새로운 관수체계를 도입한다 해도 의의가 없을것이다. 구체적인 현실조건에 기초하지 않고 공중루각을 세우겠다고 소문부터 낸 자가 스스로도 부끄럽기 그지없었다.

춘실은 벌써 이미전에 이것을 꿰뚫어본것이 아닐까. 그래서 나의 고백도 조소를 머금고 대한것이고... 새 기술을 개척하겠다는 내가 제 고향의 땅속내에는 무관심했다. 창현은 어리석은 자기를 채찍질하며 방도를 모색했다.

지금은 곡식이 자라는 때인것만큼 토지개량이 어려울것이다. 뿌리에 손상을 주지 않으면서 토지를 개량할수 없을까? 다음날 창현은 밭에 들어가 고랑을 삽으로 파보았다. 아니나다를까 같이 충밀에는 물에 일어 씻은듯 한 모래와 자갈층이 깔려있었다.

이 모래자갈층을 깊숙이 파내고 대신 늪바닥감탕흙을 채워준다면? ... 매 고랑이 아니라 한고랑씩 건너서 도랑식으로 관 다음 부식질이 풍부하면서도 점성이 좋은 감탕흙을 채워주면 강냉이뿌리에 손상을 주지 않고도 지금보다 훨씬 좋은 생육조건이 마련될것이다.

강냉이를 가을한 다음에는 번져놓았던 고랑도 마저 토양바꿈을 해주고 그우에 개바닥흙을 실어다 흙갈이를 두툼하게 하면 7반포전에 못지 않은 옥답이 될것이다.

파내고 메워야 할 토랑을 환산해보니 가물이 심한 면적만 일추잡아도 수백립방을 움직여야 했다. 그 엄청난 수자에 창현은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하지도 못할 일을 벌려놓았다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을까? 사랑의 방정식이 얼마나 복잡하고 오묘한지도 모르면서 서둘러 춘실을 건드렸다가 쓴맛을 본것처럼... 반대로 이번에는 얼마나 어려운 일감인지 잘 알면서 또 한번의 실책을 범한다면?...

그때의 모멸감이 애써 잊으려는 상처를 아프게 헤집는 순간 창현은 어금이를 짹 깨물었다. 나는 해낼수 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 한다! 처녀의 심장을 틀어잡는 재간은 비록 못가졌다해도 땀 흘리고 피흘리는 일이라면야 못해낼것이 무엇이 란말인가? 목숨을 바친다 한들 두려우랴. 그런 투지, 그런 배짱마저 없다면 나라는 인간은 이 땅에 살아 숨쉬기를 그만두어야 할것이다. 창현은 운명의 판가리장에 나선 심정이었다.

해질무렵 창현은 영식아바이를 찾아가 자기를 양수기운전공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자네가?...》

아바이는 한동안 창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자네 심정을 나두 모르진 않아! 하지만 지금은 그런 잔 감정에 쫓겨다닐 때가 아니야...》

아바이 역시 나를 그렇게밖에 보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에 서글픔이 차올랐다. 관리위원회는 물론 군급의 중견간부들속에도 이 분조장의 순탁에서 농사일을 배운 사람들이 많았다. 선량하면서도 대바르고 고지식하면서도 사람속내에 밝은 분조장아바이가 어찌먼?

《그러니 양수장으로 꼭 가겠단 말이지? 내 그러지 않아도 자네 생각을 했었는데 자네가 다른 생각을 가질것 같아 바제이던 참이야. 사실 양수장에는 지금 자네만한 책임자가 없지.》

아바이의 말에 창현은 가슴이 쩡하니 울려났다.

그처럼 속깊은 아바이를 잠시나마 달리 생각했던 자신이 험오스럽게 여겨졌다.

《곡식하구 물이 어떤 관계인지 자네는 잘 알지. 그래서 양수장일이 결코 험한 일이 아니라는것두... 한번 말은 일을 잘 해보라구. 사람의 마음속 상처를 씻어주고 철이 들게 하는데는 일보다 더 좋은 약이 없어...》

창현은 자기를 믿어주고 힘을 주는 아바이가 고마왔다. 그 믿음에 어긋나지 말아야 할텐데...

다음날부터 창현은 양수장에서 일하게 되었다.

물이 줄어들어 가늌이 퍼그나 드러난 물주머니며 수로, 양수설비와 공구에 이르기까지 인계가 끝나자 창현은 양수기의 스위치를 넣고 밖으로 나섰다. 수로가 뻗어간 한끝에 바라보이는 밭에서는 웃고 떠들며 김매기를 다그치는 농장원들의 모습이 안겨왔고 규격화된 논벌에서는 푸른 벼바다를 누비며 오가는 김매는 기계의 발동소리가 들려왔다. 아득히 펼쳐진 저 논과 밭의 곡식들을 푸르싱싱하게 자래워 알찬 열매를 맺게 해야 할 책임이 자기의 두어깨에 무겁게 실렸다고 생각하니 지금까지의 온갖 잡념이 사라지고 새로운 의욕이 솟구쳤다.

창현은 삽을 찾아들고 배출구에서 쏟아져나온 물이 넘실대며 흘러가는 수로부터 돌아보기 시작했다. 똑이 낮아진곳과 패인데는 흙을 떠다 보강해주었고 물속에서 너울거리는 잡풀을 말끔히 뜯어내기도 했다.

한낮이 기가와울무렵 창현은 수로의 물이 줄어든감이 들어 부리나케 양수장으로 달려갔다. 아니나다를까 물주머니의 물이 줄어들어 빈 양수기만 돌아가고있었다. 스위치를 끄고나와 물주머니를 내려다보니 거뭇한 바닥이 드러나있었다.

물이 팔려 이렇게 자주 양수기를 세워가지고서는 농사를 제대로 지을수 없다. 갈수기인 지금이야말로 양수기가 만가동해야 할 때가 아닌가.

안타까운 눈길로 물주머니바닥을 내려다보던 창현은 삽을 들고 감탕판에 들어섰다. 찰떡처럼 엉켜붙은 감탕을 두어삽깊이로 파내니 샘줄기를 터쳐놓은듯 물이 솟구쳤다. 이 넓은 바닥을 이 정도만 파낸다면 아니, 좀 더 깊이 파내면 양수기를 세우는 일이 없을것이다

점심때 집에 들어갔던 창현은 칩과 세면도구, 간단한 화식기재들과 필요한 도구들을 가지고 문밖을 나섰다. 창현이가 꾸려놓은 무거운 책배낭을 들어주며 둘째형수가 미안쩍게 말했다.

《내가 적은이를 곤경에 빠뜨린셈이 되었고요. 하지만 락심할건 없어요. 백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신심을 가지세요. 그런 일은 아흔아홉번 찍어보다가 손목을 놓아도 안돼요. 마지막 한번까지 찍어야 한단 말이에요.》

창현이 심드렁해서 쳐다보았다.

《춘실이 말이에요. 남자가 한번 마음을 먹었으면 끝장을 봐야지요. 알겠어요?》

창현은 저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다.

《난 백번이 아니라 단 한번에 넘어간대도 마주서기 싫어요. 춘실이건 누구건...》

《우리 적은인 역시... 아이구, 그러면 춘실이가 야단났구나. 속대우는걸 어떻게 봐줄까? 호호... 됐어요. 잔치준비는 내가 다 해놓을테니 신랑신부 2중창 부를 노래나 지금부터 잘 연습하세요.》

창현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돌아서고말았다.

그날부터 창현은 양수장에 붙어살다싶이했다.

무엇보다도 양수기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했다. 흘러가는 물을 말끔히 물주머니로 모아 들이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물이 차는 족족 퍼올렸다. 수로를 수시로 오가며 물허실을 극력 줄였다. 그리고 인수로와 논고를 일일이 밟으며 합리적인 물대기방법을 찾아내어 완성하느라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창현은 그 일이 끝나자 이번에는 물주머니바닥파내기에 달라붙었다. 양수장과 잇닿은 자갈밭의 발고랑을 도랑처럼 깊숙이 파내고 감탕흙을 저다가 그 자리를 메꾸었다. 그덕에 가물에 시들고 영강이 모자라 주점이 들었던 강냉이가 주변의 곡식들과 경쟁이라도 하듯 하루가 다르게 자라오르기 시작했다. 너무도 지쳐서 잠시 허리쉼을 하다가도 날이 갈수록 왕성해지는 강냉이포기들을 보면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샘솟곤 했다.

그 나날에 창현은 흙입관이 잠겨있는 집수정의 물이 한계점까지 줄어들면 전동기스위치가 저절로 꺼지고 물이 일정한 높이에 차오르면 자동적으로 전원이 투입되게 자동개폐기를 만들어 설치하였다. 그리고 양수장이 담당한 논밭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포전들의 토양구조와 물기머무름결수, 생육단계별로 필요한 물량을 따져보았다. 가장 리상적인 토양구조에 따라서자면 어떤 흙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밝힌 《포전별 토지개량계획도》를 만들기 시작했다.

어느날이었다. 양수장주변밭에서 강냉이밭김매기를 하던 분조원들이 오전 설참이 되자 떠들썩하며 물려들었다. 양수기운전공이 자기네와 함께 일하던 사람이어서인지 그들은 설참이면 여기로 찾아오곤 했다. 비가 오면 비를 그으러 오고 무

더우면 땀을 들이려 왔다. 집집승먹이풀을 뜯어 넣을 다래끼들을 맡겨놓기도 했다.

그들은 며칠사이에도 몰라보게 자란 주변의 강냉이밭과 바닥이 쑥 내려가게 깊어진 물주머니를 내려다보며 저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아, 그새 정말 일을 많이 했구만요. 얼굴이 많이 축갔어요. 총각이 일에 빠져 오작교생각은 아예 잊어버린게 아니예요?》

명숙이가 춘실이쪽을 슬쩍 띄어보며 말하자 영식아바이가 도리머리질을 했다.

《오작교야 칠월칠석날 하루밤에만 놓이는 다리인데 매일밤 생각할 필요야 없지. 그런것보다는 제손으로 오작교를 놓을 생각을 하는중이겠지. ...》

《?...》

창현은 분조원들속에 서있는 춘실의 존재를 거북하게 느끼며 의아쩍은 표정을 지었다.

《건우와 직너는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서서 까막까치들이 다리를 놓아주기를 기다린다면 사람은 제가 건너갈 다리는 제가 놓아야 한다 그 말일세. 총각이 그것도 모르는걸 보니 아직 멀었어....》

분조원들은 창현이쪽을 쳐다보며 웃음을 지었다. 창현은 얼굴이 벌개져서 슬며시 눈길을 돌렸다.

그럴즈음에 창현의 둘째형수가 양수장쪽우에 나타났다. 머리에는 큼직한 버치를 무겁게 이고 손에는 바게뜨를 들고있었다. 처녀들이 달려가 그것들을 받아왔다. 무더운 날 땀을 흘리는 분조원들에게 형수가 결두리를 내는 모양이었다.

새콤한 오이김치에 농마국수를 말아 시원하게 한그릇씩 비우고난 뒤 모두들 기분이 좋아서 오락 회를 하자고 떠들었다. 실실이 드리운 버드나무아지들도 가벼운 바람결에 제먼저 춤을 추며 분조원들의 노래를 재촉하는듯싶었다.

영식아바이가 먼저 일어서며 건드려진 노래가락을 뽑기 시작했다.

시집은 가 무엇하나요 처녀가 제일이지

나는나는 프락푼운전수 되기 전엔 안 갈래요 ...

시무룩해진 총각과 코대높은 처녀의 인상을 어찌나 방불하게 흉내내는지 모두들 허리가 끊어지게 웃었다.

《분조장네 로친네가 처녀때 프락포르를 땀다. 아마 그때 속을 무던히 태웠는가봐.》

아주머니들의 수군거리는 소리에 노래의 인기는 곱절로 올라갔다.

분조장의 노래가 끝나자 지명도 하기전에 명숙이가 앉은자리에서부터 《잘 생겼다 일 잘한다 소

문난 총각/색시감을 고른 숨씨 멋이로구나...》하고 선창을 하며 일어서자 키가 꺾드룩한 그의 남편이 따라일어서며 노래를 불렀다. 즐거운 웃음과 박수가 터지는속에 처녀들이 일어나 가벼운 물동을 섞어가며 《도시처녀 시집와요》를 멋들어지게 불렀다. 어찌된셈인지 부르는 노래마다 처녀총각의 사랑 아니면 결혼식날에 부르는 노래만이였다.

《다음은 독고창현동무와 최춘실동무가 혼성2중창을 부르겠습니다-》

명숙이가 춘실의 손목을 잡아 일으켜세우며 웨치자 《좋습니다-》하고 모두가 박수를 쳤다. 그제야 창현은 오늘의 오락회가 바로 이 순간을 노렸다는것을 깨달았다. 창현은 그 어떤 충동에 떠밀려 주저없이 일어났다. 하나같이 웃음이 실린 분조원들의 얼굴에서 호기심과 기대가 담긴 눈빛들이 반짝거렸다.

창현은 춘실이쪽을 얼핏 쳐다보고나서 입을 뗐다.

어제밤에도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벌써 몇달째 불었네 휘파람 휘파람
...

언제인가 명숙의 《꿈》이야기뒤끝에 춘실이가 부른 그 노래를 오늘은 창현이가 부르는것이였다. 사랑하는 처녀의 집앞을 지나며 총각이 때없이 부는 휘파람, 보고 또 봐도 그 모습 또 보고 싶어 처녀를 부르며 안타까이 부는 휘파람에 대하여 노래하고있었으나 양수장너머 먼곳을 바라보는 창현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그저 목청만 높았을뿐이였다. 춘실은 한마디도 따라부르지 못하고 입술을 감쳐물고섰다가 노래가 끝나기도전에 먼저 알아버렸다. 오락회는 자연히 흥이 꺾이고말았다.

일할 시간이 되어 사람들이 일터로 향한 다음 창현은 전동기의 점검을 마저 끝내려고 양수장안으로 들어갔다. 누군가가 등뒤에서 지켜보는 느낌이 들어 돌아보니 춘실이가 서있었다. 창현은 다시 돌아서서 스과나를 찾아쥐고 볼트를 조였다.

《창현오빠, 어제 저녁엔 왜 우리 집에 안왔어요? 모두들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춘실이가 따지듯 묻는 소리였다. 어머니의 생일이라고 용덕이가 알려주었을 때 창현은 일이 바쁘다고 듣기 좋게 얼버무렸었다. 여느때는 알려주지 않아도 알아도 한마리 들고 꼭꼭 찾아가곤 했다. 춘실이와의 그 일이 있는 뒤 창현은 한번도 그의 집에 발길을 하지 않았다. 용덕이와의 오랜 우정마저 식어지는듯싶어 스스로 자신을 타매하면서도 차마 발길이 나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 하나때문에 이제 모든걸 쫓겨했다는 소린가요? 양수기운전공일이 그렇게 바쁜가요?》

《...》

《방금전엔 또 뭐예요? 사람을 망신시키자는건가요? 놀리는건가 말이에요?》

창현은 가느스름한 눈을 치떴다.

《놀린다구? 도대체 누가 누굴 놀린다는거야? 잘못을 따진다면야 노래를 부르지 않은 사람이 온당치 못한것 아닌가 말이야?》

춘실은 젖어든 눈을 습벅이며 쏘아보았다.

《노래두 하필이면 그 노래를... 난 창현오빠가 그렇게 웅졸하고 시시한 남자인줄은 몰랐어요.》

춘실은 원망스럽게 뇌이고나서 책 돌아서더니 일터로 달려가버렸다.

창현은 춘실이가 남기고간 그 말, 시시하고 웅졸한 남자라는 말이 가슴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다. 뻥뻥하게 따져볼수록 자기자신으로서도 가책되는 점들이 없지 않았다. 춘실이와 무슨 일이 있었다 해도 용덕이나 그의 어머니에게까지 간격을 두어서는 안되는것이다. 방금전에 부른 노래도 그렇다. 자기의 의향을 받아들이지 않은 춘실이에 대한 원망으로 그리고 춘실이때문에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반발심으로 그 노래를 부른것이 아니었던 말인가? 마치 춘실이때문에 그 무엇을 억울하게 잃거나 한것처럼 처신한 자신이 용렬한 인간으로 여겨졌다. 춘실이가 오늘 얼마나 실망했을것인가...

해질무렵 영식아바이가 양수장에 들렀다. 하루 작업총화를 끝내고 들어가던참인것 같았다.

물주머니바닥에서 파낸 흙을 주변밭의 강냉이 포기밑에 묻어주는 창현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아바이는 호미를 쥐고 밭고랑에 들어섰다. 두툼한 입술을 꼭 다물고 묵묵히 일손만 놀리는 품으로 보아 그냥 지나칠수 없어 지체하는것이 아닌듯했다.

파울린 흙이 다 없어지자 아바이는 발머리에 오금을 꺾고앉았다. 그 어떤 힘에 끌려 창현이도 그 옆에 조심스레 앉았다. 어둠이 스며들기 시작한 강냉이밭에서 풀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반디불이 깜박거리며 머리위를 소리없이 날아다녔다.

《창현이 이 사람, 분조원들이 자네들을 놓고 왜 그렇듯 마음을 쓰는지 정말 모르겠나? 땅에 쏟아붓는 자네의 그 땀이 진정이라구 생각했기때문이야. 한데 이제보니 땅을 위해서라기보다 손상당한 자존심과 체면으로 인한 몸부림처럼 여겨진단말일세. 자네를 위해 기껏 애쓰는 사람들앞에서 오늘 그게 뭐냐? 어디 한번 말해보게...》

그러지 않아도 낮에 있었던 일이 아직까지 속에 걸려있던 창현은 숨소리마저 제대로 내지 못했다.

《...난 자네가 누가 뭐라든, 어떻게 보든 변심을 모르는 땅처럼 속이 넓구 깊은 사람이 되길 바라네. 무엇을 바라서가 아니라 참말로 땅의 귀중함을 알구 사랑을 바치는 그런 사람을 싫다고 할 처녀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

아바이는 호미자루를 짚고 몸을 일으키더니 마
을쪽으로 걸어갔다.

창현은 그 자리에 돌처럼 굳어져 움직일줄 몰
랐다. 그럼 내가 지금껏 흘린 땀이 진정이 아니
였단말인가? 그 어떤 리기적인 목적이나 타산이
있었단말인가? 아니다, 아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아바이앞에서 한마디의 항변도 못했는가?...

창현은 단지 춘실이와의 관계뿐아니라 지금까
지 자기의 생활에서 무엇인가 부족점이 많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뼈저린 고뇌의 심
연속에 빠져들었던 창현은 마음을 가다듬으며 일
어섰다.

다음날부터 창현은 매 포전의 시료를 떠다가
토지개량계획도에 반영된대로 필요한 흙을 섞은
다음 똑같은 량의 물을 붓고 해별에 증발되는 시
간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평균치보다 떨어지거나
앞서는것은 포전의 시료를 다시 떠다가 배합비를
를 달리 해보며 토지개량계획도를 수정해나갔다.

오랜 고심끝에 드디어 토지개량계획도를 완성
한 날 저녁 창현은 높은 령마루에라도 오른듯싶
었다. 아직은 종이장우의 리상에 불과했지만 알
곡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일수 있는 과학적인 담보
가 마련된 셈이다. 우선 강트리포전부터 시험해
보고 그다음엔 다른 포전으로 넘어갈 작정이었
다.

완성된 계획도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데 영식아
바이와 관리위원회 부원이 양수장에 함께 왔다.

부원은 양수장안팎을 돌아보고나서 자그마한
꽃밭옆의 긴의자에 창현을 앉히고 입을 열었다.

《창현동무, 이번에 농장에서선 로력혁신자들로
평양견학을 조직했소. 우리 분조에서는 동무를
보내기로 했소. 이틀후에 떠나니까 준비하오.》

영식아바이가 제일처럼 기뻐하며 말했다.

《우리 작업반에선 춘실이도 뽑혔네.》

창현은 머리를 수긏하고있다가 대꾸했다.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제가 뭘 한게 있
다.》

《또, 또... 그 하늘소발통같은 고집은 걷어치우
라구. 며칠간이라도 휴식을 해야지 사람이 견디
여내겠소? 평양에 가면 들려볼데도 많겠는데...
인민대학습당이랑 과학기술통보사에랑 이번 기회
에 가보면 좋지 않소?》

부원은 제사 등이 달아서 창현을 설복하였다.

《이렇게 벌려놓은 일을 팽개치구 어딜 간단 말
입니까? 그 며칠사이면 술한 일감을 치우겠는데
... 후에 또 기회가 생기면 그때 가겠습니다. 견
학도 하고 책들도 구해오고... 이번엔 딴 동무를
보내십시오.》

창현은 사정하사십시이 간청하였다.

《여기 일은 걱정말게. 양수기는 우리 분조 물
관리공이 립시로 맡아보게 했네. 그리구 저 발두
우리 분조 포전인데 이젠 우리가 맡아하겠네. 그
러니 걱정말구 갔다오라구.》

영식아바이가 언젠가처럼 창현을 타이르려 했
지만 창현은 요지부동이었다.

《분조장아바이, 과학자들이 실험할 때 막 자리
를 뜨는걸 보았습니까? 제가 하는 일도 그쯤 생
각하시고 더 권하지 말아주십시오.》

《하긴 자네 생각이 옳은지도 모르지. 한데 련
쇄반응이 일어나지 않을까?》

창현은 눈빛이 날카로와지며 반문했다.

《련쇄반응이라니요? 그건 무슨 소리니까?》

《허허 ... 나 혼자 하는 소리야.》

아바이는 아리송한 말을 남긴채 양수장을 떠났
다. 한동안 말없이 앉아있던 부원이 창현을 마주
보며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의논조로 말했다.

《아무래도 물량이 모자라서 물주머니를 이 자
갈밭쪽으로 넓혀야 할것 같소. 관리위원회에서
초보적으로 토론이 있었는데 동무가 하는것처럼
바닥도 가져내고 군에서 굴착기도 보내주겠다니
까 저 일은 적당히 마무리하오. 강냉이두 그만하
면 제구실을 하게 됐는데...》

창현은 실눈을 하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
을 열었다.

《물주머니를 더 넓힐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저도 좀 생각해보았는데 바닥을 현재
상태에서 두메터정도만 더 파내 물을 미리 푼푼
히 잡아두면 지금보다 더한 왕가물이 든다 해도
물량은 충분할것 같습니다.》

《바닥을 파낸다는게 간단치 않겠는데 ... 굴착
기가 저 가운데까지 꽤 들어갈까?》

《기계가 들어설수 없으면 등짐으로라도 퍼내야
지요. 무슨 일이든 마음먹기탓이라고 생각합니
다.》

부원은 큰 입을 꼭 다물고 새삼스러운 눈길로
창현을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창현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객기나 꾸며낸 겸손성 같은것은 티끌만
큼도 비껴있지 않았다. 너무나도 웅당한 일을 하
고있는 사람의 범상하고 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일
뿐이었다.

《그러니 더 논할 필요도 없다 그 소리구만. 관
리위원회에서 다시 토론해보자고 했으니까 동무
의 의견을 그대로 제기하겠소. 그래, 평양견학은
정말 양보할셈이요? 오늘 밤에라도 잘 생각해보
오, 래일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부원은 어쩐지 밝지 못한 기분이 되어 양수장
을 떠났다. 일껏 창현을 좋게 해주려고 원심을
썼는데 본인의 반대에 부딪친데다가 어쩔수없이
창현의 뜻을 따르지 않을수 없게 되어 이렇게 저
렇게 마음이 개운치 못했던 모양이었다.

그날 밤 창현은 달빛이 어롱대는 물길을 바라
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제라도 평양견학을 가겠
다고 말할까? 며칠 머무르는 사이에도 정이 들어
떠나고싶지 않은 평양, 발목이 시도록 거닐고싶
은 평양거리, 북북 또 보아도 처음 보는 마음이

되어 자꾸만 가고싶은 평양, 과학원이며 대학습당에 들러 새 기술도서도 보고 극장과 영화관에서 새 영화와 예술공연도 보고... 자기가 공연한 객기를 부리지 않았는가 하는 후회감마저 들었다.

앞벌쪽에서 서느러이 불어오는 바람결이 달아오른 이마를 식혀주었다. 강냉이잎새들이 설렁거리는 소리가 창현의 마음속에 애뜻한 정을 불러일으켰다. 마치 피를 나누고 숨결을 같이 한 살붙이처럼...

...우리가 영원히 가물을 모르고 푸르싱싱하게 자라도록 해주겠다던 약속은 벌써 잊었나요? 우린 아직 뿌리의 절반을 가문 땅에 박고있어요...

창현은 큰숨을 내쉬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 내 순간이나마 그 약속을 저버릴번했구나. 이 땅을 기쁨지게 가꾸어 오곡백과 주렁지게 하는것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이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여 강성대국으로 진군해가는 내 조국에 보탬을 주는 길이 아니겠니? 내 기어이 제일가는 옥답으로 만들어놓고야말테니 너희들은 해마다 풍성한 열매가 주렁지게 해다오.)

창현은 외등을 환하게 켜놓고 다시 사을 집어들었다.

다음날 평양전학 떠나는 사람들이 역으로 향할 때 창현은 여전히 감탕투성이가 되어 일하고있었다.

한여름의 해별이 따갑게 내려지지기 시작하자 창현은 전동기도 식힐겸 양수장안에 들어가 양수기점검을 시작했다. 뜯어보고 맞추고 기름을 주고 닦고 하면서 부지런히 일손을 놀리는데 열어놓은 문밖에서 급히 다가오는 인적기가 들려왔다.

얼굴을 들어 밖을 내다본 창현은 금시 눈빛이 달라졌다. 밖에는 춘실이 서있었던것이다.

한쪽어깨에는 배가 불룩한 러행용멜가방끈이 걸쳐져있고 다른 손에는 크지 않은 지함같은것을 짊어 보자기가 들려있었다.

지금쯤 평양행 열차를 기다리며 역전공원의 나무그늘아래 앉아있을줄 알았는데 여기엔 뭣하러?...

춘실은 가방과 보자기를 의자우에 털썩털썩 내려놓았다. 아무렇게나 구겨진 손수건으로 땀뻘은 이마의 머리카락을 옆으로 쓸어올리고나서 창현에게 눈길을 던졌다. 몹시 흥분한 표정이였다.

창현은 춘실의 일거일동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긴 왜 왔어? 차시간두 다되었겠는데...》

너무나 스스럼없는 그 어조에 춘실은 당황해져서 미처 할말을 찾지 못했다. 마치 힘껏 달려오다가 갑자기 나타난 장벽에 부딪친것만 같았다.

한참후에야 자신을 수습한 춘실은 머리를 흔들고나서 눈길을 곧추 들었다.

《저때문에 오빠가 전학을 그만두었다고들 하는

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당장 떠나세요. 난 안가겠어요. 준비는 이것들을 그냥 가지고 가면 돼요. 집에 가서 옷만 갈아입고 곧장 떠나면 차시간전에 가닿을거예요. 어서 떠나세요.》

춘실의 말은 거의 명령조였다.

창현은 기름결레로 공구들을 칸칸히 닦으며 조용히 응수했다.

《그때문에 달리기를 했나? 괜한 걸음을 했구만. 내가 뭐 철없는 아이라구 누가 가면 난 안가구 말구 하겠어? 난 내 일때문에 못떠나는거야. 어서 떠나라구, 쓸데없는데 마음쓰지 말구... 내 그러지 않아도 춘실을 한번 만나보려던 참이었는데... 그새 마음고생이 많았지? 나때문에 안 들을 소리도 많이 듣고...》

춘실의 두눈에 눈물이 그렇하니 고여갔다. 창현은 양수장벽에 걸어놓은 옷옷주머니를 더듬었다.

《내겐 이것밖에 없군만. 얼마 안되는데 견학기간 보태쓰라구.》

창현이가 멜가방안에 돈을 넣어주자 춘실은 줄지에 얼굴을 싸쥐며 돌아섰다.

《그러니까 이제 나와 아무 상관도 없다는거지요? 가졌으면 가고 말졌으면 말고...》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왜 상관없겠어? 내 친구 용덕이의 누이동생이구 같은 본조에서 몇해동안 함께 일해온 사이인데... 자자, 그러지 말구 어서 가, 차시간 놓친다는데.》

창현은 양수기스위치를 넣었다. 썩- 하고 물이 솟구쳐오르자 한켠구석에 벗어놓았던 장화를 신었다. 춘실이와 서있는 사이에도 창현은 한순간의 헛눈팔새없이 자기 일에 전념하였다.

춘실은 의자우의 가방이며 보자기를 들었다가 팽개치듯 도로 놓았다. 그 어떤 자극적인 말이나 행동에도 마치 숨버선우를 굶은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것이 참을수 없이 분했던것이다.

《가라지 않아도 가겠어요, 가겠단 말이에요. 알만 봐야 오랜 바보야...》

춘실은 얼굴을 싸권채 이렇게 부르짖고나서 반달음을 놓았다. 자기의 존재가 창현의 가슴에서 이미 자취없이 사라졌음을 아프게 의식하면서...

창현은 멀어져가는 춘실의 뒤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도 놀랍게 생각되였다. 춘실이로 하여 수치와 울분속에 몸부림치던 나날들이 아득한 절벽밑에 놓인듯 내려다보는 자신을 발견했던것이였다.

누군가는 사람의 감정처럼 미련이 강하고 검질긴것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왜서 나에게는 아무런 미련도 남지 않은것인가? 내가 춘실이에 대해 품었던 감정이 실상은 사랑이 아니었었던말인가? 창현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흔들었다. 명백한것은 사랑이라 이름하는 그 감정은 입밖에 내어 고백한다고 하여 이루어지는것도 아니며 청춘남녀라면 누구나 그 무슨 소지품처럼 의례

히 지니고다니는 그런것일수 없다는것이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생명의 원동력이 되어 순간도 쉬임없이 박동을 멈추지 않는 심장처럼 사람은 바로 자기를 바쳐 또 하나의 자기를 얻는 부단한 헌신과 아름다운 창조의 샘이 아닐까.

창현은 춘실을 향해 웨치고싶었다. 너와 나의 가슴속에 그런 샘, 그런 심장이 없다면 우리는 백년을 같이 산대도 사랑했다고 말할수 없으리라 고...

평양행렬차의 기적소리가 깊은 여운을 남기며 푸른 벌 아득히 펼쳐진 지평선으로 울려갔다...

몇달이 지나 가을걷이가 끝나자 농장에서는 창현이가 내놓은 안대로 물주머니바닥을 푹 내리파 내고 양수장을 네모반듯하게 정리하였다. 물이 모자라 양수기를 세우는 일이 더는 없게 되었다.

둘레에는 돌을 날라다 장석을 입혔고 내물이 흘러드는 취입구에는 수문을 설치하여 모래나 감탕이 밀려들어 바닥이 높아지는것을 막을수 있게 해놓았다.

양수장정리가 끝난 날 저녁 영식아바이는 취한 듯한 표정으로 양수장주변을 거닐었다.

《이 강트리의 자갈밭을 그냥 넘겨주게 되는것 같아 늘 속이 편안치 못했는데 한시를 놓이네. ...아이들이 어머니의 좋지 못한 버릇까지 죄다 따라배우는것처럼 젊은 사람들도 땅을 그렇게 다루는버릇이 불을가봐 근심스러웠네...자데두 이젠 새로운 관수체제도입에 전심하라구.》

창현은 아바이와 함께 걸으며 언제부터 생각해 온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았다.

《본조장아바이, 새 관수체제도입도 중요하지만 전 우선 우리가 가꾸는 모든 포전의 토양구조와 영양조건을 농작물이 자라는데 리상적인 상태로 되게 해주며 유기농법을 받아들여 지력을 최대한으로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종자혁명도 두벌농사, 세벌농사도 마음먹은대로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더 잘 관철하자고 앞선 농장들에서 경쟁을 호소했는데 전 얼마든지 그들을 따라잡을수 있다고 봅니다. 지력을 높이기만 하면 문제없습니다.》

영식아바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믿음어린 눈길로 창현을 이윽도록 지켜보았다.

《그래서 전 이 양수장이 담당한 모든 논과 밭의 토양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그에 따르는 토지개량계획도 세워보았습니다. 할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해내기전에는 새 관수체제를 도입해도 은을 낼수 없다고 봅니다.》

마디마디에 씨가 박힌 창현의 말을 들으며 아바이는 만족하게 웃었다.

《이제보니 자넨 이 땅과 정분이 나서 푹 빠져 들었구만. 땅과 함께 한생을 보낸 내가 다 시샘이 날 정도라니까. 허허... 자넨 이 양수장에다 참 멋있는 오작교를 놓았어. 머지않아 직너가 꼭

찾아올걸세.》

들뜬듯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아바이에게 창현은 조용히 대답했다.

《아바이두 참... 전 그런 생각을 잊어버린지가 오래입니다.》

《그래? 아직 때가 안됐다 그 말인가? 하, 너무 오래 익는것 같다 - 이젠 마가울도 다 왔는데...》

아바이의 혼자소리에는 진정 근심이 비껴있었다....

새해에 접어들자 창현은 양수장에서 멀지 않은 내가의 합수목에서 두터운 얼음을 깨내고 개바닥흙을 파내어 물밖에 무쳐놓았다. 양수장주변밭들에 더 날라다 퍼줄 생각에서였다. 씨불임계절이 오기전에 필요한 량을 전부 파내놓으려고 추운 날씨에도 합수목으로 나가곤 했다.

양지쪽의 목은 풀검불속에 숨어있던 새싹들이 용감하게 머리를 내미는가싶더니 끄떡없을것 같던 얼음이 푸석푸석해졌다. 봄이 다시 온것이다.

그럴수록 창현은 마음이 조급해져서 합수목의 개바닥흙을 부지런히 날라다 강트리에 퍼는 일을 다그쳐댔다. 겨울동안에 파내놓은 개바닥흙이 거의 바닥나게 되어가던 어느날 점심참이 다 지나서 관리위원회 부원이 동쪽에 나타났다. 자전거를 세워놓고 창현에게 다가오는 그의 얼굴빛은 그닥 밝지 못했다. 그는 창현을 알세우고 양수장 안팎을 돌아보고나서 한숨을 쉬더니 입을 열었다.

《관리위원회에서 자넨 3반기술원으로 보낼 결심인데 어떻느냐고 나에게 묻기에 찬성했네. 사실 내놓고싶진 않지만 어찌겠나? 농장리익의 견지에서 생각해야지. ... 인계할 준비를 잘 해두라구. 또 고집부릴 생각은 말구...》

부원은 갔으나 창현은 선자리에 못박힌듯 굳어져있었다. 내가 여길 떠나야 한다고? 인계할 준비를 하라고?...

창현은 어린애처럼 세차게 도리질을 했다. 안돼!... 못가! ... 하면서도 기필코 떠나야만 되리라는 예감이 속이 허전해지고 쓸쓸해지기까지 했다. 이 강트리에서 땀이 꺼지게 실한 열매를 거두는것을 꼭 보고싶었다. 동쪽너머 7반포전보다 앞서게 하고싶었는데... 올해에 강트리포전만이라도 새 관수체제를 도입해보려 했는데... 이제 내가 떠나면 강트리의 포전들과 곡식들이 얼마나 섭섭해하랴. 마치 피와 숨결을 가진것처럼만 생각되는 그 모든것들과 헤어지자니 눈물조차 쏟아져나올듯 했다.

그날저녁 창현은 관리위원장의 부름을 받았으나 대답을 할수 없었다. 한두마디로 표현할수 없는것이 가슴에 콕 차서 그저 묵묵히 서있기만 했다....

인계를 앞둔 날 저녁 창현은 양수장으로 나갔

다. 래일부터 강냉이영양단지 옮겨심기를 하겠다고 했으니 남아있는 개바닥흙을 마저 날라다 밭에 펴야 했던것이다. 창현은 양수장에서 질통을 가지고 나와 합수목으로 갔다.

묵직한 질통을 지고 동쪽경사면을 툭아올라는데 밭쪽에서 난데없는 인기척이 났다. 어스름한 별빛속에 질통을 지고 다가오다가 문득 멈춰서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창현은 그가 춘실임을 룡감으로 느꼈지만 군소리없이 지나쳤다.

춘실은 잠시 머뭇거리는듯 하다가 강바닥으로 내려갔다. 창현이가 흙을 쏟아놓고 동쪽을 올라섰다. 내려서고 올라오고... 둘은 승벽내기라도 하듯 말 한마디 없이 오르내리기만 거듭했다. 그 어떤 이름못할 충동에 떠밀려 정신없이 흙을 퍼담아지고 달리다싶이 해서인지 온몸이 땀에 젖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헌데 가슴속심장은 왜 이리도 안정을 잃고 놀뛰기만 하는가? 마음은 왜 이리도 견잡을수 없이 설레이는가? 눈비에 젖고 바람에 불려 이제는 아무것도 남은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채무지속에 아직도 사랑이라는 불씨가 살아있었던 말인가?

창현은 부정하듯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동쪽으로 다가섰다.

춘실은 흙짐을 지고 동쪽의 경사면으로 올라서려는 참이었다. 밤새 내린 이슬때문인지 미끄러워진 경사면에 간신히 발을 붙인 춘실은 자기앞을 지나치려는 창현을 향해 불현듯 팔을 내밀었다. 좀 잡아당겨달라는 소리같았다. 창현은 못 본듯이 그냥 밀로 내려서다가 돌아서서 춘실의 질통을 뒤에서 떠밀었다. 그러자 춘실은 버티고서서 온몸을 흔들며했다. 그 서슬에 떨어진 흙덩어리들이 창현의 발등을 때렸다.

《도대체 어쩌라는거야?》

창현은 저도 모르게 큰소리를 내질렀다.

《앞에서 끌어당겨달란 말이예요.》

춘실은 기운이 진한 목소리로 힘겹게 소리쳤다.

그 목소리에는 거절할수 없는, 외면하지 못할 그 무엇이 강하게 울리고있었다.

할수없이 다시 올라온 창현은 춘실의 팔을 잡아 끄당겨올렸다. 천근만근으로 무겁게 실리는 중량감, 더운 숨결이 뛰는 손의 감각을 느끼며 창현은 입술을 짹 깨물었다.

《흥, 래일 해뜨기 전에 또 소문이 나게 됐군! 돌이서 손을 잡고 어쩌어찌했다고...》

저도 모르게 심사가 비틀어진 소리가 튀어나갔다.

그 소리에 춘실은 서있을 기력마저 잃어버렸는지 질통을 진채로 동쪽우에 털썩 주저앉았다. 미구하여 흑- 울음소리가 터졌다.

《누가 오라고 했기에 여기 와서 이 모양이야?》

자제하려 할수록 더욱더 모진 소리만 뱉게 되

었다.

춘실의 흐느낌소리가 한층 더 커졌다.

《그럼 난 어디 가란 말이예요? 집에선 오빠들 이랑 어머니랑 네 가고싶은데로 썩 사라지라고 내모는데 오빠까지 그러면 난 어떡하랴요? 오빠가 날 여기로 끌어내지 않았나 말이예요!》

《뭐? 내가? ... 하참... 글썄 이렇다니까...》

창현은 억이 막혀 더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 사이 다 사라진줄 알았던 모란 말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어 저마다 먼저 뛰쳐나가려고 소동이라도 일으키는듯 갈피를 잡을수 없었다.

《난... 반했어요. 그 심장과 정신력에 반했어요. 그래서 왔어요.》

창현은 너무도 뜻밖의 말에, 진정을 고백하는 처녀의 부르짖음에 그만 온몸이 얼어붙고말았다.

《영식아바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딛고 사는 이 땅에 온넛을 깡그리 바칠줄 아는 사람의 사랑은 진짜배기라고... 순금같이 변함이 없을거라고 했어요. 난... 난 그걸 믿어요. 오늘처럼 앞에서 이끌어주세요.》

창현의 가슴은 터질듯 한 격정에 휩싸였다. 말은 일을 더 잘하려고, 이 땅을 기름진 옥답으로 가꾸려고 자기를 잊고 살아온 그 나날들이 그렇듯 참되고 값높은 사랑이었단말인가! 하다면 그것은 정녕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시대와 인민에게, 또한 그리도 사랑하고싶었던 한 처녀에게 바치는 가장 순결한 사랑이다.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소중한 사랑이다!...

춘실이가 쏟아놓은 눈물의 고백은 그대로 불씨가 되어 창현의 넛을 태우는 불길을 지퍼올렸다.

《나같은건 외면해도 좋고 버려도 좋아요. 하지만 자기의 앞날까지도 포기하진 말아요. 3반기술원으로 가야 해요! 그것이 더 큰 사랑을 바치는 길이라는걸 왜 모르는가 말이예요!》

《여길 여길 ... 어떻게 떠나? 난... 난...》

창현은 목이 꼭 잠겨들고말았다.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두볼을 적시며 흘러내렸다....

별빛이 흐르는 저 앞수로뚝을 따라 여러 사람이 말을 주고받으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질통이며 삽 같은것들이 부딪치는 소리로 보아 그들도 여기로 오는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말이야, 춘실이는 총각의 발밑에 어푸러져 눈물을 흘리며 웨치더라니까. <난 동물 사랑해요. 이 땅에 인생의 사랑 첫 자옥을 먼저 찍을줄 아는 그런 사람을 난 기다려왔어요.>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총각이 <춘실동무!> 하고 억세게 그러안았지 뭐. 그런데 글썄 그 총각이 창현적은이가 아니겠어.》

고요한 밤대기속에 거침없이 울려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역시 명숙이었다.

《또, 또 허튼소리... 무슨 망측한 소문을 다시

청춘과 사랑과 바다

김형준

처녀는 양식공
총각은 농장원
한우물 마시며 자라선가
품은 생각도 우물처럼 깊었네
마음도 샘처럼 티없이 맑았네

처녀는 바다를 사랑하였네
이름도 해연!
날뛰는 파도 이랑처럼 놀러왔으며
태장줄 오리오리에
미역가득 조개가득 심어가꾸고

총각도 고향벌을 사랑하였네
이름은 금파!
고향벌에 설레이는 황금파도를
수평선 끝까지 펼쳐놓고
해연을 《황금새》로 만들고싶었네

바다는 사철 풍어의 바다였네
봄에는 미역 다시마
여름에는 조개, 섭, 해삼
가을엔 사돌 겨울엔 덩장...
배전가득 넘쳐나는 풍어의 노래 사랑의 노래

벌도 언제나 풍작이었네
봄에는 땀이 석자들리게
앞그루 감자풍년
가을엔 황금파도 두령을 넘어
바다기슭에 출렁 사랑도 출렁!

비라도 풍년 벌도 풍년
과일도 풍년 마음도 풍년

하늘의 별마저 풍년든 가을밤
해연과 금파 소원을 속삭였네

-해연이 난 말이야
저 바다 수평선끝까지
황금바다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고향엔
풍년새의 노래도 풍년들게 말이야...

-금파동무 나도 그래요
동무의 황금바다 끝난 곳에서
나의 푸른 바다는 더 멀리 펼쳐질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향 사계절은
풍어의 노래 황금벌의 노래가 풍년들게!...

아, 얼마나 좋은가
어버이장군님 사랑속에서
청춘의 리상이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여!
별마저 풍년들어 주렁진 가을밤이여!
두 바다 설레이는 청춘의 밤이여!

황금바다...
푸른 바다...
이 땅엔 바다가 많아야 한다
이 땅엔 바다가 넓어야 한다
이 땅엔 바다가 설레야 한다

아, 고향의 밤
그들의 리상이 비껴간 바다의 한끝에서
파도쳐 달려오는 황금바다 푸른 바다
청춘도 사랑도 바다도 한바다되어 파도쳐왔네
해돋이 찬란한 강성대국 기슭으로!...

내고싶어서...》 창현의 둘째형수가 핀잔하는 소리였다. 《허튼소리라니? 나도 그런 꿈을 꾸었다니. 두고보라구, 그들 한쌍은 누구나 부러워할만큼 행복하게 살아갈거야. 사랑이 뭔지 알고있으니까.》 영식분조장의 느슨한 목소리였다.

《가만. 저길 좀 보세요. 내 말이 틀리나? 저렇게 둘이 나란히 서있는걸 내 언제부터 보아왔더니 까요...》

이쪽으로 눈길을 모았는지 잠시 조용하더니 별안간 갑작스런 웃음이 터져올랐다.

《호호호...》

《하하하...》

《흐흐흐...》

각이한 년대들에 참된 사랑의 자욱을 이 땅에 찍은 사람들의 기꺼운 웃음소리가 봄밤의 훈훈한 대기를 흔들며 멀리로 퍼져갔다.

인민생활을 늘이려는 당의 뜻으로

심장을 끓이는 인간의 형상

-단편소설 《나래를 퍼덕이라》를 두고-

박춘택

뜻깊은 올해의 공동시설과 공동구호에서는 다시 한번 경공업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일대 공세를 벌릴것을 호소하고있다.

경공업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타격전선의 하나이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인민소비품의 질을 높이고 모든 단위들에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여러가지 생활필수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선봉을 일으킬데 대한 공동시설과 공동구호의 구절구절은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노동계급을 무한히 격동시키고있다.

단편소설 《나래를 퍼덕이라》(김경일 작, 《조선문학》잡지, 주체98(2009)년 10호)는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는 의의있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소설창작에서 중요한것은 소설의 특성을 잘 살리는것이다.》

단편소설 《나래를 퍼덕이라》는 기동적인 문학형식인 단편소설의 미학적특성을 잘 살렸다. 소설에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휘몰아치고있는 오늘의 현실에서 초미의 문제로 제기되는 더 높고, 더 빨리 비약하는 우리 시대의 절실한 문제가 제기되어있고 시대의 벽찬 숨결과 맥박, 호흡과 기상이 느껴지는 대고조시대의 매력있고 감동적인 성격이 형상되어있다.

폭풍쳐달리는 비약의 시대, 과학기술의 최첨단을 돌파하기 위한 투쟁의 시대에 사람들은 지난날의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높은 요구성을 견지하며 새로운것을 지향하여 더 높은 목표를 내세우고 그것을 점령하기 위하여 피타는 열정, 몸부림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것, 바로 이것이 소설이 내세운 인간문제이다.

오늘의 대고조에서는 온갖 낡고 뒤떨어진것을 털어버리고 새롭고 발전적인것을 끊임없이 창조하여야 한다.

소설이 내세운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시대의 절실한 사회적문제는 자랑차게 걸어온 자신의 과거에 현혹되어 지난날의 진취적인 열정과 모태김파

저 어느덧 세월의 락엽속에 묻어버리고 더 전진하고 비약하고 혁신하지 않으면서 제자리걸음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있는것이다. 이처럼 소설은 오늘 우리 현실에서 나서는 절실한 문제를 취급하였다.

소설은 개성적인 인간성격으로 내세운 인간문제를 깊이있고 진실하게 해명하고있다.

소설의 주인공 철운의 사상정신적특질은 새로운 대고조시대에 맞는 혁신적안목과 진취성, 최첨단과학기술을 돌파하려는 피타는 탐구와 열정이다. 그는 자기만족에 빠져 새롭게 혁신하고 비약하려 하지 않는 기술준비실 설계원들의 생활에서 그리고 공장의 저조한 분위기에서 불만족을 느낀다. 그래서 그는 지배인에게 사람들이 잘 신지 않는 낡은 형의 신발을 만들어놓고도 생산계획을 수행했다고 만족해하고있으며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신발을 갱신해야 하겠는데 지금은 공장이 요란한 기계의 동음속에서 졸음을 청하고있다고 말하는것이다. 그리고 새 기술에 대한 탐구의 열정이 없는 명미에게 참된 시대의 딸이 되라고 준절히 타이르는것이다.

들끓는 시대와 숨결을 같이하고 더 높은 생의 목표를 세우고 투쟁하는 그는 공장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질을 높여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신발을 만들기 위해 자기의 지혜와 열정을 깡그리 바치는것이다.

지배인의 딸이며 공장기술준비실 설계원인 명미는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일본새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켜나가려는 자세와 립장이 바로 서있지 못하다. 새것에 대한 지향이 강렬하지 못하고 삶의 목표도 뚜렷치 못하며 탐구의 열정이 없고 자만도취해있다. 그는 자기 공장에서 만든 신발은 맵시가 없다고 신지도 않으면서 인민들의 호평을 받지 못하는 신발을 계속 설계하면서 량심상 가책도 느낄줄 모른다.

공장의 지배인인 정민은 또 어떠한가. 그는 다른 사람들이 쉽게 따를수 없는 능력과 자질이 있다. 기술에도 밝다. 그런데 그 기술이 헛되이 파묻혀있는것이다. 눈앞의 생산실적에만 쫓기워 먼 앞날을 내다보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지식경제시

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을 혁신하여 인민이 좋아하는 신발을 생산하려는 피타는 몸부림이 없다. 그리고 정민은 어려운 조건을 자체의 힘으로 완강히 뚫고나가려는 정신력이 높지 못하다.

명미는 이렇게 된 아버지에게 대해 생각해보기 못한다. 이젠 잠에서 깨어나라고, 설사 과거에 훨훨 날았다 해도 땀흘려 피덕이지 않으면 그 날개에 강직이 온다는 철운의 랭혹한 절규에서 명미는 비로소 자기를 돌이켜보게 된다. 그 절규속에는 그 어떤 진실이 있었던것이다.

그 랭혹한 절규를 들은 다음부터 명미는 자기가 아버지에게 대해 간직해온 긍지와 신뢰에 점차 실금이 가기 시작한다는것을 느끼게 된다. 그가 《잠》에서 깨어난것이다.

소설에는 이러한 명미의 내면체험세계에 대한 묘사가 감명깊게 주어지고있다.

자기를 미궁에 빠뜨린 철운에 대한 야속함, 자신에 대한 혐오... 무엇이라고 딱히 이름지을수 없이 얽히고 감긴 번거로움속에서 모대기는 명미의 심리세계의 묘사.

철운의 진심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전 지금껏 아버지의 딸이면서도 아버지의 진정한 딸이 아니였다고 하면서 조금도 망설임없이 아버지가 자기의 한생을 넘겨줄 자랑스러운 딸, 시대의 딸이 되겠다고 맹세다지는 명미의 내면체험세계에 대한 묘사는 참으로 진실하고 감동적이다.

소설은 시대에 뒤떨어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더 높이, 더 빨리 비약하려는 열망으로 가슴을 끓이며 시대의 열정을 안은 인간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명미와 정민의 모습을 격이 있게 시대적 미감에 맞게 독창적으로 형상하였다.

작품에서 철운을 비롯한 인간성격들이 시대의 숨결, 생활의 지향이 숨배인 매력적인 시대적성격으로 창조될수 있는것은 그들의 형상에서 가장 적중한 계기, 전형적인 계기로 되는 생활단면을 포착하여 일반화함으로써 그 인간들의 면모,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보여준데 있다. 인간들의 성격적특질이 드러날수 있는 가장 전형적인 계기를

탐구포착하고 그 계기에서 그 인간들의 내면세계를 심오히 파고드는데서 작가의 기교가 발휘되었다.

단편작가의 기교는 본질에 있어서 감동적인 성격창조를 위한 기교라고 말할수 있다. 시대의 상징으로 되는 심오한 성격창조를 떠나서 단편작가의 기교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이 단편작가는 주인공을 형상함에 있어서 가장 적중한 계기, 전형적인 계기로 되는 생활단면을 포착하여 일반화함으로써 심오한 문제성을 안고있는 주인공의 면모, 아름다운 사상정신세계를 펼쳐보여주었다.

소설에서는 경공업대학을 졸업하고 기술과에 새로운 기사가 오자마자 공장이 앓아몽개고있고 특히 준비실분위기가 척박하고 태평하다고 불만을 터뜨리는 계기를 설정하고있다. 이 계기설정에는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있다. 여기에는 그 해명과정에 사람이 더 높은 목표와 리상을 내세우고 투쟁하지 않으면 《산화석》이 된다는 사상을 심화시킬수 있는 씨앗이 박혀있으며 생활적전제가 튼튼히 마련되었다. 특히 이 계기는 자기만족에 빠지지 말고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부단히 혁신하고 더 빨리 전진하고 비약해야 한다는 주제해명에 적중하며 문제성을 심화시키고 인물의 성격적특징을 펼칠수 있게 하는 계기이다.

계기설정에서 이 작품의 기교는 주제적과제에 적중하며 문제성이 내포되어있는 사건적인 전제를 잘 탐구하였다는데 있다.

이 단편소설은 초점이 명확하다. 정민과 철운, 명미 등 다양한 개성을 가진 인물들에게서 발현되는 성격적특질들을 종자해명에 집중시키고 등장인물들의 사상적지향성을 선명히 하여 초점을 명확하게 하였다. 소설에서는 묘사의 치밀성과 섬세성을 보장함으로써 묘사의 밀도를 높이고있다.

우리는 작가가 단편소설창작에서 훌륭한 창작기교를 발휘하여 더 매력있는 작품을 내놓음으로써 단편소설문학의 화원을 빛내이는데 기여하리라고 믿는다.

상식

골절(뼈가 부러졌을 때)

- ① 손상된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든든히 받쳐준다. 환자가 손상된 부위의 윗쪽과 아래쪽을 가장 편안한 자세로 유지하도록 도와준다.
- ② 손상된 부위에 부목을 대주어 보호한다.
 - 세면수건 또는 방석과 같은것으로 부목을 만들어 손상된 부위에 대주고 자세를 유지할수 있도록 한다.

- 개방성골절이면 소독된 큰 약천이나 보풀이 일지 않는 천을 대고 붕대로 감아준다.
- ③ 환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거나 보내준다.
 - 필요한 경우 구급차를 부른다.
 - 쇼크를 막기 위한 대책도 세운다.
 - 생명중후(맥박과 호흡, 반응상태)들을 감시하고 기록한다.

전선으로 가는 길

김진경

나는 자강도에서 산다.
그 땅에 대한 유별한 애정을 가지고 사는 자강도사람들중의 한사람이다.

《고난의 행군》시기에 정이 든 고장이라고 하며 경애하는 장군님 실재없이 찾고찾으시여 그리도 많은 자옥을 남겨주신 자강도땅에 오면 어디에 가나 장군님의 뜻깊은 말씀들을 많이 들을 수 있다.

오늘도 나는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아버지장군님의 웅건한 뜻을 되새기고있다.

희천에서 다시 만남시다!...

아버지장군님께서 오늘의 최전선이라고 가르쳐 주신 희천발전소건설장에서 장군님의 이 말씀들 다시 새기며 나는 우리의 걸음과 인생에 대하여, 그 걸음의 참된 의미에 대하여 새삼스럽게 생각해보게 되었다.

걸음엔 인간의 지향과 마음이 비낀다. 사랑과 열정에 충만된 인간만이 순간의 주저와 두려움도 없이 씩씩하게 걸을 수 있다.

나는 그것을 체휼한바 있다.

이제는 20년이라는 세월의 갈피를 휘감고 저 멀리로 흘러가버린 나의 처녀시절.

그 시절은 산골학교의 교단에서 흘러갔다. 처음으로 말아키운 제자들, 군복을 입고 조국보위 초소로 떠나는 그들을 배려해주자고 도소재지를 향해 걷고 또 걷던 그날의 100리길...

...흐렸던 하늘에서는 끝내 비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점차 비발이 굵어졌다. 밤알만한 물방울들이 잔잔하던 수면위에 무수한 총알처럼 쏟아져내리자 강물은 마치 바글바글 끓는것만 같았고 휘우든한 길가엔 젖빛안개가 넓게 서려 마치 흰 용단 자락을 쳐놓은것처럼 보였다.

방금 물속에서 나온듯 한 나의 옷주체는 말이 아니었다. 물이 푹푹 흐르는 옷은 몸에 찰싹 달라 붙고 치마자락이 다리에 감겨돌아 걷기 불편한데 맞받아내리는 비발로 하여 눈조차 뜨기 힘들었다.

눈을 반쯤 뜨고 걷지 않으면 안되었다. 비발은 더욱 기승을 부렸다. 잠시 주춤거리다가는 이내 물방으로 쏟아져내리곤 했다.

애어린 길가의 나무들이 몸부림치고 땅속으로 미처 스며들지 못한 물방울들은 도랑을 지어 흘렀다.

채찍비에 이마가 얼얼해나고 발뒤축이 몹시 아려서 신발을 벗고보니 빨갭게 살갓이 벗겨졌다. 아예 신발을 벗어들었다.

산굽이를 돌아서니 길바닥엔 온통 물이었다.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던 샘줄기가 불어나 탕수를 이루며 도로를 끊어놓고있었다. 나는 무춤 멈춰서서 이 길이 끝나는 곳 저 멀리 앞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어디선가 제자들이 지켜보고있는듯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 길이 끝나는 곳에는 제자들이 기다리고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뒤이어 다시 걷기 시작하는 나의 입에서는 노래소리가 흘러나왔다....

돌이켜보면 그 걸음은 고되고 힘들었어도 마음은 얼마나 즐겁고 가벼웠던가.

그때에도 나는 전선으로 가는 제자들을 배려하는 심정이였다. 아니, 내자신이 마치 새로운 전선으로 용약 떠나가는 심정이였다. 그 심정이 100리 비내리는 밤길을 주저없이 걷게 한것이다.

누가 말했든가, 빈몸으로 천리를 가기보다 무거운 짐을 지고 십리를 가는 인생이 더 값있다고.

십분 옳은 말이다. 우리는 매 각자가 조국앞에 무거운 짐을 지고있다.

조국이 한그루 나무라면 그 나무를 가꾸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해야 하는 고상하고 성스러운 의무를...

허나 그 의무를 누구나 자각하는것은 아니다.

대학문은 나섰어도 후날 나의 모교라 부르며 그 문으로 뿔뿔이 들어설수 없는 사람, 자식을 더없이 사랑하면서도 그 자식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 그리고 고향에 묻히기를 원하면서도 그 고향에 기여한것이 없는것으로 하여 마음속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사람...

조국앞에 뿔뿔한가 그렇지 못한가는 걸음을 어떻게 떼고 인생의 목표를 향해 어떤 자세로 어떻게 걷는가에 달려있는것이 아닐가.

그렇다. 인생의 길에 담보와 휴식이란 있을수 없다. 청춘기에도, 중년기와 노년기에도 한걸음이 여야 한다.

나는 말하고싶다. 인생의 걸음걸음은 전선으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고.

전선으로 가는 길, 조국의 운명을 안고가는 길, 선군조선의 존엄을 지키는 길...

이렇게 생각해보니 우리의 눈앞에 우렁이 떠오르는 존귀하신 모습이 있다.

희천에서 다시 만남시다!...

인민이 가야 할 이정표를 정해주시고 총공격전이란 화살표를 힘있게 그어주시고 선군대오의 맨 앞장에 서시여 지칠줄 모르는 완강한 공격정신으로 인민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고귀하신 영상이 안겨온다.

사 색

김영순

집채같은 기계들
집채같은 제품들
철의 기동우에 하늘같은 채광장
공장안은 드넓은 철의 광장같아도
고요한 정적과 사색만이 흐른다

무쇠팔뚝 휘두르던
마치소리 호각소리 사라지고
연마기의 불꽃
소재를 적시던 힘겨운 땀방울
흔적마저 사라진 나의 일터

사랑하는 나의 기대
동시조종수력타빈날개가공반
소재를 가공하는 기계의 톨동과 소음은
아기를 쓰다듬는 어머니의 손길인가
아기를 잠재우는 어머니의 자장가런가

나의 눈빛은
프로그램조작대의 불빛과 말을 하고

나의 하얀 손은
연주에 열중하는 피아노 연주가인듯
로동이 사색으로 된 나의 일터

이 공간시간
나는 또다시 사색한다
더 비약할 래일의 과학기술
더 높이 더 멀리 달려갈 래일의 조국
그 날의 나의 기대 나의 모습

아 사색과 현실!
이 아득한 공간을
두손에 억세게 틀어쥔
나는 대안의 로동계급
CNC 기술의 주인공!

이제 사람들은 머지않아 보게 되리라
기대와 말을 하는 나의 모습
나의 사색대로 움직이는 나의 기대를

오늘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을 희천발전소건설
장으로 규정해주신 그이의 력사에 류례없는 헌신
의 그 자욱을 따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심드
높이 이 길을 걷고있는가.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받들어 끝끝내 주체철
생산체계를 완성한 성강의 로동계급과 16년만에
다시 비날론바다를 펼쳐놓아 아버지장군님께 기
쁨을 드린 비날론생산자들, CNC 개발자들과 우리
의 위성을 하늘높이 쏘아올린 미더운 청년과학자
들 그리고 경쟁의 불길속에 난알산을 높이 쌓아
가는 미곡과 동봉, 은홍의 농업근로자들...

우리의 걸음은 곧 고귀한 결실으로 가는 길이
다. 결실이 없는 전진이란 있을수 없으며 전진이
없는 생은 고여있는 물과 같다.

나는 그 증거로 이 땅에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를 창조한 군인건설자들의 영웅한 모
습을 미약한 글재간으로나마 사람들에게 펼쳐보
이고싶다.

그들이라고 남다른 제주와 힘을 타고났겠는가.

어디서나 볼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다.

허나 그들의 가슴에서 끓고있는 피는 결코 평
범치 않다.

우리의 땀방울이 수도의 거리를 밝히게 된다면
몸이 그대로 언제를 쌓는 몰탈이 되는 심정으로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을 관철해가는 백철불굴의
신념과 비상한 정신력을 인민은 보고있다.

아버지장군님의 기쁨이 되고 내 조국의 나래가

되며 우리 후대들의 영원한 행복이 될 창조물을
더 많이 건설하자, 이 리념이 이 땅에서 살고있
는 인민에게서 비상한 정신력을 낳고 강성대국에
로 가는 지름길을 다우쳐 걷게 하고있다. 이런
고귀한 걸음들로 이어지는 길이 바로 전선으로
가는 길이다.

삶의 리정표와도 같은 《전선》은 한자리에 머
물려있지 않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빨리, 더 앞
으로 전진하고있다.

시대의 부름에 심장으로 화답할줄 아는 인간,
실력과 실천이 겸비된 인간만이 그 전진속도에
따라설수 있으며 오늘의 초강도강행군이라 이름
짓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헌신의 발자취에 보폭을
맞출수 있는것이다.

자기 말은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과 실적을 내
는것, 이것이 오늘의 최전선-희천으로 가는 길이
며 우리 장군님 가까이로 가는 가장 영예롭고 긍
지높은 길이다.

나는 새로운 결심으로 힘있게 걸음을 내짚는
다.

귀가엔 다시금 장군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들려
오는것만 같다.

희천에서 다시 만남시다!

우리를 부르시는 위대한 령장의 구령소리.

아, 우리 인생의 영원한 지침이여...

우리모두 위대한 장군님의 심장의 구령에 보폭
을 맞추자!

군민사랑풍경(외 1 편)

오정로

전연마을
초소로 오르는 고개길에
아침해빛 물들었나
저녁노을 물들었나
가지마다 주렁진 탐스러운 감알들

-어마나 그냥 있네
군대를 맛보라고 글썽지도 붙였는데...
채등너머 포전으로 가던 처녀들
섬섬한 마음도
가지에 감알처럼 맺혀졌는데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는 병사들의
어깨를 스치는 빨간 감알들
어서 맛보라고 향기 풍기건만

늘어진 가지에 받침대 세워주고
감나무아래 썸물로 목추기네

아 인민이 군대를 위한 마음
군대가 인민을 위한 마음
전화의 날에도 오늘에도
변함없는 그 진정 익혀놓은
전연마을 초소길의 빨간 감알들

가을을 지나
감철을 지나
서리바람에 잎새 떨어지니
더더욱 아름다워라
아 군민사랑풍경이여!

빨간 산딸기

한알두알
빨간산딸기
바구니 바구니 가득 따서 담고
산언덕을 내리던 초소마을 아이들

언덕아래 강냉이밭
땀흘리며 김을 매는 병사들
밭머리에 나란히 벗어놓은 군모앞에
산딸기바구니 농고가네

유치원놀이터 꾸려여 주고
비오는 날 업어 강을 건너주더니
아빠엄마 일손돕는
군대아저씨들이 너무 고마워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꿀같은 산딸기 빨간 산딸기

응석받이 귀염둥이들
병사들 위해 농고가네

누가 알세라
누가 볼세라
산기슭 에돌아
아이들은 종종걸음

산기슭 산들바람
딸기향기 이랑이랑 풍겨가고
해빛도 따스한 손길로
슬어보네 빨간 산딸기

아 선군세월에
철부지아이들
어른으로 자랐네
빨간 산딸기 밭머리의 산딸기

계속 피우리

김철혁

일터에 피여웃는 꽃이여라
사랑의 해빛아래 피여나는 꽃이여라

해빛밝은 구내길 걸어갈 때면
이 가슴에 쟁쟁히 울려오누나
영예군인 우리 일터 찾아오시여
우리들에게 하신 수령님의 말씀

- 꽃은 계속 피여야 합니다

울려오누나 선군장정 그 길에서도
언제나 우리들을 잊지 않으신 장군님
사랑을 안고 거둬 찾아오시여
- 꽃은 계속 피여야 합니다
수령님의 이 말씀은

명언중의 명언이라고 하신 다정한 그 음성

원쭉을 눈앞에 두고
불타는 고지를 내려야 했던
가슴찡기는 아픔도 함께 나누신듯
우리들의 운명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그 사람에 목메여 우린 울었어라

그날부터 계속 피우는 꽃이여라
언제 어디서나 피우는 꽃이여라

아 한생 안고살 좌우명으로
이 몸에 피줄처럼 새겨진 그 말씀
내 가는 앞길에
삶의 이정표를 세워주고
어려울 땐 돌격구령처럼

힘과 용맹 안겨주나니

해빛과 같은 그 자양을 받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억세게 피워가는 꽃
피로 지킨 조국 노력으로 빛내려고
기대마다 만부하의 불꽃을 피우노라

계절없이 피고피는 꽃이여라
영원히 지지 않을 꽃이여라

세상에 지지 않는 꽃이 있다면
세월의 비바람에도 피고피는 꽃이 있다면
그것은 수령님과 장군님 가꿔주시는
시대의 화원속에 억세게 피어웃는
우리 삶의 모습이여라

봄벌에 넘치는 랑만

심재훈

밤벌 이고 모를 뜯는 농장원들이
새벽잠 꿀잠 폭 자라고
우리 일찍 일어나 벌에 나왔건만
웬걸 농장원들 벌써 나와
한배미논에 모를 꽃앓구나

우리가 뭐 손님이란 말인가
지원자구실 못함이 죄스러워
소매도 걸을새없이 논에 뛰어드니
오히려 우릴 보고 나무람하며
논둑에서 노래 한곡 부르라네

오는 정 가는 정 배미를 넘어
푸른 옷 입어가는 농장벌
한배미 다 꽃은 성미급한 분조장
안해더러 벼모 한바리 빨리 가져오란 독촉에
벼모는 걱정말라는 오돌찬 대답소리

하늘엔 선잠 깬 종다리 지중지중
논벌엔 노래 한배미 웃음 한배미
농장원도 지원자도 한마음되어
앞서거니뒤서거니 일손에 불이 이니
보퉁에 염소 어서 나와 쉬라고 매애-

아 흥성이는 모내기 흥겨운 논벌
청제비 날아드는 감중은 논판우에
뜨락또르 씨레날 오선을 그리면
오선지우에 악보를 새겨놓듯
모내는기제 심어가는 풍년모 풍년노래

벌써 두배미 제겼으니 배도 출출한데
때맞춤 지원자 우리를 찾아
주인집할머니 콩우유 들고나오고
비료를 받아가라 웨치던 창고장
논둑에 넘어져도 그냥 좋단다

모내기로 흥겨운 내 고향벌아
올해도 풍년모 선참으로 내고
대동강 들놀이엔 우리도 함께
서로서로 얼싸안고 출판물 벌리자
풍요한 가을 약속의 축배도 들자

일손을 다그치자 저 보아라
관리위원회 마당가 높이 세운 순위기
우리가 앞섰다고 기뻐하지만
뛰는 사람우에 나는 사람 있다고
아차하면 일등자리 빼우고만다

승벽내기로 오르는 순위기가
오늘은 모내기 순위라 하지만
가을엔 높이 쌓은 로적가리우에 날릴
결승의 순위가 된다는것을
지원자 우리라고 해서 잊어서는 안되리

강성대국고간엔 쌀이 많아야 한다
농사의 주인은 농장원들만이라
쌀은 사회주의라고 하신
우리 수령님과 아버지장군님의 말씀
잊어서는 안되리
오늘중에 열배미논에 모내기를 끝내자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창작된 시작품들을 더듬어

박준명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벌써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전쟁의 포화속에서 창작된 시작품들은 오늘도 우리의 머리에 어제일이란듯 생생하게 떠오르고있고 선군의 기치를 따라 나아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있다. 그것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시작품들이 준엄한 전쟁의 현실을 훌륭하게 형상하였기때문이다.

현실의 본질을 폭넓고 깊이있게 반영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제기한 문학이야말로 사람들을 참된 생활과 투쟁으로 불러일으키며 커다란 감화력을 안겨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국해방전쟁의 발발과 함께 전당, 전군, 전민에게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고 호소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들은 전선과 후방에서 말그대로 불사신처럼 영웅적으로 싸웠다.

당에 무한히 충실한 우리 시인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이 영웅적인 현실을 형상하기 위하여 필봉을 들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한편의 혁명적인 시는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수 있다.》

우리의 시인들은 천만자루의 창검을 대신할만한 훌륭한 시를 창작하기 위하여 싸우는 군대를 찾아 최전선에 나갔고 인민들속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 우리 시인들은 전쟁승리의 기치이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절대적으로 흠모하고 결사옹위하는 작품. 당을 칭송하고 군대와 인민의 무비의 영웅성을 적극 긍정하고 찬양하는 시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였다.

미제에 의하여 감행된 전쟁은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준엄한 시련이었다. 그러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고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을 령도하시는 한 반드시 승리한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안고 싸움에 나섰다. 한마디로 말하여 조국해방전쟁의 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의 력사였고 수령님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무비의 헌신성의 발

전력사였다. 이러한 시대감정을 반영하여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시기 이름있는 시인들치고 어버이수령님을 칭송한 송가작품을 창작하지 않은 시인은 없었다. 시인들만이 아니였다. 인민군전사들은 불타는 고지에서 어버이수령님을 칭송하는 송가를 창작하였고 로동자, 농민, 학생들도 송가를 창작하였다.

작품들인 《크나큰 그 이름 불러》(백인준 작), 《경애하는 수령》(김우철 작), 《수령님은 우리를 승리로 부르셨네》(박세영 작), 《수령님의 이름과 함께》(안룡만 작), 《장군님께서 오신 마을》(리택 작),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마우룡 작), 《김일성장군님께》(김영철 작), 《수령님의 노래》(김순석 작), 《수령님께서 오신다》(박팔양 작), 《수령님의 말씀을 받들고》(김조규 작)를 비롯한 수많은 시들이 창작되였다.

이런 수많은 시들이 있어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40돐을 기념하여 헌시집이 나올수 있었다.

세상에 널리 알려진 헌시 《크나큰 그 이름 불러》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력사적구체성속에서 노래하면서 수령님은 조국이고 당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모든 영예와 행복의 상징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시인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노래하였다.

...

오늘 그이는

조선인민의 영예의 상징

싸우는 조선의 투쟁의 기치

동서의 전선을 한손에 틀어쥔

승리의 조직자, 탁월한 령장

...

헌시는 마지막에 우리의 조국과 당도 우리 군대와 인민의 영원한 행복도 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이름과 혈맥으로 이어져있다는것을 강조하면서 수령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였다.

헌시 《수령님께 드리는 노래》(집체작)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41(1952)년 4월 백송리에 자

리에 자리잡고있던 김일성종합대학을 찾으시어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생활을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펴주시고 필승의 신념과 전후 나라의 복구발전을 위한 휘황한 설계도를 펼쳐주신 그날에 교직원, 학생들의 충정의 마음을 담아 아버지수령님께 올린 작품이다.

시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니신 비범한 령도력과 고매한 품모,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미제침략자를 때려부시고 승리한 조국땅우에 지상락원을 일떠세우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의지와 불같은 결의를 노래하였다.

시 《수령님은 우리를 승리로 부르셨네》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군전사들의 마음속에 계시면서 그들을 승리로 불러주신다고 하였다.

수령님께서 이처럼
승리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데
천백의 적인들 두렵겠습니까
그러기 세상에 나서
지금같이 용감한 때는
일찌기 없었습니다
...

시에서는 적탄속을 뚫고 화식병이 가져온 밥을 놓고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에 목매여하면서 전사들이 불패의 힘을 얻게 되는 내면세계를 심오하게 밝혔다.

시 《수령님은 우리와 함께》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기에 인민군전사들은 무비의 용감성과 영웅성을 발휘할수 있으며 승리할수 있다는 사상을 감동깊이 노래하였다.

눈송이 날리는 밤하늘은
무거이 항로를 막아도
어둠을 가르는 나의 날개
몇몇 산과 들을 지나왔는가
수령님과 함께 원쑤를 찾는
젊은 매의 마음은 언제나 든든하다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한 이 시작품들에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충정의 한마음, 수령님께서 령도하시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라는 신념이 차넘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시의 다른 주제의 하나는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면서 싸우는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형상을 노래한것이다.

서정시작품들인 《나의 파발총》(안룡만 작), 《이 사람들속에서》(김조규 작), 《락동강》(김복원 작), 《이겨서 오시라》(리정구 작), 《가무재고개》(성서촌 작), 《나의 고지》(김람인 작), 《박달나무》(김순석 작) 등은 대표적인 작품들이다.

시 《나의 파발총》은 시인이 남진하는 인민군 전사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창작하였다. 시에는 러수, 부산, 제주도를 향하여 진격하는 인민군전사들의 영웅적기상이 반영되어있으며 남녘땅을 해방하고 통일의 광장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실 인민군전사들의 결의가 넘쳐흐르고있다.

또한 시 《이 사람들속에서》도 시인이 남진하는 인민군대와 생활하면서 창작하였다. 시인이 종군한 부대의 대부분의 병사들은 어제날의 학생, 노동자, 농민들이었던 신입대원들이었다. 그러나 말그대로 이들은 영웅적위훈을 발휘하고있었다.

이에 큰 감동을 받은 시인은 전사들과 함께 관전호에 들어가 탄피에 기름을 부어 심지를 돌군 다음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게 방수포를 덮고 밤을 새우며 작품을 완성하였다. 시인은 수령님께 충정을 다하는 전사들이 있는 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상을 시작품의 구절구절마다에 담았다.

이 사람들속에서
내 어찌 비겁할수 있으랴?
이 싸움에서
우리 어찌 승리하지 않으랴?
...

이렇게 수사학적물음을 제시한 다음 《애국의 뜨거운 가슴들이/엷히고, 모이고/구름이 되고/... 번개가 되고.../원쑤를 쳐부시는데 /스스로 몸이 지뢰가 되는/이 젊은이들》의 무적의 위력을 구체적으로 노래하였다. 《짚어대는 놈들의 기관총대를 쏘어버》린 나 어린 기관총수 리상태, 《원쑤의 자동차를 빼앗아타고/밤을 헤치며 진중으로 돌아》온 김이룡정찰조원들 등 인민군전사들의 대중적영웅주의를 노래하면서 시는 이들의 사상정신적바탕에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결사옹위정신이 놓여있다는것을 격조높이 펼치고있다. 그리고 시의 마지막부분에서는 인민군전사들에게 《목포, 부산, 제주로 내달자!》고 호소하였다.

이 시는 꾸밈없이 인민군전사들의 위훈을 그대로 노래한것으로 하여 출판물에 발표되기도 전에 부대의 전사들속에서 읊어졌다.

시 《가무재고개》도 인민군전사들의 조국통일에 대한 열렬한 지향을 노래하였다. 시는 밤새 마련한 공화국기를 아들에게 넘겨주며 이기고 돌아오라던 어머니의 전송을 받은 인민군전사의 체험세계를 노래하였다. 시에서는 어머니의 당부를 조국의 당부로 생각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된 영예를 빛내이려는 서정적주인공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감명깊게 노래하였다.

우리의 시인들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가 끝나고 재진격과 진지방어전을 벌리던 가렬한 전화의 나날에도 인민군전사들의 위훈을 노래한 많은 시들을 창작하였다.

시 《장자강기슭에서》(김학연 작)는 적의 화구를 몸으로 막고 장렬하게 전사한 김옥근영웅의 위훈을 노래하였다.

그리고 박세영의 시 《나팔수》, 《숲속의 사수 임명식》도 인상에 남는 시다.

《나팔수》의 서정적주인공은 나 어린 나팔수 문용기이다. 나이는 어리지만 적탄에 맞아 쓰러지는 마지막순간까지 나팔을 불어 부대의 진격을 보장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시는 인민군대의 영웅적성격을 부각했고 《숲속의 사수 임명식》은 조군실 영웅이 사용하던 236호중기의 사수 임명식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작품이다.

시 《당과 조국을 위하여》(김영철 작)는 고지탈환전투에서 적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고 희생된 신기철, 박원진영웅들의 불멸의 위훈을 노래하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우리 시인들은 전투적인 서정시들과 함께 서사시들도 활발히 창작하였다.

서사시 《조국의 노래》(민병균 작)는 조국해방전쟁초기부터 전승광장에서 진행된 열병식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면서 인민군대의 한 사단의 3년간의 투쟁을 형상하였다. 또한 서사시 《조국의 기발아래》(김상오 작)는 분대장 태호를 주인공으로 하여 질풍같이 내달린 인민군대의 남진을 격동적으로 형상하였다.

서사시 《비행기사냥군》은 조기천의 미완성유품으로서 《작가의 말》, 《그는 증기를 사랑한다》, 《주인공의 초상》, 《이렇게 싸웠다》, 《기차를 처음 보던 이야기》, 《내가에서》와 같은 소재목을 달고 미제의 공중비적을 소멸하는 인민군전사들의 위훈을 서사시적화폭으로 노래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서사시들가운데서 서사시 《강철청년부대》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자라난 김람인은 조국해방후에도 당의 령도를 받들고 정력적으로 창작활동을 하다가 조국해방전쟁의 발발후 종군작가로 활동하면서 이 서

사시를 창작하고 전사하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김람인의 전사를 매우 애석해하시며 그를 대신하여 이 작품을 세상에 내놓도록 하자고 하시였다.

이 서사시는 조국해방전쟁의 시작으로부터 재진공에 이르기까지의 시기를 배경으로 강철청년부대의 영웅적위훈에 대한 생동하고 진실한 묘사를 통하여 항일의 전통을 계승한 인민군대의 불패의 위력을 노래하였다.

인민군대의 대중적영웅주의를 형상한 시작품은 직접 총을 들고 싸운 인민군전사들에 의하여서도 힘있게 창작되였다.

인민군전사들은 말그대로 불타는 고지, 찬비 내리는 전호속, 판가리싸움을 앞둔 준엄한 시각에 당과 수령, 조국을 위하여 마지막피 한방울까지 바치려는 불타는 애국심을 가식도 없이 토로하였다.

인민군인들이 창작한 《조국보위초소에서》. 붓나무껍질을 엮어 소책자로 만든 《불타는 태백》을 비롯한 많은 시작품들은 화약내 풍기면서도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생동하게 흘러넘치는것으로 하여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이러한 시작품들중에서 특히 공화국영웅 리수복의 시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는 만사람의 가슴을 불타게 한다. 불과 몇행밖에 되지 않는 이 시는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 목숨 기꺼이 바치려는 인민군전사들의 불타는 신념이 격정적으로 흘러넘치고있다.

조국해방전쟁시기 후방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시작품도 적극 창작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는 말그대로 후방도 전선이였다. 우리의 시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선의 영웅들뿐아니라 후방과 적의 강점하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우리 인민의 투쟁모습을 그려야 한다고 하신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전선을 도와나선 인민들의 투쟁을 형상한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였다.

시인들은 모든것이 불타고 파괴되었으나 굴할 줄 모르고 싸우는 인민들의 투쟁에서 큰 감명을 받고 시를 창작하였다. 조기천의 시 《불타는 거리에서》는 후방인민들의 헌신성, 영웅적기상을 이렇게 노래하였다.

...

불타는 거리에서
조국에 바친 심장만이
원췌에게 향한 증오만이
이 나라 사람들의 낮을
뿔뿔이 쳐다보리 -

그 엄숙하고도 타끓는
싸움의 정신을!
그 엄숙하고도 높은
애국의 마음을!

시에서는 이렇게 우리 인민은 무엇으로써도 정복할수 없으며 그들의 힘을 가로막을자는 세상에 없다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조기천은 또한 장시 《조선은 싸운다》에서도 《세계의 정직한 사람들이여! /지도를 펼치라/싸우는 조선을 찾으라/그대들의 뜨거운 마음이 달려오는 이 땅에서/도시와 마을은 찾지 말라》고 하면서 폭격에 참새들마저 없어졌지만 우리 인민은 불속에서도 연기속에서도 싸운다고 토로하였다.

조기천의 이런 시들외에도 《그이의 음성을 들으며》(정문학 작), 《생산의 불길로》(리하수 작), 《다수확농민》(김복원 작), 《밭갈이》(김소민 작), 《어랑천》(김순석 작) 등도 싸우는 후방인민들의 생활을 생동하게 형상한 인상깊은 작품들이다.

시 《그이의 음성을 들으며》는 《모든 힘을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라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군수생산을 다그친 로동계급의 투쟁을 노래하였다.

서사시 《어려리별》(민병균 작)은 후방인민들의 영웅적위훈을 노래한 큰 형식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부터 그 이듬해 겨울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였는데 주인공이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시기 남편이 적들에게 학살된 다음 구월산유격대원이 되었다가 다시 준엄한 시련을 뚫고 다수확농민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형상하였다. 시에서는 남편의 뜻을 이어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평범한 농민녀성의 형상을 생동하게 그려보여주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규탄하는 시작품도 창작되었다.

시 《증오의 불길로써》(김상오 작), 《원췌의 가슴속에 땅크를 굴리자》(리용악 작) 등은 전쟁초시기에 창작되었다.

정론적성격이 강한 이 시작품들에서는 미제의 죄악성을 예리하게 해부하고 폭로하면서 멸망의 불가피성을 확인하였다.

전쟁이 심화되면서 야수를 뭉가하는 미제의 죄악상을 규탄하는 주제의 시작품들이 더 많이 창작되었다. 《피발선 서해》(리용악 작), 《얼굴을 붉히라 아메리카여》(백인준 작), 《월가의 관병식》(백인준 작)과 같은 성과작들이 창작되었다.

시 《얼굴을 붉히라 아메리카여》는 인간의 탈

을 쓴 승냥이 미제의 죄악상과 야만성을 풍자의 수법으로 준렬히 단죄하였다. 작가는 미제를 《넵타이를 맨 식인종/실크햇트를 쓴 사람버러지/자동차에 올라앉은 인간부스레기/성경을 든 도적놈》이라고 야유하면서 마지막부분에서 미국을 향하여 저주로운 식인종의 어머니며 안해로 되지 않으려거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불행과 남편을 잃은 과부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으려거든 아들과 남편을 조선전쟁에 보내지 말라고 경고하였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와 여러 주제의 시작품들이 창작되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시문학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칭송,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으로 일관되어있다.

모든 시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칭송한 시작품들을 창작하였고 수령님을 결사옹위하는것이 조선 인민의 지향이고 수령님이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표명했다.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창작된 시작품들은 또한 시인들이 싸우는 전호에서, 싸우는 후방인민들의 생활속에서 꾸밈없이 현실을 반영한것으로 하여 인민대중에게 친숙해졌고 사랑을 받았다.

전쟁시기에 창작된 시작품들의 시어들은 전투적이면서도 소박한 인민들의 목소리, 말이었다.

그리고 전쟁시기에는 시문학의 여러 형태들이 더 일층 발전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이 끝난 때로부터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지만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영웅적현실을 노래한 시작품들은 오늘의 선군시대에 살고있는 우리들을 크게 고무하고있다. 승냥이 미제의 본성은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은 의연히 우리를 고립시키고 압살하려고 하고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50년대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살면서 이 시기의 시들을 많이 읊으며 선군의 기치따라 힘차게 나아가야 할것이다.

조선속담

농사

- 논자랑 말고 모자랑 하랬다
- 논에는 물이 장수
- 봄날의 하루가 1년농사를 결정한다
- 사람의 입은 농군이 친다
- 소는 농가의 조상
- 치산치수는 농사의 대본
- 하늬바람에 곡식이 모질어진다

백두산에 해 떠오를 때

-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에 부치여 -

리호근

6.15는 추억이 아니다

-서시를 대신하여-

10년이 흘렀다
6.15공동선언이 채택되던 그날은
아울러 5년세월이 흘러갔다
그 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가 열렸던 그날은

그렇게 세월이 흘렀으니
그 세월은 우리에게서 흘러가버린
한낱 추억이란 말인가
가며오며 문득 더듬어보는
아슴푸레 흘러 지나간 어제란 말인가

아니, 아니다!
그것이 어찌 추억일수 있으랴
그것이 어찌 흘러간 어제일수 있으랴
그것은 너무도 생생한 오늘인데
그것은 너무도 뜨거운 이 오늘인데

6.15가 안겨준 《우리 민족끼리》!
이 민족의 꿈이 이룩되기 전에는
절대로 추억으로 될수 없는 우리 삶의 리념
그 리념속에 우리 오늘을 살고
그 리념속에 우리 래일을 꿈꾸노니

그래서 그날의 열호속에
우리 부둥켜 안아보는 6.15!
그래서 그날의 걱정속에
오, 그리워 그리워 우리 찾아가본다
꿈만 같던 너 민족작가대회여!

제 1 장 태양가까운 하늘중천에서 백두산으로 간다

인민문화궁전
저기 원탁회의장에 올려터진
민족작가대회장의 박수소리
여기 백두산으로 가는 통일비행기의
동음으로 삼고

6.15공동선언실천에서
민족작가들이 앞장서자
불같은 토론 마디마디들을
백두산으로 가는 비행기의
역센 나래로 삼고

간다
민족작가대회가 간다
이 나라의 조종의 성산
이 나라의 천년기둥
오, 백두산으로 간다

굽어보노니
시창아래로 흘러가는것
그 어이 밝은 해빛에 적서진
이 나라의 청청 푸른
산과 들뿐이라

오, 시창가득 펼쳐지는 추억이여
위대한 수령님 유훈인 통일을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려고
아버이장군님 헤쳐오신
그토록 험한 굽이굽이...

대회장소를
경치 아름다운 보통강반
저기 인민문화궁전에서 열게 해주시고
백두산에 오르고싶고
묘향산에 가보고싶다는
작가들의 모든 청을 다 들어주시고

어찌다 평양에 온
남조선이며 해외작가들의 체류일정도
통일행사에는 없었던 5박 6일로
푼푼히 잡아주시여
전례없었던 특전도 베풀어주셨으니

그 은정속에서 우리 오늘
북남해외의 작가들 서로 어울려
이렇게 백두산길에도 함께 오른것이며
그 사랑, 그 은정 저 시창밖 밝은 해빛되어
더불어 가슴뜨겁게 어려온다

대회개회의 이날 이 순간을 위해

북과 남의 회담대표들
발목이 시도록 숨차게 뛰어다니던
거기 수정봉기슭이며 삼일포의 언덕길

아, 때로는 기쁨속에 부들켜도 안고
때로는 합의 못한 무거움속에 헤어지던
과도설레던 거기 고성항의 선창
가슴 여리게 하던 그날의 뒤모습이며
바람세차던 개성의 길이며

어려온다 시창가득 비껴온다
60년세월 우리 가슴속에 쌓여만 있던
그렇게 나누지 못했던 하고싶은 말들이
몇장의 공식 연설문으로 터쳐져야 했던
그 안타까움속에 읽혀지던 너 대회장의 연설들

60년세월을 한순간에 지워버리며
오며가며 늘 만나던 문우들처럼
서로 가슴에 걸린 명찰판으로 이름 불러보며
다정히 잔을 짓짚으며 웃음도 나누던
환영연회탁의 그 꿈같은 순간이며

오, 간다 우리 함께 간다
60년세월 헤어져 못 나눈 그 모든 정
60년세월 품고만 살아온 그 모든 꿈
여기 백두산으로 가는 비행기에 터지도록 실고
우리 백두산으로 함께 가고있노니

태양이 한결 가까운 하늘중천이어선가
시창너머 향로는 저리도 눈부신데
오, 그 향로 저끝에서 백두산이
근엄한 백두산이 줄기줄기 일어서다
우리 맞아 두팔벌려 뉘연뉘연 달려온다!

해빛넘치는 고향집뜨락

울울청청한 백두수림속길로
금방 비행기를 내린 우리를 실고
베개봉호텔 앞길을 지나 다급다급
우정금 하얗게 피어난 산기슭 에돌아
백두산밀영고향집으로 차는 달린다

차창을 적시는 때안인 비
유서깊은 고향집 찾는 흥분에
달대로 단 우리 몸 식혀주려는가
온 수림 화락하니 적시며 내린다
뽕양게 물안개 피우면서 내린다

그렇듯 비물은 차창을 적시여도
설레는 흥분속에 늘 개여있던 우리 마음
항일의 그날 이 수림을 흔들던

빨찌산군가소리 행여 들리잖을까
상념깊은 눈길 차창넘어 수림을 더듬는데

고향집뜨락 들어설 때엔
부디 저 비를 몇게 해달라
어제 밤 주석님께 삼가 빌었다는
인천에서 온 한 시인의 이야기 실고
춤추듯 달리던 빠스

고향집뜨락으로 오르는 길목
《광명성찬가》송시비앞에 벗어나기 바쁘게
비야 오건말건 우르르
앞서거니 뒤서거니 북남해의작가들
서둘러 서둘러 차에서 뛰쳐내린다

그렇게 차에서 내린 작가들
《광명성찬가》송시비앞에 숙연히 다가선다
오, 뉘라서 저 위인칭송찬가가
저기 화강석에 새겨졌다 하는가
내리는 비도마다 앓고 저 비돌앞에 서있는
민족작가들의 가슴가슴에 불같이 새겨졌거늘

보아라 송시비앞에 서있던 저 서울의 시인
비행기안에서 쓴 장군님 칭송시를 읊는다며
내리는 비 아랑곳없이 원고지를 펼치는데
그의 머리우에 우산을 펼쳐주는 북녘의 시인
이 또한 뜨거운 한폭 그림은 아니던가

젊은 작가들이라 백발의 작가들이라
너나없이 들떠있는 모습 저리도 보기 좋고
마중나온 밀영의 저 강사들은
어찌면 저리도 하나같이 이쁘단 말인가
서울작가들 객적게 괜히 말도 걸어보는데

60년세월만에 숨차게 온 걸음이니 목도 추기라
길가숲속에서 출렁이는가 정갈한 고향집샘물
누구는 손으로 또 누구는 풀잎잔으로
그 맑은 물로 모금모금 입술을 적시며 웃는다
어찌면 이리 달고 이리도 시원하단 말인가

저절로 승엄해져 옷깃 여미며
흥분에 겨워 고향집뜨락으로 오르는 순간
오, 이 어이 천기신경인가
지금껏 내리던 비는 일시에 딱 멎고
고향집뜨락에 들쏟아지던 눈부신 저 해빛!

《아니, 이런?!...》
너무도 신기한 풍경에 요절할듯
작가들은 그만 그 자리에 굳어져
서로 얼굴만을 마주보며
서로 제 눈을 의심하고 섰는데

신기하여라 신령스러워라

순간에 꿈속에서처럼 펼쳐진
백두밀영의 이렇듯 황홀한 풍경!
그것이 생시라는것이 믿어지지 않아
다시다시 둘러둘러보는 이 신비경!

방금전까지 온 하늘을 덮었던
그 먹장구름은 가뭇없이 가셔지고
정일봉 정수리우로 씻은듯이 열려진
눈이 부시도록 파아란 저 하늘
순간에 우리 마음 희맑게 적셔주는데

아 남녘에서는
그리고 해외에서는 꿈속에서만 들던
그 전설같은 이야기
정녕 이 순간에 펼쳐지는것인가
온 백두밀림이 한없이 승엄해지는 이 순간

우리 알았구나
벽차오르는 가슴안고 드디어 알았구나
여기 정일봉이야말로 세기의 태양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력사의 성지임을 우리는 알았구나

들어선다 해빛 들쏘아져내리는 프락
몽몽 뜬김 피어오르는 프락 저거디디며
금방 어머니님 나오실듯 열려진 문
울울청청 수림속 고향집 우리러
북남해외작가들 경건히 경건히 들어선다

때마침 들려오는 소백수의 물소리!
오, 그것은 60년만에야 어게 비비며
고향집프락에 숙연히 함께 들어서는
구실 못한 이 민족작가들을 그래도 반겨주시는
어머님의 갈리신 그 음성은 아니라던가?!-

제2장 백두산에 해 떠오를 때

그날 밤 베개봉호텔에는
밤이 없었다

그날 밤 베개봉호텔에는
밤이 없었다

아니였다
호텔의 그 모든 창문들에서
프락가득 적시며 흘러내리는
눈부신 불빛때문에
밤이 가버린것이 아니였다

이제 먼동이 트면 백두산의 해돋이를

우리 함께 맞는다는 흥분속에 가슴 울렁이며
공연히 들떠 호텔의 층층대며 넓은 홀
그리고 프락에 흘러내린 불빛 밝으며
북남해외 모든 작가들 서성거려거늘

그렇게 프락을 거닐던 내 머리에
느닷없이 떠오르던 어릴적 생각
섣달그믐날밤에 잠들면
눈섭이 새하얗게 된다면 할머니말씀에
잠 못들고 서성대던 그 어릴적 생각

오, 그날처럼 흥분에 들떠 잠 못들며
이렇듯 서성대는 이밤은
정녕 통일문학의 새벽을 열어올
이 땅의 한많은 분렬문학의
그 섣달그믐날밤은 아니던가

이밤 호텔 아래층 한방에서는
이제 밝는 날 백두산마루에서 열릴
문학행사 《통일문학의 새벽》출연자들
북남해외의 저명한 작가들이 숨가쁜 걱정속에
가슴 울렁이며 모여앉았다

아니, 출연자들뿐만 아니였다
행사출연자가 아닌 작가들도
부름없이 스스로들 모여들어
행여 《꽃아》넌가 가슴죄이며
문가에 창가에 소리없이 서있었거니

의자가 없어도 좋았다
창턱에 걸터앉을수만 있어도 그것은 상등석
그렇게 서로서로 어깨비비며
무릎 마주앉아 서로의 숨소리만 들어도
마냥 좋기만 하였다 무등 기쁘기만 하였다

누가 벌치 않은 말 한마디 건듯 던져도
그게 대단한 성구나 되는듯 박수를 쳐대며
웃어대며 떠들썩 진정 못하는 저 모습 보며
나는 왜 느닷없이 가슴가득 차오르는 더운것을
남모을래 삼켜야 했던가

없었다 필요없었다
행사런습이란 구태여 필요없었다
이제 밝아올 새벽
이 열띤 흥분 그대로 터뜨리면
《통일문학의 새벽》행사는 말 그대로
이 세상 가장 뜨거운 통일문학분출의 활화산이 될
동서고금 문학행사에 없던 첫 문학행사로
펼쳐지려니

그 어이 첫 문학행사가 아닐것이라

문학행사란 밤에만 하는 《문학의 밤》이었으니
오, 그 관례를 거부해버린 거기 수정봉기습
행사일정을 토론하던 금강산의 밤이여
별들도 잠 못들던 그 잊지 못할 밤이여

그날 밤 대회일정 예비토론타에서
남측 작가대표측에서는 이제 백두산에 오르면
관례대로 《문학의 밤》행사를 하자고 했고
우리는 깊은 생각 뒤척이며 흥분에 겨워
우리 대답 기다리는 그들에게 말했다

《우린 그 관습부터 깨자는거요. 문학행사라면
왜 항상 〈문학의 밤〉행사가 되어야 하는
거요?
그러잖아도 우리 통일문학은 너무도 긴긴 밤
속에 있었소
이제 우리는 〈통일문학의 새벽〉을 열어야 하오
그것도 해쫄는 백두산의 그 새벽에 말ियो!》

그러자 남측은 순간에 격동되어
약속이나 한듯 일시에 자리차고 일어나
뜨거운 박수로써 우리 제의에 호응했다
그때 그들의 눈가에 맺혔던 그 맑은 눈물!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기도 했다

그렇게 심장으로 합의한 행사일진대
그 무슨 사전련습이 소용되었으랴
분렬의 60년세월 그토록 하고싶던 말들인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터져나오는 말들인데
구태여 그 무슨 련습이란 말인가

그래서 발표순서만을 확인하고
우리는 웃고 떠들며
60년세월 나누지 못했던 그 모든 문학인생사
단 한순간에 다 나누기라도 할듯
이말저말 두서없이 주고받았다

아, 그밤은 정녕 우리만의 밤이었다!
그날 밤 동서방의 문학명사들 그 누구도
우리 안중엔 없었다, 감히 끼여들지 못했다
오직 우리만이 분렬의 60년세월끝에 부동켜안은
오직 우리만이 우리의 통일문학만이 있었거늘

아, 《우리 민족끼리》면
부러운것도 못해낼 일도 없다는 그 철리속에서
우리 문학에 대한 당당한 자부
떴만한 긍지를 안고 그토록 흥분에 들떠있었다

정녕 좋은 밤이었다!
끝없이 끝없이 가슴설레이지는 밤
포태산 정수리에서 달도 웃으며 우릴 굽어보고
뿌려놓은 진주보석이런듯 천고밀림 우듬지우에서

자글자글 별들도 잠 못드는 밤

정녕 이밤은 밤이 아니었다
60년세월 밝아올 통일의 새벽을 그리며
그 세월을 안고산 우리의 가슴속 밤도
말끔히 말끔히 가셔진 밤이 아닌 밤
아, 그밤은 정녕 민족문학의 청청대낮이었다!

백두산, 《통일문학의 새벽》

백두산길 서둘러 어서 가야지
백두산밑 첫 동네 신무성에서
꼬끼요 새벽닭 해치는 소리 들을라
저 달이 지기 전에 백두산길 어서 가야지

포태산 정수리에 기우는 저 달
쳐다보고 쳐다보아 그 몇번
늦어질라 더디어질라 가슴조이며
서둘러 차에 오른 새벽도 3시

백두산의 해마중 늦어나지면
이 땅의 통일마중 늦어나질듯
떠나는 새벽 3시 늦어질세라
너도나도 손시계만 보고보는데

드디어 한밤의 고요를 깨치는 소리
부릉부릉 발동소리 노래소리런가
통일을 향해 달려가는 민족작가대회의
뜨겁디 뜨거운 숨결소린가

길좌우에 차렷한 저 이갈숲은
우리 길 지켜주는 위병대인가
하늘중천 둥근달아 너는 우리 길 밝혀
꺼질줄 모르는 통일의 등불인가

백두령길에 꼬리를 문 빨간 후조등이며
저 하늘에 반짝이는 천만별무리는
우리들의 백두산길 축복해주는
6.15통일시대의 눈부신 축포인것인가

오, 간다 백두산으로 간다
헤어져 60년 그 모든 통환과 눈물
씨엿씨엿 차버리며
가슴가슴 설레이며 백두산으로 가거니

백두산은 민족작가대회의 심장!
백두산이 없는 민족작가대회
그것은 뿌리 없는 나무
그것은 심장이 없는 육체

그래서 우리 울며웃으며
숨가쁜 걱정속에 가는 이 길

60년소망도 정녕 풀려지는가
너도나도 가슴조차 조이며 가는 길

밤마다 꿈속에서 발목이 시도록 걸던 길
60년세월 하루같이 마음으로만 걸던 길
그렇게 걸어걸어 백두산마루에 올라
우리 얼마나 뜨는해 가슴에 안고싶었던가

어찌 그뿐이었으랴
그렇게 백두산정에 숨차게 뛰쳐올라
서기어린 천지의 푸른 물우에
얼싸 껴안은 우리 모습 비추어도 보고

빛발치는 햇빛속에 백두마루에 올라
굽어보는 천리수해 아득히 저 멀리
한 지맥으로 뻗어내린 삼천리 조국강산을
한가슴에 안아보고도싶었다

아, 그렇게 오르고싶었던 백두산
그 거연한 백두성산이 마침내
꿈이런듯 생시런듯 차창너머로
서서히 다가오고있었거늘

비비며 비비며 눈을 비비며
우리 숨조차 죽이고 바라보는 백두산은
청순하고 깨끗한 새벽대기에 휩싸여
우리를 맞아 궁시궁시 무게롭게 다가오는데

산중턱 어디선가 차가 멎기 바쁘게
차에서 내린 우리들
그길로 오른다 허덕터덕 오른다
백두산등판으로 앞서거니뒤서거니 오른다

오, 우리 오르는 저 산마루!
그것은 울어머님 그 젖가슴은 아니던가
우리 뿔아오르는 저 실박한 산정!
그것은 울아버지 억센 어깨팍은 아니던가

백두마루 백두산정에 우리 떠받들려
똑똑 땀을 뿌리며 헉헉 숨차게 오를제
아, 때마침 누리에 깔린 운해의 파도 뿔고
불끈 솟아오르는 백두산의 해돋이!

장쾌하여라 승업하여라
온 동녘하늘 불그레 물들이며
연회색구름물결 순간에 불파도로 펼치며
이글이글 솟음쳐오르는 백두의 저 불덩이!

순간 백두의 그 해돋이를 우러러
약속이라도 한것인가 《만세!》 《만세!》
저으며 저으며 어깨높이 두손 저으며
가슴 터져라 목청껏 웨치는 우리

60년만의 이 모습 보고파선가
60년만의 이 합성 듣고파선가
장군봉우의 달도 우뚝 중천에 멎어서서
도무지 도무지 질념을 안하는데

해와 달이 함께 떠있는 이 신비경!
해와 달이 함께 마주보고있는 이 무아경!
《뜨는해는 통일이니 지는해는 없으리라-》
누군가가 청돌구던 소리 노래던가 시던가

걱정에 북받친 서울의 한 로시인
북녘의 시인에게 다가서며 열띤 소리로
홍분에 겨워 떨리는 소리로 부르짖는다
《리선생, 백두산정에서 우리 껴안아봅시다!...》

《그럼시다, 고선생! 그렇게 껴안은 우리 모습
저 거울같은 천지가 새겨들겁니다!...》
북녘의 시인 두팔을 활짝 펼치는데
남녘의 시인 으스러지라 그를 껴안는다

그러자 걸걸이 터지는 웃음에 이어
백두산판에 메아리치는 박수, 박수소리!
오, 그것은 두 시인의 포옹만이 아닌
북과 남의 60년만의 뜨거운 포옹!

《이렇게 백두산정에 북과 남
해외작가들이 함께 오른 모습
미국이 똑똑히 보아야 합니다》
백발의 남녘시인 분노에 울부짖는데

《북남해외의 전체 민족작가 여러분!
백두산해돋이의 장엄한 이 시각
60년만의 첫 대회의 문학행사
〈통일문학의 새벽〉 개최를 선언합니다!》

오, 드디어 역사적인 문학행사
개회를 선언하는 공동사회자
북의 시인 남의 너류소설가의 힘찬 목소리에
온 백두등관 흔들며 우뢰같은 박수 터진다

그 박수속에 북녘사회자
마이크를 움켜잡고 걱정에 넘쳐 말한다
《옛말에 천기신명을 타고나야
백두산에서 해와 달을
함께 본다고 하였습시다》

백두산도 둘러선 모든 작가들도
순간에 숨을 죽이고
장군님은정속에 함께 백두산에 오른
그 감격에 뜨거워진 가슴 안고
북녘시인의 격동된 소리에
귀기울이는데

해와 달을 일별하며 그는 말을 잇는다
《오늘 백두산마루에 함께 오른 우리는
《6.15》라는 천기신명을 타고나 이렇게
백두산마루에서 해와 달을 함께 보는
시대의 행운아가 되었습시다!...》

그러자 다시 터지는 열호
온 백두산관 뒤흔드는 박수 박수의 갈채!
그 걱정속에 눈가의 눈물 씻는것은
어찌 나쁜만이였으랴
어찌 너뿐만이였으랴

뒤이어 어제 밤 평양대회장에서 채택한
대회선언문의 엄숙한 랑독!
그것은 노래였다 백번을 들어도
다시 또 듣고픈 겨레의 숨결
이 민족의 뜨거운 통일숨결이었다!

뒤미처 그 뜨거운 숨결속에
드디어 열려진 문학행사!
해와 달이 함께 굽어보는 백두산정에서
남의 시인 북의 소설가 그리고 해외의 시인
서로서로 달려나가 열변도 뜨거운데

《해 뜬다
이 삼천리강산 모든 풀잎들과 꽃잎이슬들
아침해발 한살 한살에 눈뜨다
물싸리꽃 곰치꽃 우정금꽃 기뻐라-》
등산모를 쓴 서울의 로시인 숨결로 읊조리자

《다시 잡은 손 놓지 말자》고
피타게 웨치는 북녘시인의 절규에 이어
왕년에 세상 뜬 열혈시인의 《조국은 하나다》를
서울의 한 녀류소설가가 랑독해
장내의 눈언저리를 축축히 적셔도 놓는데

오, 그것은 정녕 피흘리는 분렬에 대한 통곡
그것은 기어이 쟁취할 반쪽이 아닌
통일문학쟁취에 대한 결연한 선언!

그래서 세월의 풍파에도 끄떡없는
여기 백두등관 억세게 났고서서
떠오르는 백두의 태양 우러러
온 세상이 다 들으라 너나 한목소리로
우리 피터지게 웨쳤다

《통일문학 만세!》
《우리 문학은 하나다》
《삼천리금수강산 통일조국만세!》
《민족자주문학 만세!》
《6.15공동선언 만세!》

60년세월 함께 못 부른 심장의 노래
백두산의 품에 함께 안겨 울며웃으며
어머니를 찾듯 하늘땅에 비껴가도록
우리 목청껏 함께 웨쳤다
《백-두-산! 어-머-니!-》

오, 백두산! 60년 통일의 숙망속에 드디어
통일문학의 새벽 열어준 너 백두산!
백두의 붉은 해발로 북남해의 우리의 모습
하나의 통일화볼로 붉게 물들여준
아아, 백두산 백두산!

네 억센 봉우리 통일붓대로 틀어잡고
서기어린 천지의 푸른 물 잉크로 찍어
네 머리위에 펼쳐진 저 창창한 하늘
통일원고지로 삼아
이 땅의 통일서사시 우리 쓰고쓰리라

오, 백두산 너 조종의 성산이여!
네 넋 네 의지 네 굳센 절개속에
통일문학의 이 새벽은 바야흐로
통일조국의 새벽으로
이제금 활짝 열려지려니

굽이굽이 산정을 내리던 그 아침
흔들리는 차창너머로 멀어져가던 백두산을
다시다시 뒤돌아보며 점도록 바라보던
하얀 천년설 머리위에 이고 거연히 서있던
오호, 혁명의 성산 너 백두산!

그것은 7천만이 틀어쥔 주먹!
그것은 이 나라의 푸른 하늘을
억척같이 떠받들고 솟은 억센 기둥!
그것은 그 어떤 휘몰아치는 눈보라속에서도
끄떡없는 이 민족의 철의 의지!

그래서 너를 삶의 심장으로 품고가노니
아니였구나 아니였구나 우리 이 아침
결코 너를 떠남이 아니였구나
네 우리 가슴에 심장으로 안겨져
오, 우리와 함께 너는 가고있었구나!...

제3장 아름다운 묘향산 어찌하여 묘향산을 아름답다 하는가

어찌하여 묘향산을
아름답다 하는가
어찌하여 묘향산을

천하절승이라 하는가

뿌려놓은 진주런가 산주폭포
드러진 비단필인가 저 룡연폭포
아아한 하늘중천에서
들쏘아져내리는 너 천신폭포여

휘뿌려지는 눈보라인듯
저리도 황홀한 비선폭포
아, 그 아름다움이 절정이여서
묘향산을 아름답다 하는가

석가봉 천대봉 오선봉 법왕봉...
솟거니 날거니 현란한 봉우리들
가슴 설레게 하는 묘향만폭동
그리고 저 하비로암 중비로암 뒤로
하늘갯에 머리 든 비로봉이 장관이여서
그리도 아름다운 묘향산인가

철따라 두봉화향기 목메게 풍겨오고
우짚는 산새소리 흐르는 물소리
보현사 13층팔각탑 저 철편소리
이 세상 더없는 노래소리같아
너를 불러 예로부터 천하제일
금옥같은 절승이라 하는것인가

그러했으리 그러했으리
이 수려한 경치 한번 찾아오면
다시 이 산 내릴 생각 잇는다 했으니
그래서 예로부터 백두산
금강산과 더불어 여기 묘향산...
이 땅의 명산으로 일컬었던것

하지만 아니였노라
그 경치의 아름다움으로만 여기 묘향산
제일명산으로 부르는건 아니였노라
이런 산천의 아름다움이야
금수강산 이 나라 그 어데 가도 만날것을

아, 묘향산 묘향산
그 어데도 없는 너만의 아름다움
그것은 이 세상 그 어데 가도 없는
그런 값진 보물고 만민칭송의 경의가
네 품에 안겨있다는 바로 그것이거늘!

국제친선전람관!
거기 숙연한 정적이 흐르는 집
금방 울울청청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는듯 한 그 거대한 함선같은
돌집의 무게 그 가치를 세상은 아는가

그것이 있어 묘향산의 경치
한결 더 돋보이고

묘향산이 있어 그 집의 품위
그렇듯 무게롭고 그렇듯 현란한
아, 당대에 이 세상 그 어데 가도 없는 집

아니다, 그렇다고 그 건축물의
탁월한 모양새들 두고 이르는 말이 아니거늘
그 집이 품고있는 인류적인 내용으로
명실공히 그 집은 이 민족의
더 이룰데 없는 자랑 긍지인것

《꿈속에서 보는것만 같습니다
이 세상 진귀한 그 모든 지성품
어쩌면 여기에 이리도 다 모인것입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숨소리마저 죽인채 넋을 잃고
방방을 돌아보던 남녘의 작가들
경탄에 겨워 어쩔줄 모른다

감탄에 겨워라 탄복에 겨워라
그 진귀한 선물속에 떠올려지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만민칭송의 그 절세의 위용!

여러 나라 수반들이 올린
선물진렬대앞을 지나던 때에는
해외며 남조선작가들 약속이나 한듯
그 자리에 못박힌듯 굳어졌으니

부풀어오르는 민족적긍지!
하늘땅에 소리쳐 자랑하고픈 자부!
생각깊은 눈길로 진렬대를 돌아보는
그들의 가슴에는 걱정이 솟구쳐올랐다
옛고구려의 천년기상 파도쳐 밀려왔다

알았다 그들은 정녕 똑똑히 알았다
민족의 존엄이란 무엇이며
자주란 그리고 나라의 권위란
바로 수령의 권위인것임을
가슴뜨겁게 깨우쳐 알았나니

오, 묘향산이여
잃을번 했던 민족의 존엄
상처입은 겨레의 자존심
빼앗겼던 이 민족의 긍지를
이 땅이 당당히 찾았음을 보여준

그리하여 네 자태 이 세상
기장 아름다움을 빛나게 펼친
너 국제친선전람관!
너 절세의 천년국보여!

묘향산이여!

묘향산에서 만난 서산대사

-남조선 한 녀류작가의 이야기-

이제 뭘 숨기겠습니까
저는 보현사로 들어서면서
전쟁때 미제놈들의 폭격에 파손된것을
1042년에 세워진 옛모습 그대로
다시 증보했으리라고는
당초에 생각조차 안했습니다

그러나 천만뜻밖이었습니다
조계문 해탈문 천왕문을 거쳐
대웅전 만세루며 그 주변의 신검당
수월당 그리고 령사전 관음전...

그 모든 고풍스런 모습이
제 본모습 그대로 우릴 맞아주던 때에는
실색할 지경으로 아연해졌지요

배부른 붉은 기둥에 떠받들려있는
만세루의 계자각 란간을 거쳐
보현사의 유명한 8각13층돌탑
고려시기의 가장 높은 돌탑중의 하나이던
그 석탑의 풍경소리 들으며
대웅전 법당에 들던 때

전 불교계를 그대로
스님만이 나들수 있다는
활짝 열려진 가운데문을 피해
서쪽옆문으로 총총히 걸음을 옮겨
보살님앞에 무릎꿇어 앉았지요

전 《반야심경》 정도로는
스님이 하시는 예불문 독송쯤은
함께 따라올수 있는 정도여서
우선 법당의 레법 그대로
제가 늘 다니던 저 영추사에서 하듯
감연히 눈 감은채 입속으로
중얼중얼 경문을 외었습니다

(가네가네 건너가네
건너편에 가닿으니 깨달음이 있네
기쁘구나...)

아, 깨달음! 그 시각
저의 깨달음이 무엇이였겠습니까?

그것은 미제놈들의 폭격을 받은
민족의 자랑 저 법당을
그 어려운 나날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저렇듯 원상대로 세워주신

김일성주석님의 거룩한
애국성정에 대한 깨달음이였고

일군들이
묘향산에 묻힌 금을 캐자는 소청
주석님께 감히 올렸을 때
묘향산에 아무리 금이 많다고 하여도
후대들을 위해 이 산의 아름다움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하셨다는
그 위대한 애국지심에 대한
깨달음이였지요

인민을 위해 몸소
험버랑을 톹으며
새 등산로를 개척하셨다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 이야기는
또 얼마나 이 가슴
몽쿨하게 했다가요

주석님과 위원장님사상의 공통분모인
이 인민중지사상을 깨우쳐 알면서
저는 이곳 국제친선전람관에
인류 최고최대지성이 차넘치는
그 수수께끼도 알수 있었구요

어제날 이 모든것을 모르고 살아온 제자신이
너무도 부끄러워 남몰래
얼굴도 붉혔던겁니다

저는 소리없이 흘러내리는
때늦은 죄책의 눈물 씬으며
《이민위천》의 이 중대사도 모르는 주제에
제자신을 작가랍시구 자부해온
그 뼈아픈 환멸과 때늦은 부끄러움에
몹시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제 눈앞으로
묵묵히 나를 굽어보고계시는
백발의 한 로인이 보여오더군요
어텐가 낮익어 자세히 쳐다보니
아니 글썽 그분은
신장지팡이를 짚으신
서산대사님이 아니겠어요?!

《아, 대사님...》
저는 창황히 머리 수그리며
큰절을 올리는데
대사는 저의 어깨 다독이시며
눈을 감으신채 뉘게라없이

나직이 시를 뇌이시더군요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넌
산속의 중도 하나의 신하라
서울이 어디쯤인가
고개돌려 바라보니 눈물이 쏟아지네...

중얼중얼 말하듯 시 읊기를 마치시자
대사님은 홀연히 뒤도 돌아보지 않고
키넴는 신장지팡이를 다독다독 짚으시며
저 령사전쪽으로 안개처럼 사라지시더군요

저는 눈을 뜨며 그 자리를 일었어요
그 순간 제 뇌리에는 방금 들은 그 시가
임진조국전쟁때 오랑캐들이
서울을 타고왔었다는 소식 듣고 쓰신
대사님의 시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 시가 임진조국전쟁때가 아니라
오늘에 씌어진 시로
그리고 시에서의 왜놈은 미제놈으로
이 가슴에 새겨오는 그것이였습니다

왜적이 타고왔었다는 서울을 생각하며
비분의 눈물을 흘리시는 서산대사님
아 그런데 이 못난 이 이른바 작가는
미제놈이 타고왔은 서울을 두고
통한의 눈물 과연 얼마나 흘렸던가요?

미웠어요
때늦은 자책에 몸부림치는
이 부끄러운 《너류작가》가
그 순간엔 정말 초췌하게 보이더군요
이런 자책 뒤척이며
천천히 제가 대돌을 내려서는데

때마침 멋지게 생긴 장평 한마리가
끄억끄억 머리를 조아리며
대웅전앞 푸른 잔디우를 어기발로
한가롭게 걸어가는데 아니겠어요

아, 동화에서나 만날수 있는
한쪽의 꿈같은 풍경!
사람들이 곁에 가도 놀라지 않고
그렇듯 천연스레 노니는 장평은
말을 걸면 금방 대화도 나눌수 있는
그런 신화속의 모습이였어요

제가 한껏 취해 머리드는 순간
아름답고 웅장한 국제친선전람관이
이 민족의 궁지이며 세계적인 재보인
이 행성 제일의 눈이 시리도록 희한한 집으로

진록색골짜기를 짝 채우며
떠흘러나오는것 같았어요
정녕 눈이 부셨어요
그리고 가슴이 이룰못할 궁지로
뿌듯하니 부풀어오르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전람관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전에 내렸던 백두산이
그렇게도 그토록 신령스럽던
그 백두산이 문득 떠올려지더군요

아, 백두산!
저는 어찌하여 이 순간 느닷없이
국제친선전람관을 보면서
민족의 성산
저 백두산들 생각했을까요?

바로 저 국제친선전람관이야말로
그 믿음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를
현실적으로 시사하는
엄연한 증거라고 나는 생각했고
그 생각은 곧 백두산이라는 신령의 성산을
제 머리에 스스로 떠올려주었던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민족의 존엄을 찾아주신
질세의 위인들에 대한 송가
온 인류의 다함없는 찬가인 이 전람관은
이 전람관을 배출시킨 거대한 백두산을
절로 이 가슴에 품게 했습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존심, 이 존엄을 지켜준이
고금동서 그 어느 력사에도 없었다는
그리하여 북조선인민은 물론 남조선인민
온 세계의 선량한 사람들이
그토록 우러러 경모하는 주석님과
국방위원장님에 대한 호모심으로 불태웠던겁니다

이 순간 저의 가슴에는
방금 로대에서 이곳 강사아가씨가
뜨거운 걱정속에 읊던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묘향산 가을날에》의
너무도 뜻깊은 구절구절이
눈물겹도록 진솔하게 안겨왔어요

로대우에 올라서니 천하절승 예로구나
묘향산절경이야 태고부터 있는것을
전람관 여기 솟아 푸른 추녀 나래퍼니
민족의 존엄 빛나 비로봉 더욱 높네
...
아, 구절구절에 맥맥히 흐르는

애국애족의 고결한 녀!
저는 저도 모르게 그 다음구절부터는
노래하듯 소리내여 읊었어요

아, 한평생 모든것을
인민을 위해 바쳐오신 이 헌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현실적위인이 있었던겁니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세기와 21세기는
인민헌신의 현실적인 절세의 위인들을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한겁니다
우리는 그 확인을 바로 여기
국제친선전람관으로 증명했습니다

따라서 그 위인들의 사상과 품모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 인민의
절대절명의 신념이 된거고
그 신념이 바로
위대한 주체사상인겁니다!

인민헌신의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이런 사상을 가진 인민에게
무엇때문에 세월의 때에 절취진
상징적인 교머 신앙이
구태여 필요할겁니까?

전혀 필요없었겠지요
또 그렇게 필요없으리라는것
너무도 당연했던거구요
위인들의 애국지심과
불세출의 인민헌신
여기에 감복되어 그 가슴가슴에
스스로 싹튼 매혹

세상에는 이런 매혹을 꺼버릴
그 어떤 물리적인 힘도
결코 있을수 없다는것을
저는 비로소 석연히 터득했습니다
좀 늦은감은 아니 껍 늦은감은
물론 있었구요

이제 와서 무엇을 더 숨기겠습니까
전 사실 여기 묘향산걸음을 두고
민족작가대회참가덕에
그간 소문으로만 듣던
보현사를 보는 행운이 차례졌다

은근히 속으로 패재를 불렀던건데
저의 행운은 보현사에는 비교도 안되는것

즉 내 인생의 터득과 발견으로써는
실로 세계적이고도 인생전환적인
그런 엄청난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점만 가지고도 이런 행운을 안겨준
민족작가대회앞에 큰절을 드려야 할겁니다
그렇습니다
백두산은 북조선의
아니 우리 삼천리금수강산의
절대절명의 신념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민족의 존엄
이 겨레의 자존심입니다!

그리하여 저는 알았습니다
이런 백두산이 이렇듯
이 땅에 억척같이 솟아있음으로 하여
이런 인류의 제일보물고
국제친선전람관의 탄생도 필연적이었구요
따라서 이 전람관을 보면서 제가
백두산을 떠올린것도 결코
《느닷없었던》것이 아니었다는것

오, 그리하여 여기 묘향산의
세계적인 아름다움도 가능했다는
이 불변의 철리는 저 백두산과 더불어
영원히 제 가슴에 새겨져있을것입니다

그러니 내 어이
백두산의 신봉자
백두산의 절대교도가 아니될것입니까
그 어이 그 어이
백두산을 내 삶의 심장으로
이 가슴에 품지 않을수 있을것입니까!

제4장 오, 민족작가대회여

뉘엿뉘엿 해저물어가는무렵
발돋움해 일어서서 우리를 배려주는
멀어져가는 묘향산을 차창너머 돌아모며
우리는 평양으로 차를 달렸다

청청 푸른 벼바다너머
열기설기 하얀 정류탑과 굴뚝들이 수풀같은
발전소와 화학공장이 비쳐 들던 차창으로
문득 멀리 투구모양바위가 비껴들었다
《어이구, 저 바위 좀 보지
신통히도 울지문덕장군이 썼던 투구갈구만》

전주에서 왔다는 한 소설가의 익살에
까르르... 차안에 웃음통이 터지는데
《자네 어서 나가 투구바위앞에서

잘못을 빌어야 할가보네...》
결에 앉은 목포에서 온 한 시인이
시치미 떼고 지어 능청을 부린다

《아니, 내가 무슨 잘못 저질렀게?》
《자네 반미작품 얼마 없지?
그게 이번 6.15대회정신과 맞아?
까딱하면 협회결성때 제명이야...》

통담인가 진담인가 대회전까지만도
갈래갈래 복잡던 남조선문단
리념도 양상도 제마끔이던 그들이었건만
6.15공동선언실천이라는 하나의 리념아래
대회는 그들을 얼마나 달라지게 했던가

저저마끔 단체들은 서로 달라도
대회 전기간
그들 언어의 공통분모는 오직 하나
《6.15공동선언실천》,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자주》, 《모국어》 등등이었으니

아, 이런 숨결 이런 맥박으로
우리가 한혈육임을 다시 확인하고
문단파벌이란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부끄럽게 돌이켜보게 해준
민족작가대회였거늘

아까의 통담아닌 진담으로
채찍받던 작가가 차창밖을 내다보며
침중한 소리로 뉘게라없이 하는 소리
《그래 맞았어, 효순이 미선이때도
그저 초불시위가 교작이었지...》
그 때늦은 자책도 노래처럼 듣기 좋던 그때
서울의 시인 열에 떠 목청 돋군다
《이제 우리 민족문학의 길은 오직 하나
6.15공동선언실천전위가 되는것이겠다!》

그러자 《와! -》 터쳐지는 열호!
저녁노을을 떠담아실고
그들의 열호에 춤추듯 흘러가는 강과 산천
늠실늠실 그 물결 그 산천 눈주어보다 말고
비전향장기수소설로 유명해진 부산의
한 소설가가 흥분을 누잠히며 말한다

《그래서 어제 밤 한전호텔에서
전 취재수첩에 〈민족작가대회 만세!〉
이렇게 또박또박 써넣었는데
소설이 되겠는지 수필이 되겠는지...》

《민족작가대회 만세!
그렇듯해 멋있어! 사실 이번에
이 대회가 아니었더라면
우린 지금도 제나름대로였을거네》

광주에서 온 로시인이 머리를 끄덕이는데

《그럼요, 그러다나면 바다는커녕
어느 산골짜 실개천꼴이 되겠지요 뭐》
그 뒤줄에 앉았던 한 녀류소설가
지난날 문파싸움이 멀미가 난다는듯
역증기 배인 토라진 소리를 낸다

《아니 그런데 왜 내 말끝에 역증인가?》
광주의 로시인이 뒤돌아보며 버럭 화를 내자
부산의 작가가 손저어 제지시킨다
《이거 평양작가분들 웃겠어요
우리모두 실개천꼴이 안되면 될거 아니요?》

《웁소, 우리모두 대화가 되자는거요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
이 하나의 대화가 되어 우리 통일문학의
바다로
이 땅의 통일로 힘차게 달려가자는거요!》

누군가가 웨치는 소리에
여기저기 좌석에서 터지는 소리
《웁소!》 《백번 지당한 소리요!》
열띤 그 호응소리와 함께 터졌다
박수 박수가 터졌다

《아, 좋다
민족작가대회가 정말 좋아!
흘러가는 물이 되더라도
가다가 말라버리는 실개천이 아니라
기어코 바다로 가는 큰 강이 되라》
백발이 성성한 한 로작가가
노래절반 말절반 섞인 어조로
걱정을 금치 못해하는 소리!

그 말을 받아 흔들리는 차안
여기저기서 터지는 소리
《우리가 똑같은 사색속에서
똑같은 필봉 잡게 한 이 민족작가대회가
바로 6.15의 산아라는것을 명심하는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야 두말하면 잔소리지
그래서 대회명칭자체가...》
그 말을 받아 온 차안이 합창한다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
그 합창에 이어
약속없이 터지는 박수 박수!

오, 그 박수속에서 흥분에 뜬 소리
즉흥시인이 웨치는 구호인가
여기저기서 중구난방으로 터진다
《정녕 6.15는 민족통일의 표대!》

《민족통일의 구심점》
《민족작가대회의 어머니!》

《옳다! 맞다! 그래서
이 땅의 한스런 분열을
영영 매장할 상여삽자루로
저 6.15공동선언을
우리모두 어깨에 메고 나선거다!》

그 누군가의 열띤 소리에 이어
천둥우뢰소리가 온 차안을 뒤흔들며
만세의 함성 터진다
《6.15공동선언 만세!》
《6.15공동선언실천을 위한
민족작가대회 만세!》

그 만세소리속에서 뒤쪽 좌석에서
40대 중반의 녀류시인 가뿐 일어난다
《통일이 바다라면 작가대회는
〈그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대하!〉
이 명문의 저작권은 제게 있으니
누구시든 넘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저런 놀부 봤나?
그거야 우리 공동의 저작권이지
아유 생눈 빼잡수겠네》
누군가 어이없다는듯 하는 소리에
《하하하...》 일시에 터지는
즐거운 웃음소리 웃음소리! ...

그 즐거운 웃음속에서
어제날의 문학아닌 문학
민족의 아픔 고통은 알바없이
이른바 순수문학주의에 빠져
글로 산수풍경 그리기 오묘하고 난해한
글장난질의 《문학》을 문학으로 여겼던
그 모든 창피스럽던 치욕의 과거
홀홀 날려보낸다 툭툭 털어버린다

그 웃음 누르며 누군가가
저력있는 소리로 딱 부러지게 말한다
《이 문학의 철리는
저 조종의 성산 백두산에 해떠오를 때
우리모두가 깨우쳐알았던 말이요
백두산에 해떠오를 때 말이요!-》

오호, 그렇다! 그러했다!
백두산에 해떠오를 때
너나모두는 벽찬 숨결속에서 보았다
백두산의 웅좌가 얼마나 무게있고
범접할수 없는 그 기상 얼마나 기세찬가를

정녕 우리는 백두산에 해떠오를 때

한낱 눈으로씨가 아니라 심장으로 보았다
즐기즐기 뻗어내린 억센 등마루며
과도쳐 흘러내린 천리수해
그리하여 그것이 바로 내 집 내 나라인것임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노니

오, 그리하여 백두산에 해떠오를 때
알았다 우리는 온 심장으로 알았다
백두산은 이 민족의 뿌리
이 민족의 기상, 이 겨레의 자존심
더불어 우리 마음의 기둥
우리의 심장인것임을!

그러한 백두산을 우리에게 보여준
그러한 해돋이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
아 김정일장군님은 우리 민족작가들의 위대한
스승
한없이 뜨거워오는 숙연함에
모두다 설레여지는 마음 어찌지 못하는데

때마침 좌석 앞쪽에서
누군가가 흥분에 겨워 소리친다
《평양, 평양이요!...》
그 소리에 모두가 일시에
앞차창쪽으로 눈길 모으는데

아, 저녁해빛의 여광에
창문들마다 보석처럼 빛나는 평양
어머님제시는 고향집같은 수도 평양이
따뜻한 불빛을 자글자글 펼쳐들고
어서 오라 우리를 맞아주듯
차창앞으로 다가온다 서서히
서서히 다가온다...

평양찬가 평양체류 마지막밤에 쓴 서울 녀류소설가의 일기

《평양체류의 마지막밤이다
산행피곤에 몰려 자리에 누우면
순간에 잠들거라 여겼는데 천만의 말씀
나는 끝내 자리 일어 창가에 섰다
호텔밑 왼쪽 어데선가
혼합기소리 웃음소리가 들려
그쪽을 살피니 유치원건설장이다

이곳 사람들은 밤을 모르는상싶다
그리고 이곳에선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도저히 종잡을수 없다
우리 체류일정도 5박 6일로 통일행사로든
이례적으로 제일 길었다지만

미국 가서 하루밤만 자고나면 지루하다고
곧잘 두덜거리던 동료작가들까지도
체류기일이 너무 짧다고 꿈꿨던
나 역시 같은 생각이다

그런 생각속에서 이밤 창가에서
점두룩 바라보는 평양!
이곳을 떠난다는것이 전혀 실감되지 않는다
그리고 떠나기 아쉽다는 생각
지어는 대학시절 방학때 시골집에 내려갔다가
떠나기 것처럼 힘들던 그 마지막밤처럼
아쉬움을 지나 슬프기까지 하던
그때 그 심중이다

평양! 참 신비스러운 곳이다
돌이켜보면 나는 지금까지
평양을 너무도 몰랐다
옛고구려의 수도 모란봉, 대동강-
이 정도가 교작이었다

우리 남조선이 굽신거리는 미국도 눈치보는
여기 평양의 비결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번 기회에야
어렴풋이나마 알게 되었으니
그때가지고도 작가였던 내가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도 부끄럽다

그때 60년만의 우리 작가대회의 탄생을 두고
김정일장군님 배풀어주신 그 사랑
때늦게 알고 우리 얼마나 감격했던가
대회일정이며 의정 지어는 참관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다 보아주신분
그리하여 겨레의 사랑을 받도록
여기 평양을 통일활주로로 펼쳐주시고
우리모두에게 억센 통일날개를 안겨주신분

오, 그리하여
장군님찬가로 이어지는
가슴속 뜨거운 우리의 이 평양찬가!
그 시작은 과연 어디이며
그 끝은 과연 어디인것인가

정녕 평양은 위대한 성도이기전에
어쩐지 그 옛날 어머님께시던
내 고향집같이 정답고 유정하거니

아, 내 온넛으로 반해버린 평양
너 민족의 존엄 평양이여!
내 몸은 비록 그대를 떠나지만
그대 이 가슴속에 있는 한
나는 영원히 그대를 떠날수 없는
그대의 딸로 남아있을것이니
잘있으라 평양이여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통일문학으로 6.15를 지키자

-전체 민족작가들에게 보내는 격문-

이제 추억일수 없는
나의 《추억》은 끝났다
북남해의 전체 작가들이여!
명실공히 6.15는 이 민족의 통일좌표
우리 6.15를 통일심장으로 가슴에 품자

어떻게 마련된 6.15인것이며
어떻게 마련된 민족작가대회였거나
우리의 펜을 6.15수호의
통일총검으로 으스러지라 틀어잡고
6.15수호의 결전장에 악악 떨쳐나서자

통일에 참된 민족삶이 있음을 부르짖으며
반외세성전에 한몸바친 열혈작가들을 잊지 말자
파쑸의 칼끝앞에 온 거리가 가슴내뎔 때
뒤골방에서련정소설 풍경시나 끄적이던
못난이작가 그 부끄러운 과거와 영영 결별하자

《통일문학의 새벽》을 열던 백두산마루에서
우리 온몸 화불처럼 하나로 붉게 물들여주며
우리 가슴 벽차게 들먹이게 해주던
아, 백두산의 그 청순한 아침 그 벽찬 순간속에
통일붓대 억세게 틀어잡고 우리 영원히 살자

그러면 우리 장군님 펼쳐주신
통일의 6.15는 억척같이 지켜지리니
그렇게 지켜내는 6.15에 백두산의 천년설같은
우리 문학인의 깨끗한 량심이 있고
민족작가의 참된 인격이 있는것이니

우리모두 반통일광풍을 쓸어버리는
드세찬 통일문학의 승전보도가 되어
통일문학의 펜으로 반6.15패당들을 무찔러
버리고

저 한나산에서 백두산을 우러러 울며 웃으며
오, 우리의 통일민족작가대회를
우리 뜨겁게 보란듯이 열어보자!

통일이여 너를 비끼게 하련마

김선화

출강!
제철소구내에 타래쳐오르는
불보라 불보라
뜨거운 열기, 눈부신 화광, 퍼져가는 노을
허나 결코
기쁨과 환희의 불꽃보라만이 아님을
사람들이여 아시는가

그날이 오면
고향 백록담의 맑은 물로 빗은 술로
통일잔치를 차리겠다던 우리 교관아바이
아 눈도 감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오, 휘뿌러지는 쇠물보라여
너 7천만의 심장에서 터져나오는
절규의 뜨거운 분출은 아니랴
원혼들의 눈마다에서 쏟아져 흘날리는
피눈물의 진한 방울방울은 아니랴

장장 60여년 분열세월아
희망에 넘쳐 새날을 맞고 고운 꿈 펼치던
6.15통일시대 10년
화산으로 뿔어오른 통일열망의 나날이여
이 나라 이 민족 그 뉘에게나
쌘아 장약된 원한과 분노
터뜨리지 못한 울분이
아직도 아프게 응어리져있다

더는 못 참아
이제 더는 《통일아리랑》 노래만 부를수 없어
백광을 뿌리며 응웅
전기료가 몸부림친다

용해공 우리 가슴 쇠물보다 더 세차게 고패친다

휘몰아치는 6.15의 열풍에도
장벽을 두드리는 통일의 함성에도 아랑곳없이
저 하나의 영달을 위해
통일성업을 통략하며 파리를 틀고앉은
남조선의 역적패당들과
우리 언제까지
대화와 협상을 론해야 하느냐
양보와 도량에도 한계가 있는 법 아니냐

정녕 어느때까지 참으며
쇠물만 휘저어야 한단 말인가
부르르 쇠장대가 떠다
불끈 들어친 주먹이 우드득 소리친다
미제 천추에 용서 못할 내 조국 분렬의 원흉
매국역적 반통일세력들을
펄펄 끓는 전기로에 처넣으라

오, 통일
너를 부르며 불러 찾으며
꿈에서라도 너를 봐야 하기에
눈도 감지 못한 또 한목숨이
하늘도 높푸른 아침 한을 품고 갔다
이렇게 떠나간 세대들 그 얼마던가

우리 떨리는 손으로
그들의 눈을 감겨주지 않으련다
오, 통일 통일
무섭게 달아오른 이 손으로 결단코 너를 안아와
담지 못하고 떠나간 원혼의 눈물에
통일이여 너를 비끼게 하련다!

겨레여 더 높이 추켜들자

김경남

온 강산에 눈이 덮이고
있없는 나무가지에 삭풍이 불어도
6.15를 안고사는 겨레여
6.15가 우리를 부른다

통일을 부르며 반세기
우리 겨레 갈라져 타던 가슴들에
환희가 격랑치던 6.15
아, 그 6.15가 열번째로 왔다고

겨레를 부른다

계절이 뜨거워
우리 심장 뜨거웠더냐
록음이 설레여
우리 가슴 설레었더냐
한평생 우리 겨레를 안고사신 수령님
이 땅 3천리를 안고사신 장군님

위인들의 애국애족의 그 뜨거운
자자구구에 기념비로 새겨져
새 천년기의 하늘가에
우리 겨레 손모아 추켜든 기치
6.15공동선언

그 기치 그 리념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 겨레 통일의 그날 향해 큰걸음 짚을 때
선언의 뜨거운 열기에
열었던 분렬의 장벽은 해빙기를 맞이했고
갈라졌던 지맥에 더운 피 흘러
우리 가슴 통일의 열기로 더욱 불타게 하던
6.15공동선언이었던만

그 기치 꺾으려 광풍을 몰아오고
그 리념 없애려 칼질하며
통일의 대하에 차단봉을 내린
반통일역적들과 전쟁광신자들
우리 어찌 용서할수 있으랴

더 높이 추켜들자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그 기치 퍼덕임으로 그 기치창점으로
반통일분자들을 지경박으로 휘썩어버리자
그 기치아래 높이 추켜든 주먹으로
박살내자 통일의 차단봉을

기치는 들고 달려야 한다
리념은 신념으로 펼쳐야 한다
추적으로 남을 6.15의 그날이 아니다
선언이 메아리치던 푸른 하늘이
우리를 지켜본다

공동선언의 기치 더 높이 추켜들고
10년세월 년년이 키워온 열매
통일의 열매로 무르익으리
강성대국 하늘가에 통일의 새아침 밝아오려니
겨레여 더 높이 추켜들자
6.15북남공동선언의 기치를

우리는 그날을 기다린다

정성환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이 땅의 평화는 여전히 준엄하다
미제와 남조선반통일역적들
네놈들때문에

포근한 요람속에
아기를 잠재우는 어머니조차
마음속엔 총대를 놓은적 없다
전쟁과 살육을 일삼는
바로 네놈들때문에

전쟁과 평화
삶과 죽음이 판가리되는 이 시각
원썹을 소멸할 분노한 혁명무력이
만장탄된 격발기를 손가락에 걸고
내 조국의 평화를 수호한다
무적의 포탄을 채워안은
철갑의 포신들이 분노에 떠다

상식

하늘 땅 바다가 뒤집히도록 폭음을 울리는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불속으로 날아드는 부나비의 망상이다
바위를 맨발로 차보려는 어리석은것들의 망동
이다

네놈들이 전쟁의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이
네놈들이 불에 타죽는 순간이다
네놈들이 이 세상밖으로 사라지는 순간이다
때늦은 후회조차 할수 없는 순간이다

《키 리졸브》, 《독수리》 전쟁악마들아
우리는 네놈들이
이 땅의 풀대 하나라도 다치는 그 순간을
절대로 절대로 놓치지 않을것이다
그때면 준엄한 평화
모순되는 이 말이 이 땅에서 영영 사라지리라

미래의 옷의 몇가지 특징

- 영원히 주름이 생기지 않는다.
- 각이한 색깔로 변한다.
- 누구에게나 다 맞는다.
- 방수기능을 가진다.

- 부드럽고 질기다.
- 재질이 변한다.
-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한다.
- 병을 예방, 치료한다.

둘도 없는 장식품과 명작

이름난 작가 잭크 론돈은 시간을 아껴가며 인류학에 관한 많은 저서들을 읽고 한생을 작품창작에 전념한 사람이다.

1900년 2월 그는 《승냥이의 아들》을 써서 발표하였다. 이 책은 그의 청신한 풍격으로 하여 미국문학계를 뒤흔들어놓았다. 그는 끝내 성공했던 것이다.

잭크 론돈의 방안에 있는 창문휘장, 옷걸이, 각종 장들, 침대머리, 거울, 벽에 이르기까지 어디에나 형형색색의 종이쪽지들이 붙어있었다. 손님들은 그것을 보고는 《이건 둘도 없는 좋은 장식품》이라고 하며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잭크 론돈은 그 종이쪽지들을 무척 사랑하였으며 그것들을 떠나서는 살수 없을것 같았다. 그 종이쪽지들에는 여러가지 글자들이 씌여져있었다. 미묘한 어휘들이며 생동한 비유, 다종다양한 자료들이 적혀있었던것이다. 잭크 론돈은 언제 한번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낸적이 없었다. 잠자기 전에는 침대머리에 붙인 글쪽지를 읽어봤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는 옷을 입으면서 벽에 붙인 글쪽지를 읽어봤고 면도를 할 때면 거울에 붙인 글쪽지를 읽었다.

산보를 하며 휴식할 때에는 창작적령감을 불러일으키는 어휘나 자료들을 찾아다녔다. 그는 집에서뿐아니라 외지에 나가서도 한가로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그럴 때면 그는 작은 글쪽지들을 호주머니속에 넣고 다니며 아무때나 꺼내어보며 생각을 굴리었다. 어느날 잭크 론돈은 람루한 옷을 걸치고 떠돌아다니는 미국수부로 자처하면서 영국 런던의 빈민굴에 찾아갔다. 그는 허줄한 모

양을 하고 다녔지만 사람들은 뜨겁고 성근하게 대해주었다. 그는 거기서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과 친구로 사귀었다. 그는 로동자들의 집으로 자주 놀러 다니었으며 늘 피난민수용소에도 들렀다. 빵을 탈 때면 피난민들과 함께 줄을 섰고 빵을 먹은 다음에는 그들과 함께 으스스한 곳에 누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단 이야기가 시작되면 끝날 줄 몰랐다. 그는 마치도 아무 일이나 흥미를 가지듯 그들의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었다. 사람들은 이 수부에게 정이 들어 자기들의 속마음까지도 다 말해주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잭크 론돈이 보이지 않았다. 누구도 그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사실 그는 몸을 숨기고 자기가 보고 들은 모든것들을 종이에 적고있었다. 몇달이 지나자 종이에 적은 자료가 한 트렁크에 가득찼다. 잭크 론돈은 그 트렁크를 들고 가난한 사람들과 리별하고 귀국의 길에 올랐다. 썩 후에야 사람들은 그 가난한 수부가 바로 이름이 자자한 작가 잭크 론돈이라는 것과 세계를 뒤흔든 명작 《최하층사람들》이 바로 그 트렁크안에 있던 소재들을 가지고 쓴것이라는것을 알게 되었다.

세계유모아

무식한 책방판매원

손님: 《여기 다른 나라 책들도 있습니까?》

판매원: 《물론이지요.》

손님: 《장편소설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가 있습니까?》

판매원: 《그건 저쪽 과학기술도서매대에 가서 물어보십시오.》